

기획연구

2024-09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북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분석

Analyzing the Current Progress of Jeonbuk's Top 10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s to Explore Potential Value Chain Reinforcement

박주현 김시백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을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박주현

탬페레대학교 교육학박사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시백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기획연구

2024-09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북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분석

Analyzing the Current Progress of Jeonbuk's Top 10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s to Explore Potential Value Chain Reinforcement

박주현 김시백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박주현 | 석좌연구위원 | 연구총괄
김시백 | 책임연구위원 | 제4장

연구관리 코드 : 24GI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제조업 내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들이 역내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제조업 내 정유산업의 비중이 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정유산업의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의 존재가 지역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의 제조업 내 업종 비중과 무관하게 신성장 제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중기적 성장성)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10년간 중기적 성장성) 산업이라 정의하고, 전국 제조업 80개 소분류 업종 중 10개의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총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조업은 대분류 1개, 중분류 25개, 소분류 85개, 세분류 183개, 세세분류 47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분석의 편의상 제조업 소분류 80개를 추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부가가치 비중 및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였고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반도체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업은 85개 제조업 소분류 업종 부가가치 중 17.5%를 창출하였고,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을 보더라도 108%를 기록하여 그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라권은 오히려 부가가치 비중이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기반 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의료분야 업종으로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52% 커졌고,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68% 커졌으며,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무려 200%나 커졌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큰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향후에도 의료분야 제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 제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 등이 고도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라권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라권이 이 업종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앞으로 1인 가구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타 식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3개의 유치 유망 제조업별로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집중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7
가. 연구 범위	7
나.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1.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및 시사점	13
가. 1990년 이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비교	13
나. 충청권 분석	14
다. 전라권 분석	14
라. 소결	15
2. 도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및 시사점	16
가. 2000년 이후 한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율	16
나. 경기도	16
다. 충청북도	17
라. 충청남도	19

마. 전북특별자치도	20
바. 전라남도	21
사. 경상북도	22
아. 경상남도	23
자. 강원도	25
차. 소결	26

제3장 부가가치 창출 기반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1. 신성장 제조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	31
가. 신성장 제조업의 정의	31
나. 부가가치 비중과 증가율 동시 평가의 필요성	31
2. 장기·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32
가. 추출 대상	32
나. 추출 방법	32

제4장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및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

1. 반도체 제조업	39
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52
3. 이차전지 제조업	58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5
5. 의약품 제조업	73
6. 기타 식품 제조업	91

7.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06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14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27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134

제5장 결론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1.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43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147
영문요약 (Summary)	148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1-1]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단위 : %, 배)	4
[표 1-2] 장기, 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10대 산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8
[표 2-1] 2000년 이후 한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16
[표 2-2] 2000년 이후 경기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17
[표 2-3] 2000년 이후 충청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18
[표 2-4] 2000년 이후 충청남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19
[표 2-5] 2000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21
[표 2-6] 2000년 이후 전라남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22
[표 2-7] 2000년 이후 경상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23
[표 2-8] 2000년 이후 경상남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24
[표 2-9] 2000년 이후 경상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26
[표 2-10]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단위 : %, 배)	27
[표 3-1] 장기, 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산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결과	32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 제조업 관련 분류	39
[표 4-2] 최근 10년간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42
[표 4-3]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개요	42
[표 4-4]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45
[표 4-5]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46
[표 4-6]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46
[표 4-7] 2012~2022년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49

[표 4-8]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만 명)	50
[표 4-9]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50
[표 4-10]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51
[표 4-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분류	52
[표 4-12] 2016~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억원)	53
[표 4-13] 최근 6년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54
[표 4-14] 2016~2022년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57
[표 4-1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이차전지 제조업 관련 분류	58
[표 4-16] 최근 6년간 이차전지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60
[표 4-17] 2021년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유치 월별 누적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62
[표 4-18] 2016~2022년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64
[표 4-1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65
[표 4-20] 최근 10년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단위:%)	68
[표 4-21]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69
[표 4-22] 2016~2022년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72
[표 4-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73
[표 4-24]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75
[표 4-2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76
[표 4-26] 2016~2022년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79
[표 4-27] 2016~2022년 전국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80

[표 4-28] 2016~2022년 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81
[표 4-29] 2016~2022년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추이(단위 : 명)	82
[표 4-30] 2016~2022년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	85
[표 4-31] 2016~2022년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86
[표 4-32] 2016~2022년 시도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90
[표 4-3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	91
[표 4-34] 최근 10년간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	93
[표 4-3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94
[표 4-36] 2016~2022년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97
[표 4-37] 기타 식품 제조업 업종 중 신성장 업종 추출	99
[표 4-38] 2016~2022년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	100
[표 4-39] 2016~2022년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04
[표 4-4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107
[표 4-41]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09
[표 4-42]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10
[표 4-43] 표 2016~2022년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12
[표 4-4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114
[표 4-45] 최근 10년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116
[표 4-46]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18
[표 4-47] 2016~2022년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20
[표 4-48] 2016~2022년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	123
[표 4-49] 2016~2022년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26
[표 4-5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127
[표 4-51] 최근 10년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129
[표 4-52]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30
[표 4-53] 2016~2022년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33
[표 4-5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134
[표 4-55] 최근 10년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136
[표 4-56]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37
[표 4-57] 2016~2022년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40
 [표 5-1] 장기, 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결과	144
[표 5-2]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및 전라권 부가가치 비중 변화	14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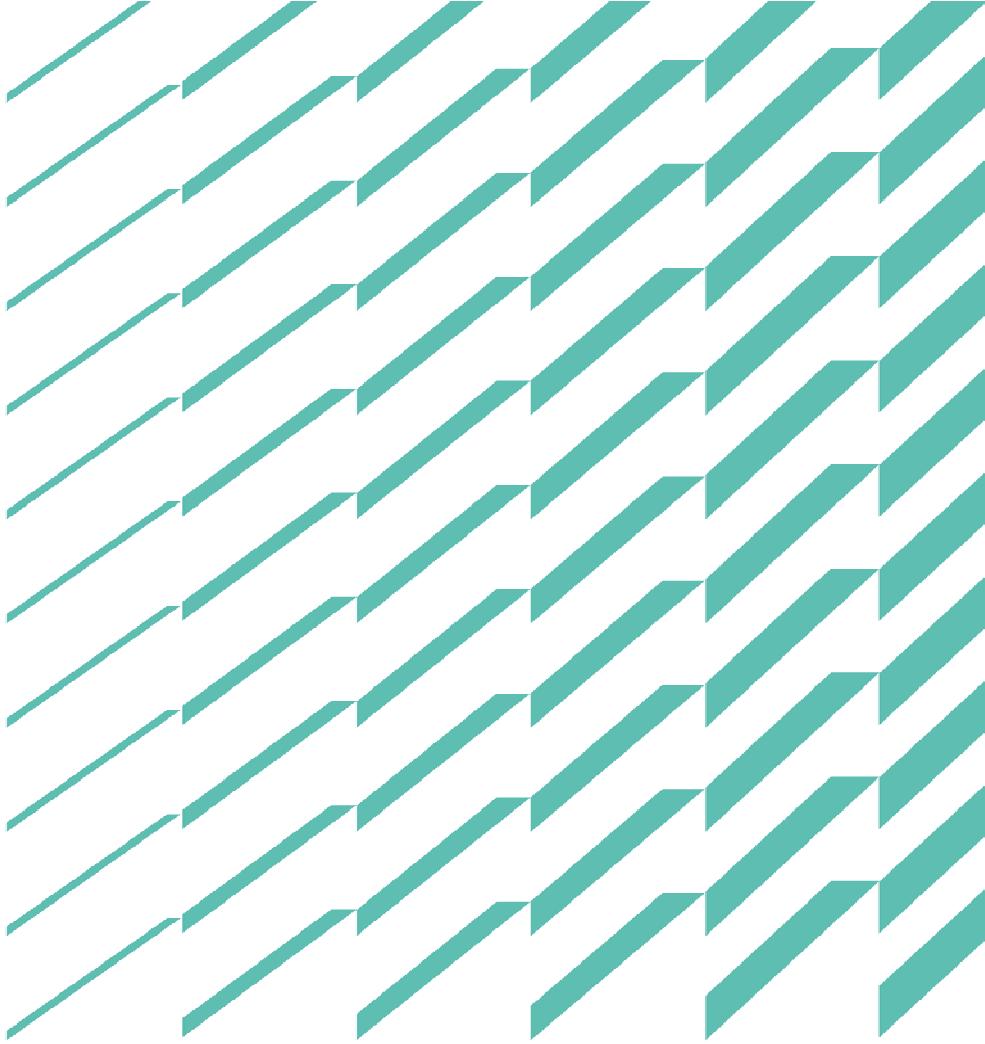
[그림 1-1] 1975~2022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3
[그림 1-2]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단위 : 배)	5
[그림 2-1] 1975~2022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3
[그림 2-2] 1990~2022년 충청권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14
[그림 2-3] 1990~2022년 전라권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비교	15
[그림 2-4]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기도 비중 변화	17
[그림 2-5]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충청북도 비중 변화	18
[그림 2-6]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충청남도 비중 변화	19
[그림 2-7]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북자치도 비중 변화	20
[그림 2-8]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남도 비중 변화	21
[그림 2-9]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상북도 비중 변화	23
[그림 2-10]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상남도 비중 변화	24
[그림 2-11]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강원도 비중 변화	25
[그림 2-12]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27
[그림 4-1]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반도체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40
[그림 4-2]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중 반도체 기업 비중 (단위 : %)	40
[그림 4-3] 그림 최근 10년간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41
[그림 4-4]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43
[그림 4-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44
[그림 4-6]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46

[그림 4-7]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47
[그림 4-8] 2012~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48
[그림 4-9]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단위 : %)	51
[그림 4-10] 최근 6년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54
[그림 4-11]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55
[그림 4-12]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56
[그림 4-13] 2016~2022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59
[그림 4-14] 그최근 6년간 이차전지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60
[그림 4-15]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61
[그림 4-16]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63
[그림 4-17]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66
[그림 4-18] 최근 10년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67
[그림 4-19]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69
[그림 4-20]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70
[그림 4-21] 그림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71
[그림 4-22]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약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74
[그림 4-23]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75
[그림 4-24]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76

[그림 4-25]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77
[그림 4-26]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78
[그림 4-27] 2016~2022년 전국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80
[그림 4-28] 2016~2022년 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	81
[그림 4-29] 2016~2022년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82
[그림 4-30]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83
[그림 4-31]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84
[그림 4-32]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87
[그림 4-33]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88
[그림 4-34]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89
[그림 4-35]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식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92
[그림 4-36] 최근 10년간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93
[그림 4-37] 그림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94
[그림 4-38] 그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95
[그림 4-39]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96
[그림 4-40]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01
[그림 4-41]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102
[그림 4-42]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03
[그림 4-43]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105

[그림 4-44]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	108
[그림 4-45] 최근 10년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09
[그림 4-46]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10
[그림 4-47]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11
[그림 4-48] 그림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13
[그림 4-49]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115
[그림 4-50] 최근 10년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16
[그림 4-51]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17
[그림 4-52]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18
[그림 4-53]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19
[그림 4-54]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21
[그림 4-55]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122
[그림 4-56]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24
[그림 4-57]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125
[그림 4-58]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128
[그림 4-59] 최근 10년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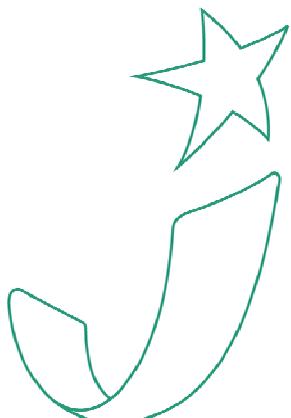
[그림 4-60]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 130
[그림 4-61]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31
[그림 4-62]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32
[그림 4-63]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료용 기기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 135
[그림 4-64] 최근 10년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36
[그림 4-6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137
[그림 4-66]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138
[그림 4-67]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139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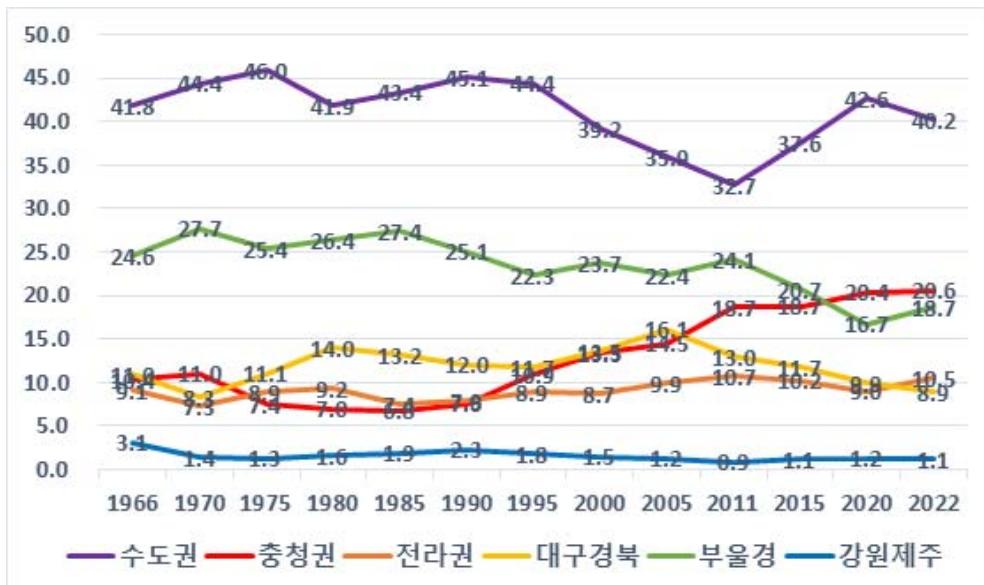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 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90년과 2022년 사이 32년간 수도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비중은 각각 4.9%p(45.1%→40.2%), 6.4%p(25.1%→18.7%), 3.1%p(12.0%→8.9%) 하락한 반면 충청권은 12.8%p(7.8%→20.6%) 상승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이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영남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큰 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1] 1975~2022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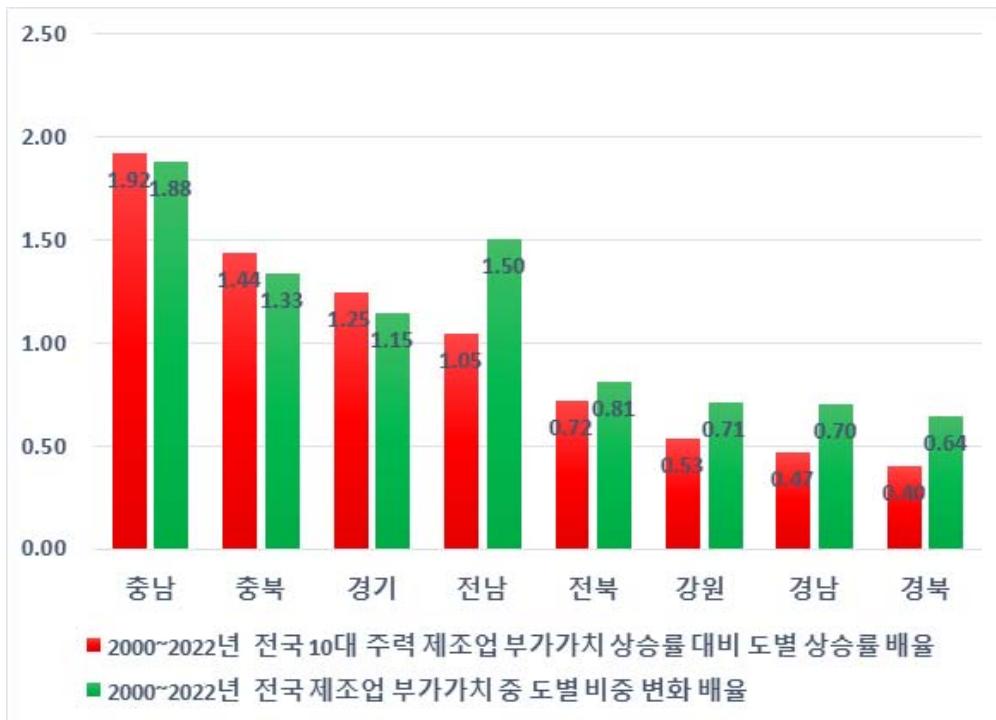
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같은 기간의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높은 충남, 충북, 경기, 전남의 경우 전자는 각각 1.92 배, 1.44배, 1.25배, 1.05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각각 1.88배, 1.33배, 1.15배, 1.50배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내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도들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이것은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전자가 낮은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의 경우 전자는 각각 0.40배, 0.47배, 0.53 배, 0.72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각각 0.64배, 0.70배, 0.71배, 0.81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도들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이것은 성장률이 낮은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1]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단위 : %, 배)

지역	2000~2022년 도내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도별 [A]	전국 [B]	배율 [A/B]	2000년 [C]	2022년 [D]	배율 [D/C]
충남	718%	374%	1.92	6.6	12.4	1.88
충북	537%	374%	1.44	5.1	6.8	1.33
경기	466%	374%	1.25	29.3	33.6	1.15
전남	392%	374%	1.05	4.2	6.3	1.50
전북	270%	374%	0.72	2.7	2.2	0.81
강원	199%	374%	0.53	1.4	1.0	0.71
경남	175%	374%	0.47	9.1	6.4	0.70
경북	151%	374%	0.40	10.7	6.9	0.64



[그림 1-2]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단위 : 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제조업 내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들이 역내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제조업 내 정유산업의 비중이 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 간 글로벌 정유산업의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청권처럼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영남권처럼 성장률이 낮은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북도 현재의 제조업 내 업종 비중과 무관하게 신성장 제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중기적 성장성)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10년간 중기적 성장성) 산업이라 정의하고, 전국 제조업 80개 소분류 업종 중 10개의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제조업 소분류 단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세분류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장기적 성장성)이나 부가가치 증가율(10년간 중기적 성장성)에서 차이가 나므로, 소분류상 각각의 신성장 제조업종 중에서도 신성장성이 강한 2~3개 세분류(혹은 세세분류) 업종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해소사업’에 도움을 주고, 또 전북도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대기업 유치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으며, 특히 ‘신성장 대기업 유치사업’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외 시장 분석을 전제로 하므로 본 연구가 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 이후 약 30년 동안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며,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의 광역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조업은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분류 80개를 대상으로 한다.

나. 주요 연구 내용

1)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통한 제조업 대이동 경로 분석

1990년 이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추적을 통해 30여 년의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이 수도권, 영남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 추적을 통해 전북의 제조업체 유치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같은 기간의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을 비교해 보면서 전자와 후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전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야 할 제조업종이 어떤 것인지 그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3) 장기·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였으며, 신성장 제조업 추출 대상은 제10차 개정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소분류 85개 중 8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조업 80개 소부류 업종 중 신성장 제조업 추출은 세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80개 업종 중 2022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81점을 부여하고, 2위 업종에 80점, 3위 업종에 79점,..., 80위 업종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80개 업종 중 2012년~2022년 부가가치 상승률이 가장 큰

업종에 81점을 부여하고, 2위 업종에 80점, 3위 업종에 79점,..., 80위 업종에 1점을 부여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업종별로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10대 업종을 신성장 제조업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추출된 '10대 신성장 제조업종'은 다음과 같다.

[표 1-2] 장기, 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10대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순위	제조업 소분류 상 업종	2022년 제조업 내 부가가치비 중 [A]	A에 부여한 점수 [B]	2012~2022년 부가가치상승률 [C]	C에 부여한 점수 [D]	합산점수 [C+D]
1	반도체 제조업	17.54%	81	213%	78	159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7.65%	80	148%	74	154
3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75%	69	491%	81	150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미분류 화학제품, 화장품 등)	3.34%	73	119%	70	143
5	의약품 제조업	2.15%	67	128%	72	139
6	기타 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2.48%	68	115%	69	137
7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13%	75	73%	59	134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0.55%	52	366%	80	132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1.15%	59	136%	73	132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0.89%	55	151%	75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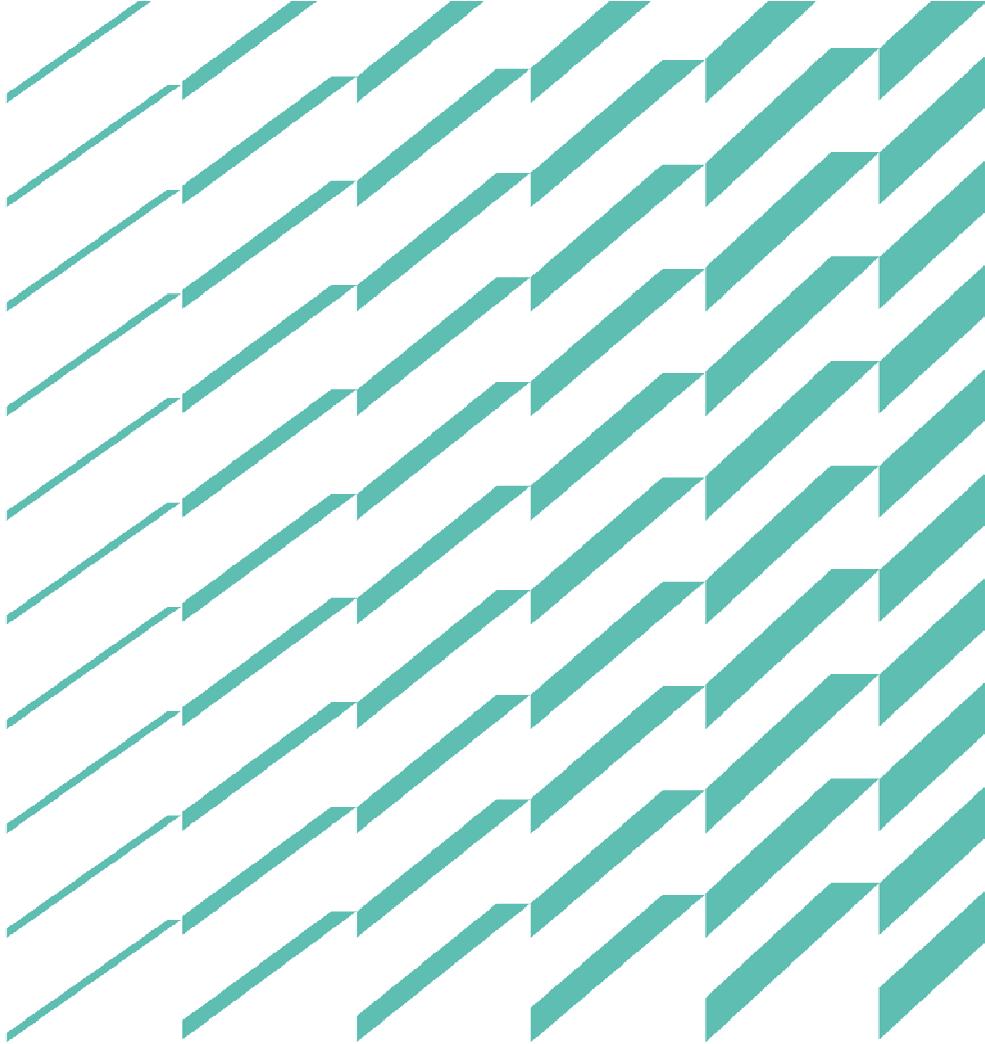
4)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확인 및 전북 인접 시도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10대 신성장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해당 업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권역별, 시도별 신성장 제조업 부가가치 및

종사자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인접지역과의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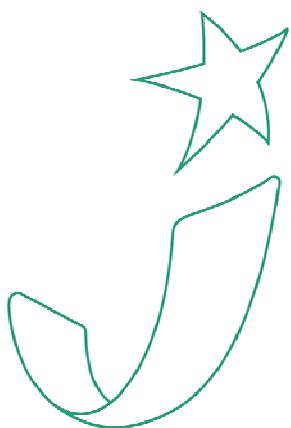
위 과정을 거쳐 10대 신성장 제조업의 세부업종들을 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 유치 할 경우 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업종을 검토하고, 세부 업종별 규모가 큰 공장들의 입지 및 생산 규모를 추적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제2장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1.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및 시사점
2. 도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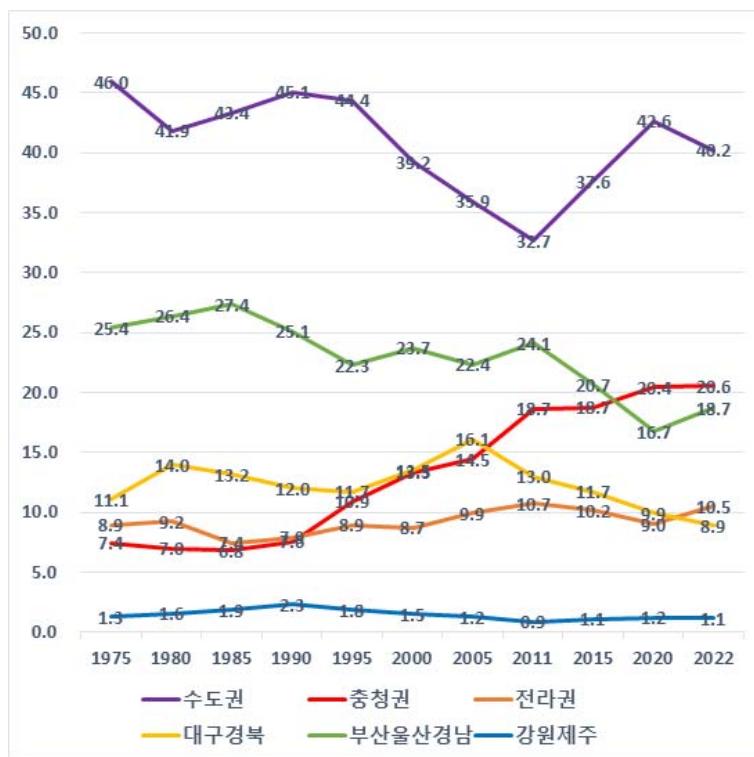


제2장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1.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및 시사점

가. 1990년 이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비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90년과 2022년 사이 32년간 수도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비중은 각각 4.9%p(45.1%→40.2%), 6.4%p(25.1%→18.7%), 3.1%p(12.0%→8.9%) 하락한 반면 충청권은 12.8%p(7.8%→20.6%) 상승하여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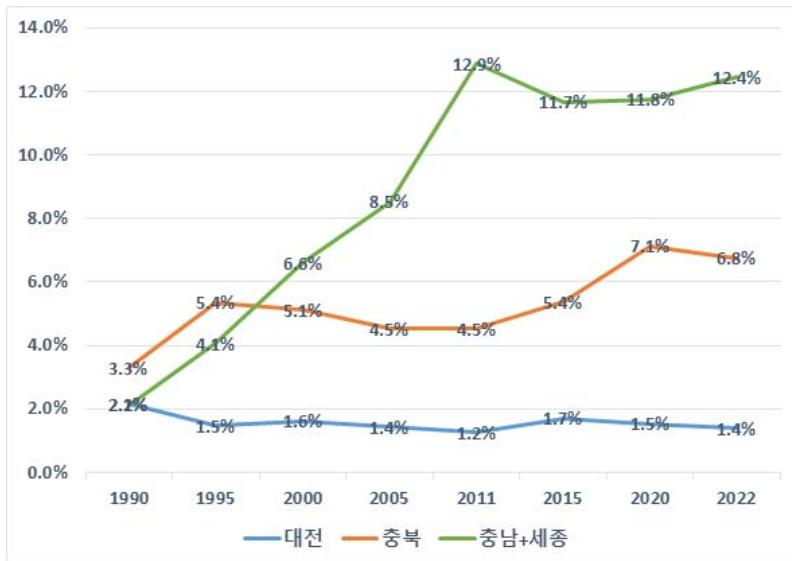
[그림 2-1] 1975~2022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나. 충청권 분석

1990년과 2022년 사이 32년간 충청권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충남+세종 비중은 1990년과 2011년 사이 21년간 2.2%에서 12.9%로 5.9배 상승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동안 충북 비중은 1990년과 2011년 사이 3.3%에서 4.5%로 1.36배 상승했고 2011년 이후에도 4.5%에서 6.8%로 1.51배 상승하였다.

2011년 이후 충남+세종 비중 상승률보다 충북 비중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과 의약품 산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북 지역이 그 수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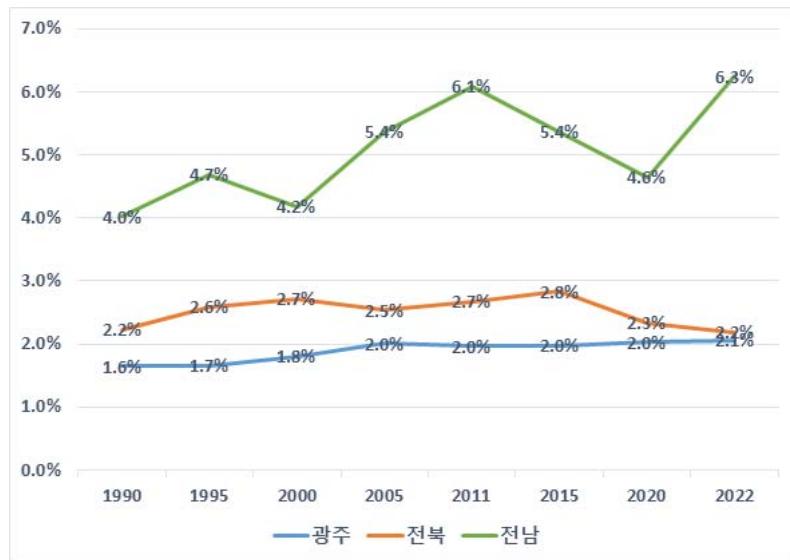


[그림 2-2] 1990~2022년 충청권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다. 전라권 분석

1990년과 2022년 사이 32년간 전라권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광주 비중은 1.6%에서 2.1%로 1.31배 상승했고, 전남 비중은 4.0%에서

6.3%로 1.58배 상승한 반면, 전북 비중은 1990년과 2015년 사이 2.2%에서 2.8%로 1.27배 상승하기도 했으나 2015년 이후 일부 대기업들이 철수함에 따라 그 비중이 2.8%에서 2.2%로 급락하였다.



[그림 2-3] 1990~2022년 전라권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라. 소결

1990년 이후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충청권의 약진과 수도권, 영남권의 부진이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대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매우 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 집중 입지했기 때문이지만, 제조업종 중 일부 업종의 약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에서 비교적 고르게 약진하고 있는 충청권의 도약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제조업종별 약진 상황, 그리고 이들 업종들의 글로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신성장 제조업체 유치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도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및 시사점

가. 2000년 이후 한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율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252%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

또 2022년 기준으로 제조업 내 83개 업종 중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10개 업종을 추출하여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374%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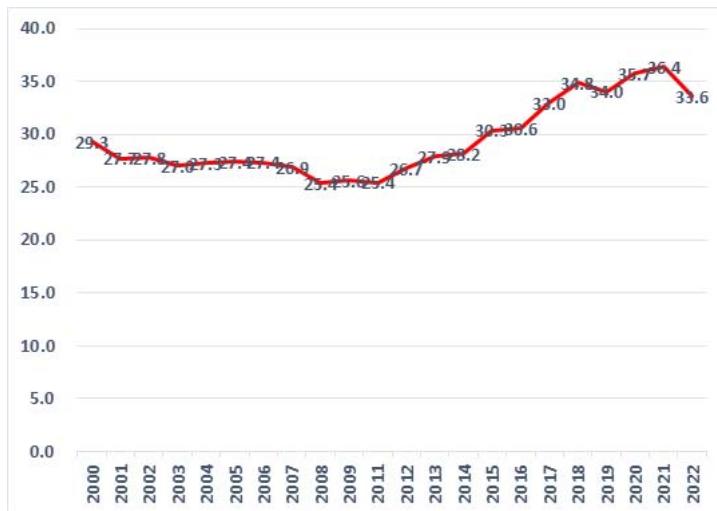
83개 업종 중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10개 업종의 22년간 부가가치 증가율(373%)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252%)보다 1.48배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주력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 2000년 이후 한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반도체 제조업	17.5%	675%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7.6%	894%
3	전자부품 제조업	4.9%	204%
4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4.8%	169%
5	자동차 부품 제조업	4.8%	379%
6	1차 철강 제조업	4.4%	218%
7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1%	402%
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	231%
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3%	329%
1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	303%
	10대 업종 가중 평균		374%
	제조업 전체		252%

나. 경기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기도 비중은 29.3%에서 33.6%로 1.15배 상승하였는데,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 기간 경기도 제조업 10대 주력업 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466%로 전국 평균 374%의 1.25배를 시현했기 때문이다.



[그림 2-4]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기도 비중 변화

특히 이 기간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의 43.5%(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이 부가가치 상승률에서 809%를 기록하며 경기도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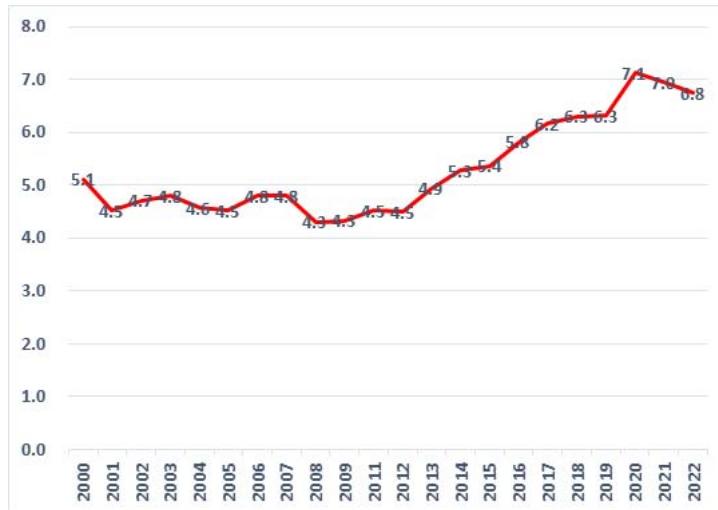
[표 2-2] 2000년 이후 경기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반도체 제조업	43.5%	809%
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9%	614%
3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4.8%	254%
4	전자부품 제조업	4.3%	161%
5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	288%
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2%	292%
7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245%
8	자동차 부품 제조업	2.7%	313%
9	기타 금속기공제품 제조업	2.6%	287%
10	의약품 제조업	2.4%	180%
	10대 업종 기중 평균		466%

다. 충청북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충청북도 비중은 5.1%에서

6.8%로 1.33배 상승하였다. 충청북도 비중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 기간 충청북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537%로 전국 평균 374%의 1.44배를 시현했기 때문이다.



[그림 2-5]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충청북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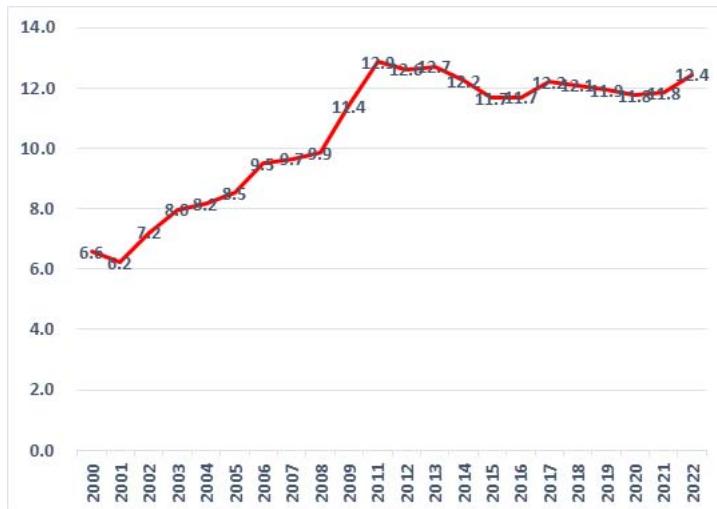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을 제외하고 10대 주력업종이 매우 높은 부가가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 2000년 이후 충청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반도체 제조업	17.1%	246%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9%	486%
3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001~2022)	8.6%	84294%
4	의약품 제조업	6.6%	1257%
5	자동차 부품 제조업	6.1%	1396%
6	기타 식품 제조업	5.9%	393%
7	전자부품 제조업	4.9%	819%
8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8%	427%
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4.4%	445%
1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	1425%
	10대 업종 가중 평균		537%

라. 충청남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충청남도 비중은 6.6%에서 12.4%로 1.88배 상승하였다. 충청남도 비중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 기간 충청남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718%로 전국 평균 374%의 1.92배를 시현했기 때문이다.



[그림 2-6]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충청남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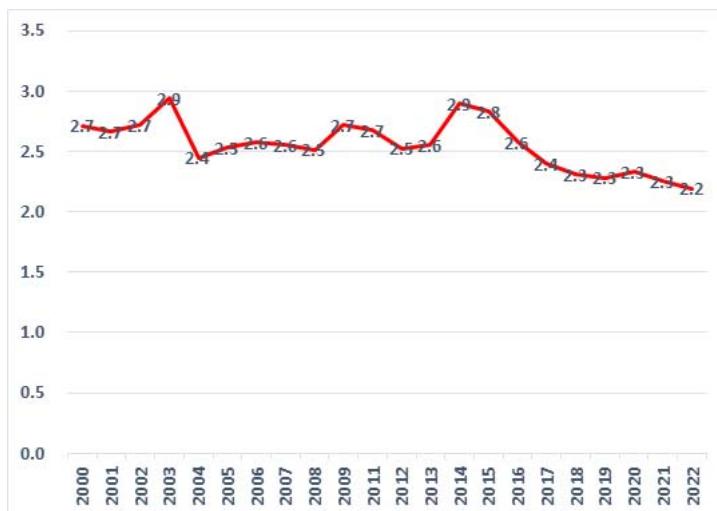
[표 2-4] 2000년 이후 충청남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전자부품 제조업	17.6%	784%
2	석유 정제품 제조업(2005~2022)	12.2%	815%
3	반도체 제조업	8.1%	699%
4	자동차 부품 제조업	6.4%	627%
5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6.2%	21010%
6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6%	1299%
7	1차 철강 제조업	4.6%	941%
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4.5%	505%
9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2004~2022)	3.6%	162%
1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2%	506%
	10대 업종 가중 평균		718%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을 제외하고 10대 주력업종이 매우 높은 부가가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 전북특별자치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북도 비중은 2.7%에서 2.2%로 19%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라북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270%로 전국 평균 374%의 72%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림 2-7]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북자치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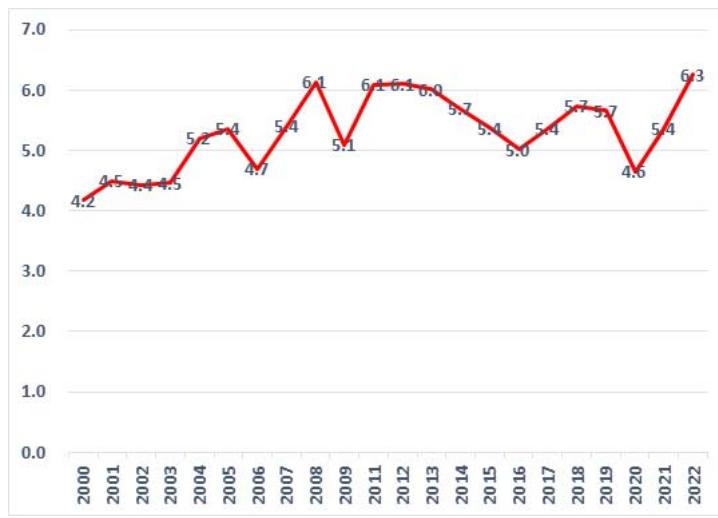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2015년 이후 경제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들이 이탈하면서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2000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자동차 부품 제조업	7.7%	466%
2	기타 식품 제조업	7.4%	187%
3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7.1%	45%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7%	352%
5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6.5%	1648%
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6%	213%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	5.2%	893%
8	1차 철강 제조업	4.6%	356%
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	325%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3.4%	337%
	10대 업종 가중 평균		270%

바. 전라남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남도 비중은 4.2%에서 6.3%로 1.5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 전라북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392%로 전국 평균 374%의 1.05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림 2-8]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남도 비중 변화

다만 전라남도의 경우, 여타 산업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40.2%(2022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지난 22년간 이 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748%로 경제의 외형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추가 성장에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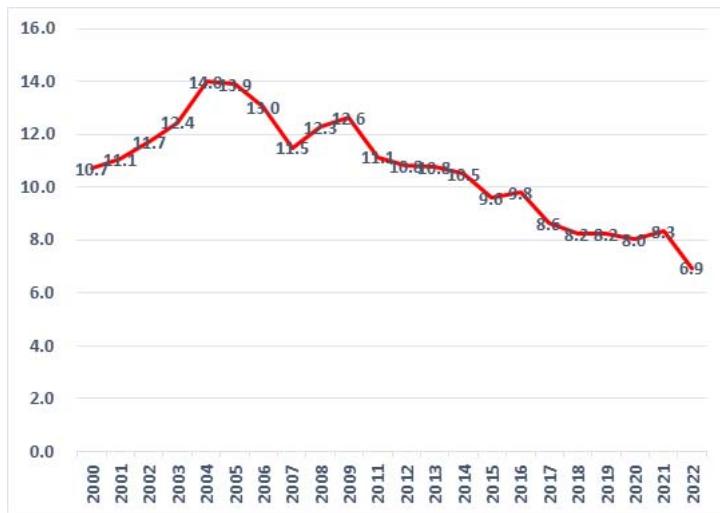
[표 2-6] 2000년 이후 전라남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석유 정제품 제조업(2005~2022)	40.2%	748%
2	1차 철강 제조업	18.0%	223%
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14.0%	294%
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8.5%	248%
5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	1004%
6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8%	142%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6%	826%
8	고무제품 제조업	1.2%	180%
9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020~2022)	1.0%	503%
1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9%	186%
	10대 업종 가중 평균		392%

사. 경상북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상북도 비중은 10.7%에서 6.9%로 36% 하락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동안 경상북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151%로 전국 평균 374%의 4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경제적 비중이 큰 1차 철강 제조업(2022년 비중 14.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2022년 비중 13.3%), 전자부품 제조업(2022년 비중 5.5%)의 22년간 부가가치 상승률이 각각 91%, 106%, 19%로 전국 10대 주력업종 평균 37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경상북도가 전통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신 성장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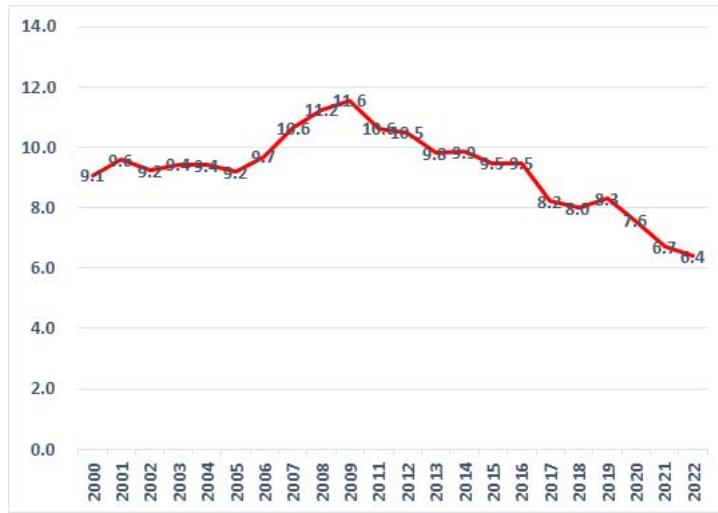
[그림 2-9]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상북도 비중 변화

[표 2-7] 2000년 이후 경상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1차 철강 제조업	14.9%	91%
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3.3%	106%
3	자동차 부품 제조업(2004~2022)	9.7%	260%
4	전자부품 제조업	5.5%	19%
5	반도체 제조업(2001~2022)	4.7%	329%
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	341%
7	일자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3.7%	2468%
8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4%	182%
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4%	362%
1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	691%
	10대 업종 기중 평균		151%

아. 경상남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상남도 비중은 9.1%에서 6.4%로 30% 하락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동안 경상남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175%로 전국 평균 374%의 4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림 2-10]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경상남도 비중 변화

경상남도의 경우, 경제적 비중이 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2022년 비중 9.2%), 선박 및 보트 건조업(2022년 비중 5.9%)의 22년간 부가가치 상승률이 각각 92%, 1%로 전국 10대 주력업종 평균 37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경상북도와 유사하게 전통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신성장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8] 2000년 이후 경상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자동차 부품 제조업	10.1%	332%
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9.2%	92%
3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8.1%	287%
4	1차 철강 제조업	7.1%	340%
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3%	310%
6	선박 및 보트 건조업	5.9%	1%
7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5.5%	227%
8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4.6%	273%
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3.7%	208%
10	고무제품 제조업	3.7%	264%
	10대 업종 가중 평균		175%

자. 강원도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강원도 비중은 1.4%에서 1.0%로 29% 하락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동안 강원도 제조업 10대 주력업종 부가가치 상승률이 199%로 전국 평균 374%의 5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림 2-11] 2000년 이후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강원도 비중 변화

강원도의 경우,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큰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022년 비중 16.7%)의 22년간 부가가치 상승률이 14%로 전국 10대 주력업종 평균 37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경상남북도와 유사하게 전통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신성장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2000년 이후 경상북도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부가가치 비중 순위	업 종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00년~2022년 부가가치 증가율
1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6.7%	14%
2	기타 식품 제조업	10.2%	634%
3	의약품 제조업	9.7%	4419%
4	알콜음료 제조업	9.1%	270%
5	의료용 기기 제조업	7.7%	238%
6	1차 철강 제조업(2001~2022)	6.4%	1206%
7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8%	867%
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7%	630%
9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3.1%	211%
1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6%	161%
	10대 업종 가중 평균		199%

차.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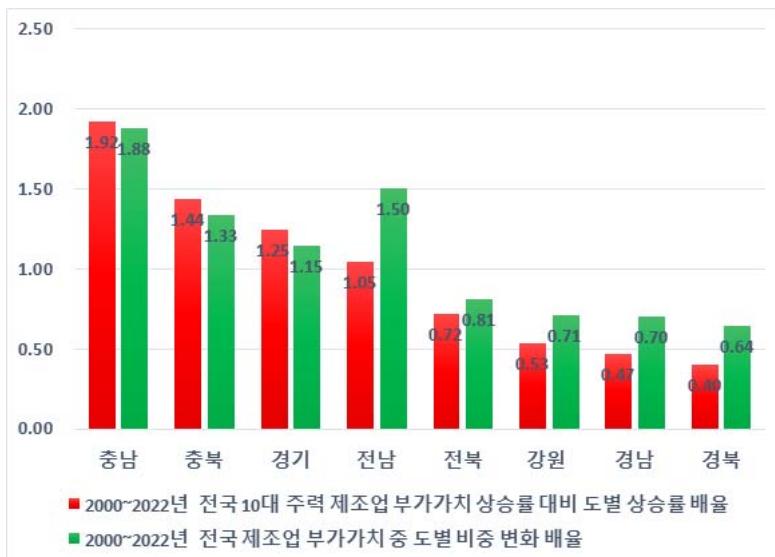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같은 기간의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자가 높은 충남, 충북, 경기, 전남의 경우, 전자는 각각 1.92배, 1.44배, 1.25배, 1.05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각각 1.88배, 1.33배, 1.15배, 1.50배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도들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10]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단위 : %, 배)

도	2000~2022년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도별 [A]	전국 [B]	배율 [A/B]	2000년 [C]	2022년 [D]	배율 [D/C]
충남	718%	374%	1.92	6.6	12.4	1.88
충북	537%	374%	1.44	5.1	6.8	1.33
경기	466%	374%	1.25	29.3	33.6	1.15
전남	392%	374%	1.05	4.2	6.3	1.50
전북	270%	374%	0.72	2.7	2.2	0.81
강원	199%	374%	0.53	1.4	1.0	0.71
경남	175%	374%	0.47	9.1	6.4	0.70
경북	151%	374%	0.40	10.7	6.9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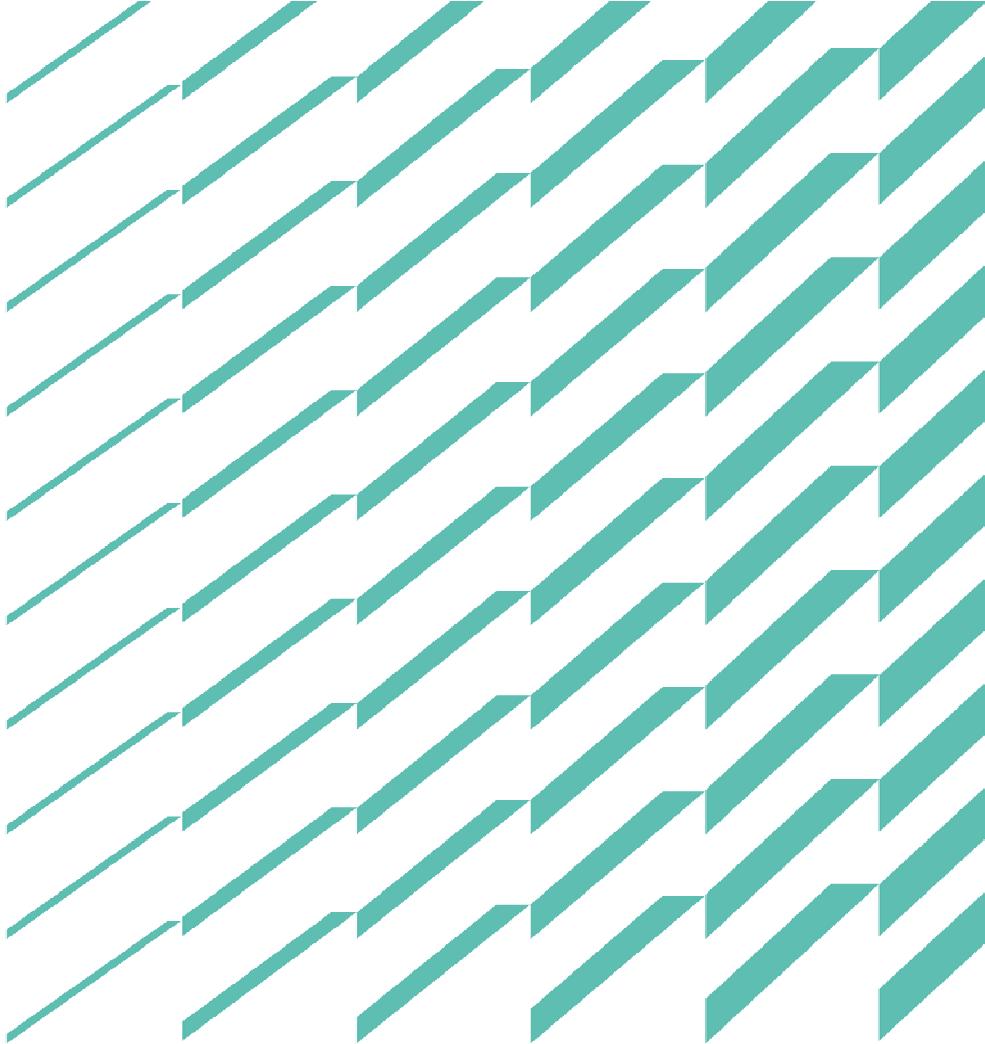


[그림 2-12] 2000~2022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 비교

또 같은 방식으로 22년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같은 기간의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

가 낮은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의 경우, 전자는 각각 0.40배, 0.47배, 0.53배, 0.72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각각 0.64배, 0.70배, 0.71배, 0.81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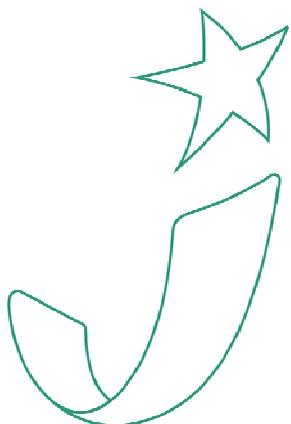
이것은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도들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성장률이 낮은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

부가가치 창출 기반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1. 신성장 제조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
2. 장기·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제3장 부가가치 창출 기반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1. 신성장 제조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

가. 신성장 제조업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나. 부가가치 비중과 증가율 동시 평가의 필요성

부가가치 증가율이 동일한 두 산업, A와 B가 있다고 할 때, 특정 국가의 경제에서 A의 부가가치 비중이 B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더 크게 이 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간 비교 분석에서 부가가치 비중은 중요한 분석 자료이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 단계의 농업처럼 부가가치 비중의 절대치는 크지만 그 비중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농업을 신성장 산업이라 정의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부가가치 비중이 동일한 두 산업, C와 D가 있다고 할 때, 특정 국가의 경제에서 C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D보다 크다면, C는 D보다 더 크게 이 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을 꾸준히 높여 온 산업과 달리,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산업이 일시적인 경기변동, 천재지변, 수급 불안정 등으로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이 산업을 신성장 산업이라 지칭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 비중 및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고 각종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장기·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가. 추출 대상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총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조업은 대분류 1개, 중분류 25개, 소분류 85개, 세분류 183개, 세세분류 477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제조업 소분류 80개를 추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나. 추출 방법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고, 전국 제조업 80개 소분류 업종 중 신성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추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80개 업종 중 2022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81점을 부여하고, 2위 업종에 80점, 3위 업종에 79점,..., 80위 업종에 1점을 부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80개 업종 중 2012년~2022년 부가가치 상승률이 가장 큰 업종에 81점을 부여하고, 2위 업종에 80점, 3위 업종에 79점,..., 80위 업종에 1점을 부여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업종별로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10대 업종을 신성장 제조업이라 지칭하고 최종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표 3-1] 장기, 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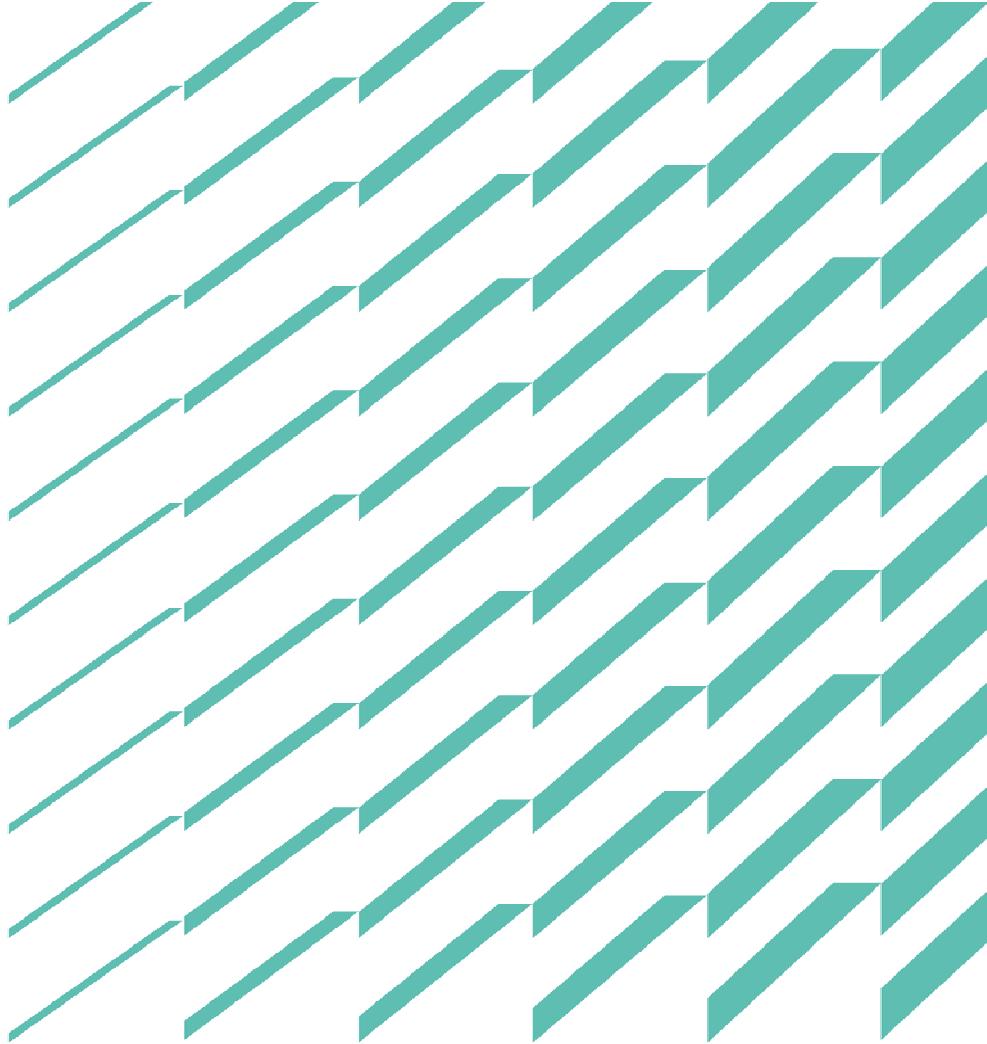
순위	업종	부가가치 비중 [A]	A에점수 [B]	부가가치 상승률 [C]	C 점수 [D]	합산점수 [C+D]
1	반도체 제조업	17.54%	81	213%	78	159

순위	업종	부가가치 비중 [A]	A에점수 [B]	부가가치 상승률 [C]	C 점수 [D]	합산점수 [C+D]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7.65%	80	148%	74	154
3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75%	69	491%	81	150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34%	73	119%	70	143
5	의약품 제조업	2.15%	67	128%	72	139
6	기타 식품 제조업	2.48%	68	115%	69	137
7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13%	75	73%	59	134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0.55%	52	366%	80	132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1.15%	59	136%	73	132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0.89%	55	151%	75	130
이상이 '10대 신성장 제조업종'						
1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27%	72	59%	55	127
12	가정용 기기 제조업	0.90%	56	84%	65	121
13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39%	63	62%	57	120
1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76%	54	91%	66	120
15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00%	66	56%	52	118
16	1차 철강 제조업	4.44%	76	44%	41	117
17	가구 제조업	0.52%	49	104%	67	116
18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29%	61	57%	54	115
19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4.79%	77	33%	37	114
2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47%	74	32%	36	110
2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4.84%	78	24%	31	109
22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0.43%	44	79%	63	107
23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0.31%	35	126%	71	106
24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41%	43	79%	62	105
25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77%	70	27%	34	104

순위	업종	부가가치 비중 [A]	A에점수 [B]	부가가치 상승률 [C]	C 점수 [D]	합산점수 [C+D]
26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0.38%	42	76%	61	103
27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7%	23	173%	77	100
28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0.51%	48	53%	48	96
29	전자 부품 제조업	4.88%	79	-17%	15	94
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24%	29	82%	64	93
3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0.11%	17	155%	76	93
3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61%	65	19%	27	92
3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0.38%	41	56%	50	91
34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80%	71	1%	19	90
35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31%	34	60%	56	90
36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0.17%	22	114%	68	90
37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0.44%	46	49%	43	89
38	알코올 음료 제조업	0.52%	50	34%	39	89
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0.33%	37	56%	51	88
40	봉제의복 제조업	1.20%	60	20%	28	88
41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0.02%	6	222%	79	85
42	고무제품 제조업	0.91%	57	14%	24	81
4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0.54%	51	22%	30	81
44	나무제품 제조업	0.25%	30	56%	49	79
4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0.51%	47	25%	32	79
46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0.37%	39	35%	40	79
47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0.37%	40	34%	38	78
48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0.27%	33	49%	44	77
49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36%	62	-17%	14	76

순위	업종	부가가치 비중 [A]	A에점수 [B]	부가가치 상승률 [C]	C 점수 [D]	합산점수 [C+D]
5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0.09%	16	74%	60	76
51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0.44%	45	21%	29	74
52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0.20%	26	52%	47	73
53	철도장비 제조업	0.23%	28	50%	45	73
5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0.08%	14	72%	58	72
5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0.32%	36	31%	35	71
56	담배 제조업	0.35%	38	25%	33	71
57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57%	64	-62%	4	68
58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0.16%	21	50%	46	67
5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0.06%	12	57%	53	65
6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58%	53	-21%	12	65
6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13%	58	-56%	6	64
62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0.26%	31	5%	20	51
63	금속 주조업	0.27%	32	-8%	18	50
64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0.18%	25	17%	25	50
65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0.17%	24	11%	23	47
66	악기 제조업	0.01%	4	46%	42	46
67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0.22%	27	-19%	13	40
68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0.14%	18	8%	22	40
6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0.03%	7	17%	26	33
7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0.09%	15	-11%	16	31
71	화학섬유 제조업	0.15%	19	-26%	10	29
72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0.05%	11	-10%	17	28
73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0.16%	20	-56%	5	25
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0.01%	2	8%	21	23
75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0.08%	13	-38%	8	21
76	편조 원단 제조업	0.03%	9	-26%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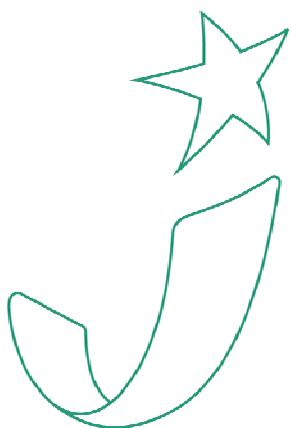
순위	업종	부가가치 비중 [A]	A에점수 [B]	부가가치 상승률 [C]	C 점수 [D]	합산점수 [C+D]
77	편의점 제조업	0.03%	8	-51%	7	15
78	모피제품 제조업	0.01%	3	-23%	11	14
7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0.04%	10	-63%	3	13
8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0.02%	5	-1083%	1	6



제4장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및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

1. 반도체 제조업
2. 반도체 제조업 기계 제조업
3. 이차전지 제조업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5. 의약품 제조업
6. 기타 식품 제조업
7.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9. 측정, 시험, 항해, 제작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제 4 장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및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

1. 반도체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 제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소분류상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된다.

반도체 제조업을 세분류로 더 구분하면 전자집적회로 제조업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등 2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는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4개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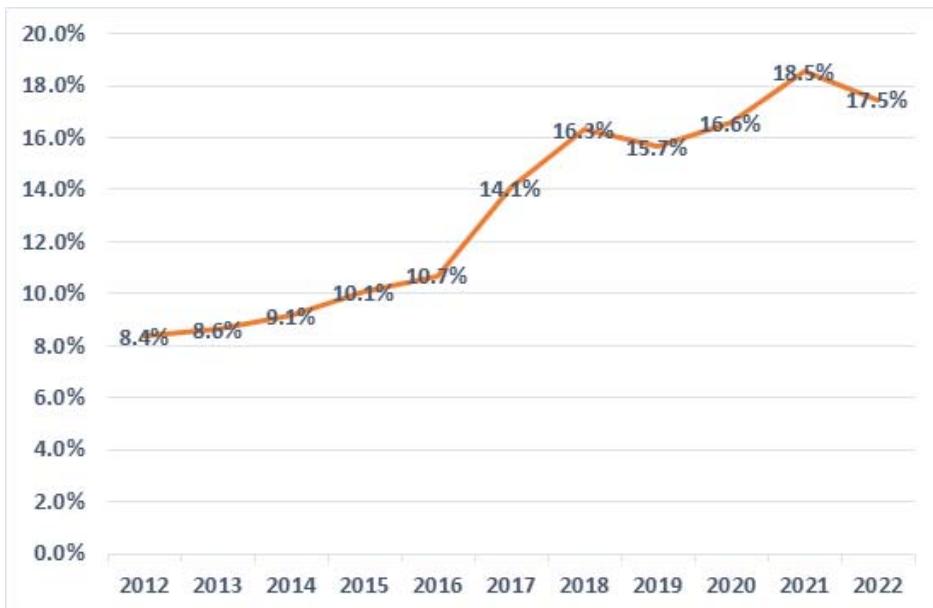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 제조업 관련 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소분류	반도체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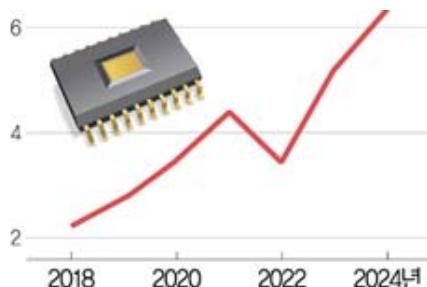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반도체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반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서 17.5%로 2.08배 상승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 반도체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1]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반도체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주 : 연말 기준, 2024년은 3월 5일 기준

원자료 : 일본 쿼팩트세트

재인용 : 서울경제신문, 2024년 3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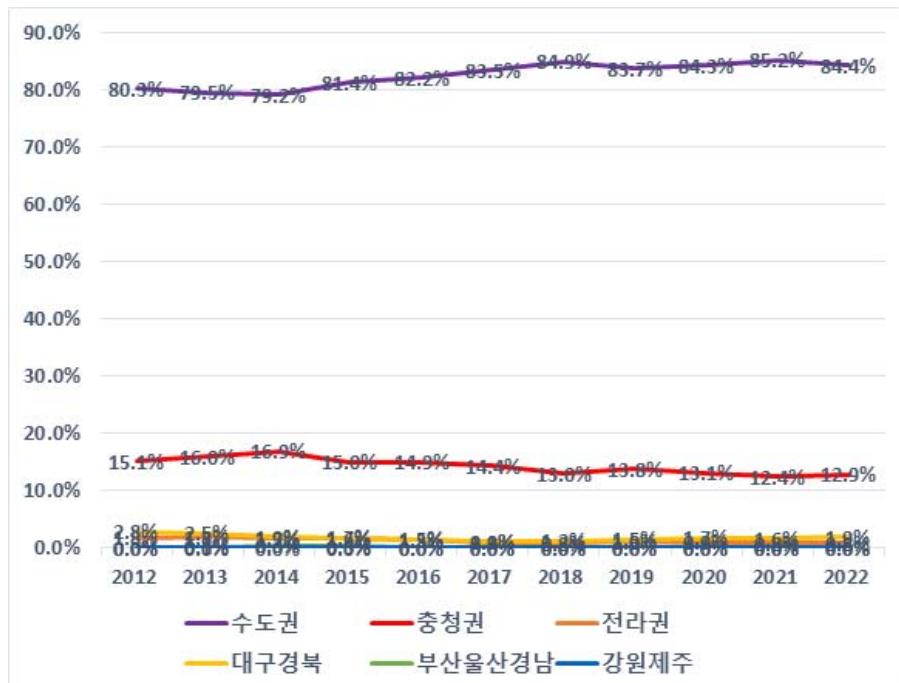
[그림 4-2]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중 반도체 기업 비중 (단위 :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산업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국내외 산업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최근 10년간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한국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84.4%, 충청권이 12.9%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97.3%에 달한다. 이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 수도권 편중 현상은 고급인재들의 수도권 거주 선호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급인재들의 거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녀 교육'인데 서울 강남지역이 자녀교육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이 산업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서울 강남지역이 유리한 교육환경이 단시일 내에 변화할 가능성에 낮기 때문에 수도권에 유리한 반도체 제조업 입지 환경 변화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4-3] 그림 31 최근 10년간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표 4-2] 최근 10년간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80.3	79.5	79.2	81.4	82.2	83.5	84.9	83.7	84.3	85.2	84.4
충청권	15.1	16.0	16.9	15.0	14.9	14.4	13.0	13.8	13.1	12.4	12.9
전라권	1.8	1.8	1.7	1.6	1.3	0.9	0.8	1.0	0.9	0.8	0.8
대구경북	2.8	2.5	1.9	1.7	1.5	1.1	1.2	1.5	1.7	1.6	1.9
부산울산 경남	0.0	0.1	0.3	0.3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이러한 산업 입지 측면에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제조업체의 입지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개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주요 조성계획	K 반도체 벨트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중 일부 내용
조성지역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면적	126만평	215만평
중심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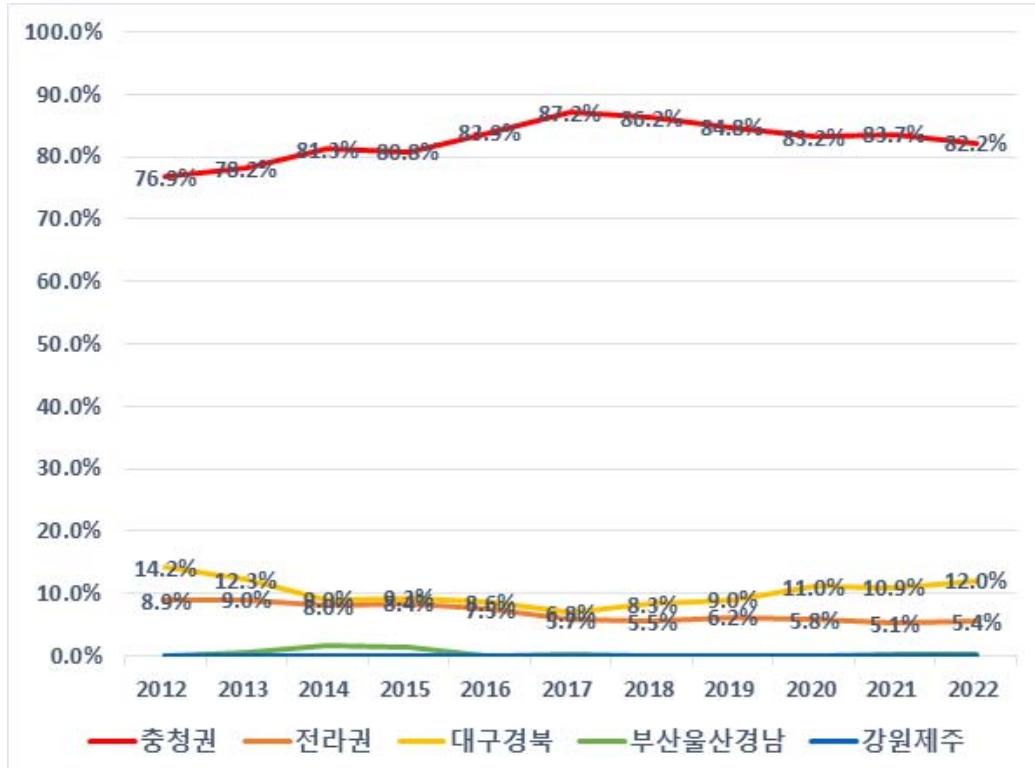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충청권이 82.2%, 대구경북권이 12.0%. 전라권이 5.4%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비중 변화를 보면 충청권은 76.9%p에서 82.2%p로 6.9%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권은 14.2%p에서 12.0%p로 15% 하락했고, 전라권은 8.9%p에서 5.4%p로 40% 가까이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전라권 비중의 큰 폭 하락은 4차산업혁명에서 그만큼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충청권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전라권이 충청권과의 자리

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상당한 진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4]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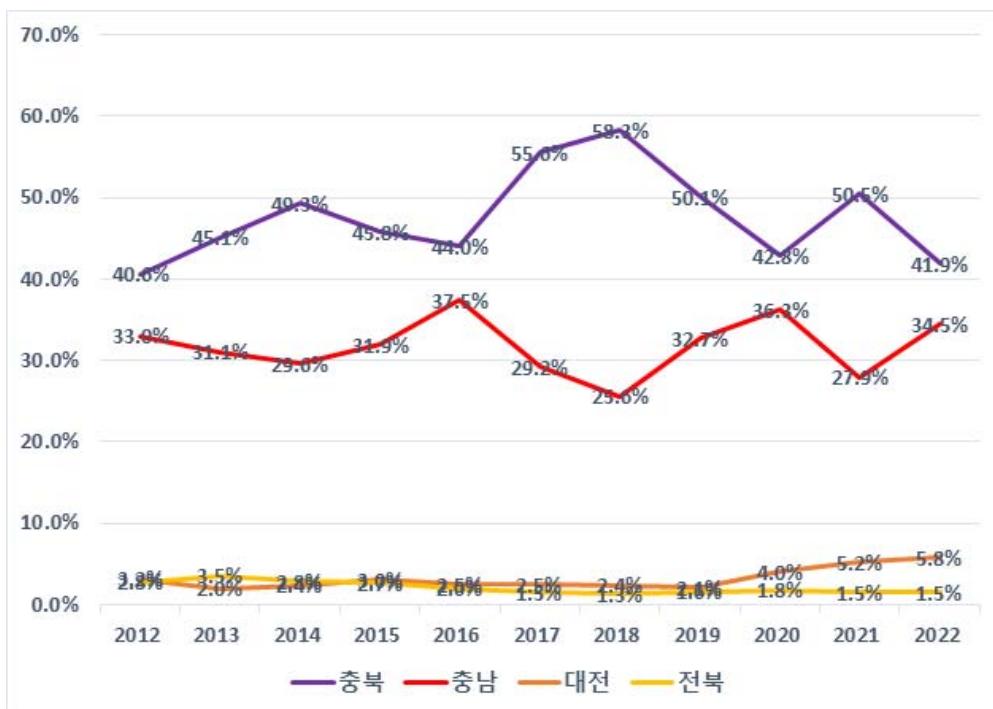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충청권+전북)

2022년 기준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시도별 비중을 보면 충북과 충남이 각각 41.9%, 34.5%, 전북과 광주전남이 각각 1.5%, 3.9%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비중 변화를 보면 전북은 2.8%p에서 1.5%p로 46% 하락했고, 광주전남은 6.1%p에서 3.9%p로 36% 하락하였는데, 최근 10년간 전북과 광주전남 모두 그 비중이 하락했으나 전북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북이 충청권과 더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의 낙폭이 더 크다는 것은 상당한 적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전북의 큰 낙폭은 2015년 이후 반도체 산업과의 관련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 대기업들이 전북에서 이탈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과의 관련성이 큰 자동차 산업 등의 대기업 유치정책이 성공할 경우 반도체 산업도 활성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림 4-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표 4-4]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40.6	45.1	49.3	45.8	44.0	55.6	58.3	50.1	42.8	50.5	41.9
충남	33.0	31.1	29.6	31.9	37.5	29.2	25.6	32.7	36.3	27.9	34.5
대전	3.2	2.0	2.4	3.0	2.5	2.5	2.4	2.1	4.0	5.2	5.8
전북	2.8	3.5	2.8	2.7	2.0	1.5	1.3	1.6	1.8	1.5	1.5
광주전남	6.1	5.5	5.2	5.7	5.5	4.2	4.2	4.6	4.0	3.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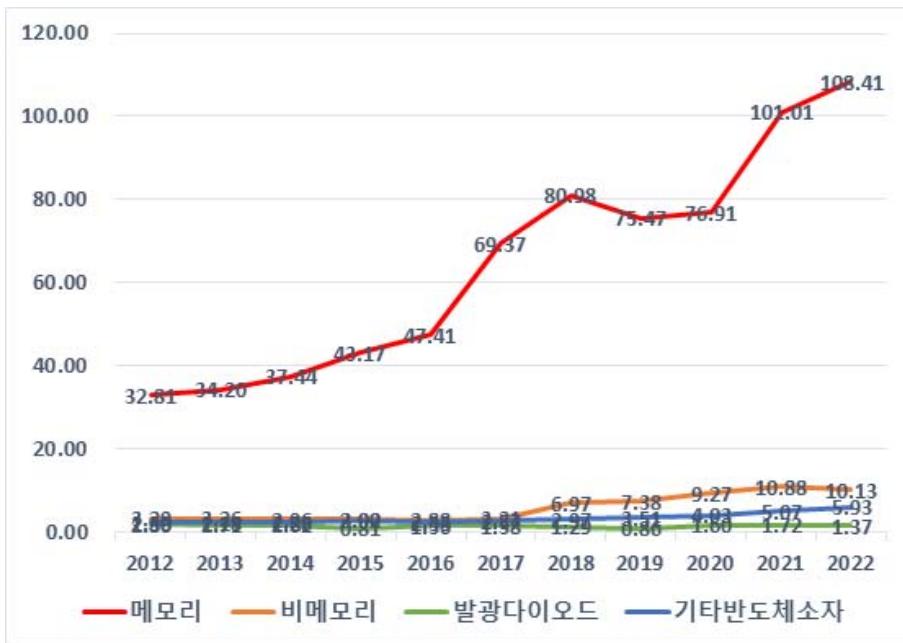
■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면, 메모리용 반도체, 비메모리용 반도체,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각각 86.2%, 8.1%, 4.7%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과 2022년 사이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비중 변화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2012년과 2017년 사이 81.6%에서 90.7%로 9.1%p 상승했다가 2018년 이후 둔화하여 2022년에는 86.2%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비메모리 반도체는 2012년과 2017년 사이 8.2%에서 4.2%로 크게 하락했다가 2018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8.1%로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 분야별 비중에서 큰 진폭이 나타난 것은 이 시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큰 폭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외의 3대 분야를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활기를 띠면서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발광다이오드 분야는 부가가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기타 반도체 소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만큼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않지만 반도체 시장 확대의 수혜를 어느 정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데이터들은 2022년까지의 것이므로 2023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림 4-6]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표 4-5]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메모리	32.81	34.20	37.44	43.17	47.41	69.37	80.98	75.47	76.91	101.01	108.41
비메모리	3.29	3.26	2.96	3.02	2.88	3.21	6.97	7.38	9.27	10.88	10.13
발광다이오드	1.80	1.71	1.62	0.81	1.36	1.38	1.29	0.86	1.60	1.72	1.37
기타반도체소자	2.30	2.18	2.28	2.90	2.33	2.57	2.97	3.51	4.03	5.07	5.93
합 계	40.20	41.36	44.30	49.89	53.99	76.53	92.21	87.23	91.82	118.68	12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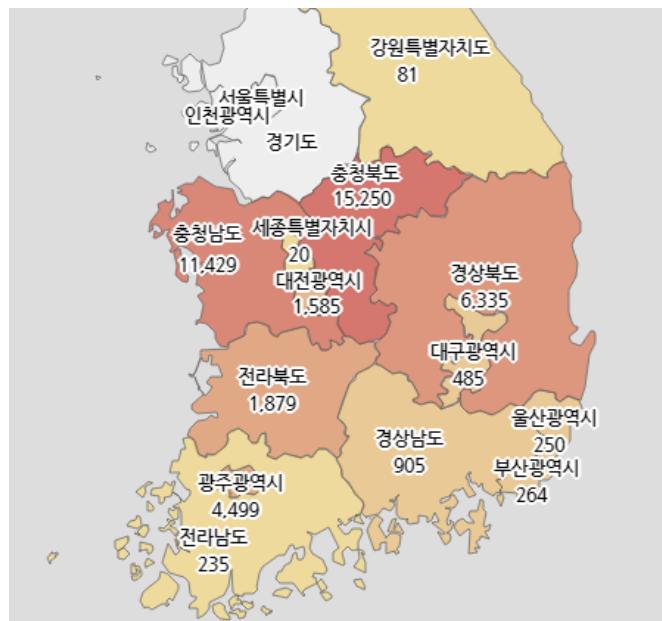
[표 4-6]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메모리	81.63	82.70	84.51	86.52	87.81	90.65	87.82	86.53	83.76	85.11	86.15
비메모리	8.17	7.88	6.69	6.05	5.34	4.19	7.56	8.46	10.10	9.16	8.05
발광다이오드	4.48	4.14	3.66	1.62	2.52	1.81	1.40	0.99	1.75	1.45	1.09
기타반도체소자	5.72	5.28	5.14	5.81	4.32	3.36	3.22	4.03	4.39	4.27	4.71

다.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과 충남은 각각 1만 5,120명, 1만 1,429명이고, 전북과 광주전남은 각각 1,879명, 4,734명(광주 4,499명, 전남 235명)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에 비해서는 많지만 수도권, 충청권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유사한 경북이 6,335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업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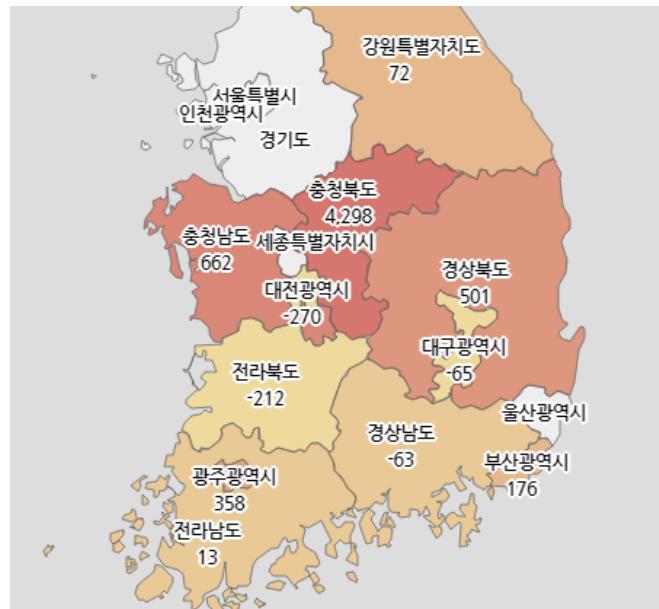
[그림 4-7]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2~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충북과 충남은 각각 4,298명, 662명 증가한 반면, 전북은 212명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436명, 371명 증가할 때 전북이 이와 같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반도체 산업과의 관련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 관련

대기업들이 전북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림 4-8] 2012~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7] 2012~2022년 시도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2	2017	2022	10년간 증가분	10년간 증가율
전 국	109,511	122,617	160,437	50,926	46.5%
서 울	4,112	1,674	2,025	-2,087	-50.8%
부 산	88	63	264	176	200.0%
대 구	550	689	485	-65	-11.8%
인 천	1,878	5,549	9,696	7,818	416.3%
광 주	4,141	4,411	4,499	358	8.6%
대 전	1,855	1,376	1,585	-270	-14.6%
울 산	X	X	250		
세 종	X	X	20		
경 기	65,893	78,238	105,393	39,500	59.9%
강 원	9	20	81	72	800.0%
충 북	10,952	12,505	15,250	4,298	39.2%
충 남	10,767	9,388	11,429	662	6.1%
전 북	2,091	2,287	1,879	-212	-10.1%
전 남	222	313	235	13	5.9%
경 북	5,834	5,291	6,335	501	8.6%
경 남	968	531	905	-63	-6.5%
제 주	-	X	106		

■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면, 메모리용 반도체, 비메모리용 반도체,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각각 57.8%, 21.7%, 18.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과 2022년 사이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비중 변화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2012년과 2017년 사이 53.6%에서 58.7%로 5.1%p 상승했다가 2018년 이후 둔화하여 2022년에는 57.8%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비메모리 반도체는 2012년과 2017년 사이 23.7%에서 18.1%로 하락했다가 2018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21.7%로

회복하였으며, 이 기간 기타 반도체소자는 16.1%에서 18.0%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분야 종사자 증가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진행 되었는지 아니면 영세화와 동시에 진행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4-8]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만 명)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메모리	5.79	6.21	6.20	7.60	6.62	6.97	6.51	6.96	7.34	7.96	8.48
비메모리	2.56	2.40	2.49	2.07	2.12	2.15	3.30	3.33	3.33	3.23	3.18
발광다이오드	0.70	0.75	0.76	0.44	0.68	0.71	0.62	0.58	0.43	0.45	0.37
기타반도체소자	1.74	1.86	1.94	2.33	2.00	2.05	2.10	2.08	2.46	2.58	2.63
합 계	10.79	11.21	11.39	12.44	11.41	11.88	12.53	12.94	13.57	14.23	14.66

[표 4-9]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메모리	53.6	55.4	54.4	61.1	58.0	58.7	52.0	53.8	54.1	56.0	57.8
비메모리	23.7	21.4	21.9	16.6	18.5	18.1	26.3	25.8	24.5	22.7	21.7
발광다이오드	6.5	6.7	6.7	3.5	5.9	6.0	5.0	4.4	3.2	3.2	2.5
기타반도체소자	16.1	16.6	17.1	18.7	17.5	17.3	16.7	16.0	18.2	18.1	18.0

라.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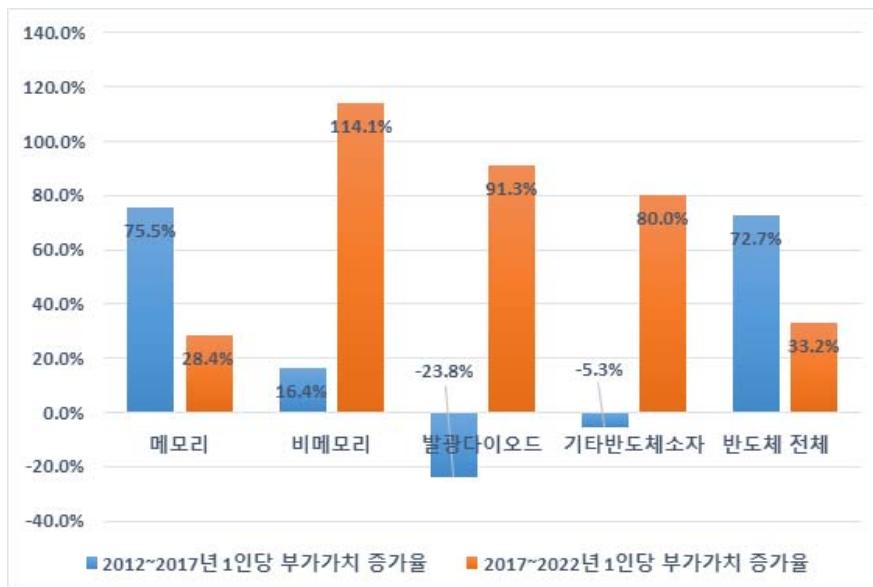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면, 메모리용 반도체, 비메모리용 반도체,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각각 12.78억원, 3.19억원, 2.25억원이다.

2012년과 2017년 사이 분야별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메모리용 반도체, 비메모리용 반도체는 각각 75.5%, 16.4% 상승한 반면, 기타 반도체소자는 5.3% 하락하였고, 2017년과 2022년 사이 분야별 증가율도 살펴 보면, 메모리용 반도체, 비메모리용 반도체, 기타 반도체소자가 각각 28.4%, 114.1%, 80.0% 상승하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메모리 분야 종사자 수와 1인당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타 반도체소자의 경우에도 비메모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와 1인당 부가가치
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다.

[표 4-10] 2012~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메모리	5.67	5.51	6.04	5.68	7.17	9.95	12.43	10.85	10.47	12.68	12.78
비메모리	1.28	1.36	1.19	1.46	1.36	1.49	2.11	2.21	2.78	3.37	3.19
발광다이오드	2.56	2.30	2.13	1.85	2.00	1.95	2.07	1.50	3.70	3.80	3.73
기타반도체소자	1.32	1.18	1.17	1.25	1.17	1.25	1.41	1.69	1.64	1.97	2.25
반도체 전체	3.73	3.69	3.89	4.01	4.73	6.44	7.36	6.74	6.77	8.34	8.58



[그림 4-9]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단위 : %)

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의 산업 분류상 특수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상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상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상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소분류 85개 업종 중 10개를 신성장 제조업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10대 소분류 신성장 제조업에 포함 시킨 것은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연구를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4-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세세분류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통계청은 매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제조업 세세분류상 업종 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할 때 전국 통계만 발표할 뿐 시도별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 등의 시도별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제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수 시도별 분석을 시행할 때, 2016년 이후 통계 자료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2016~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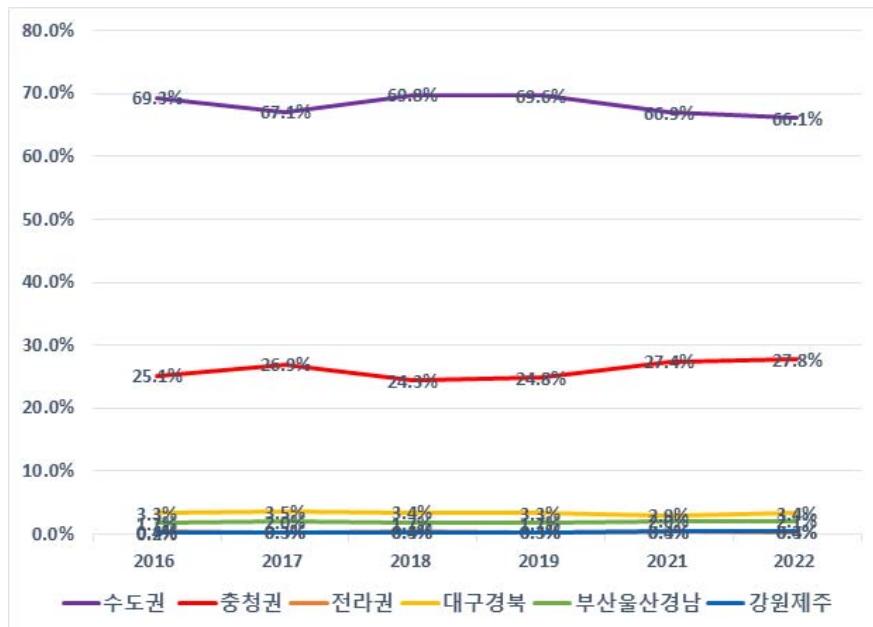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전국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 가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와 후자는 각각 133%, 132%로 유사한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을 살펴 보면, 8.2% 내외에서 등락하였다.

[표 4-12] 2016~2022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억원)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A]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B]	[B/A]
2016	539,852	44,520	8.2%
2017	765,330	68,080	8.9%
2018	922,077	76,774	8.3%
2019	872,255	64,384	7.4%
2020	918,171	68,260	7.4%
2021	1,186,843	91,980	7.7%
2022	1,258,439	103,154	8.2%
6년간 증가분	718,587	58,634	
6년간 증가율	133%	132%	

다. 최근 6년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권역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69.3%에서 66.1%로 3.2%p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25.1%에서 27.8%로 2.7%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라권은 0.3~0.4% 내외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권과 부울경권도 각각 3.3~3.5%와 1.7~2.1%로 유사한 답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최근 6년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표 4-13] 최근 6년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수도권	69.3%	67.1%	69.8%	69.6%	66.9%	66.1%
충청권	25.1%	26.9%	24.3%	24.8%	27.4%	27.8%
전라권	0.4%	0.3%	0.4%	0.3%	0.4%	0.3%
대구경북	3.3%	3.5%	3.4%	3.3%	2.9%	3.4%
부산울산경남	1.7%	2.0%	1.7%	1.7%	2.0%	2.1%
강원제주	0.2%	0.3%	0.3%	0.3%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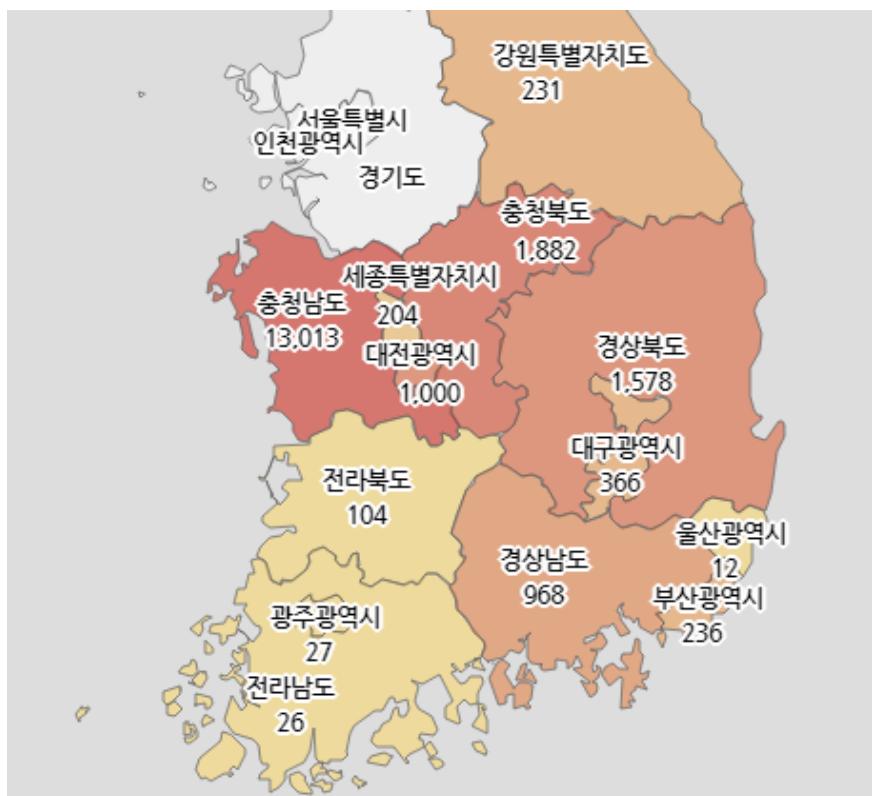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남이 1만 3,013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충북, 경북, 대전, 경남이 각각 1,882명, 1,578

명, 1,000명, 968명으로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전북, 광주, 전남은 각각 104명, 27명, 26명으로 취하위 그룹에 위치해 있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는 충북, 충남 종사자가 각각 1만 5,250명, 1만 1,429명일 때 전북, 광주, 전남은 각각 1,879명, 4,499명, 235명으로 추격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의 경우는 충북, 충남 종사자가 각각 1,882명, 1만 3,013명일 때 전북, 광주, 전남이 각각 104명, 27명, 26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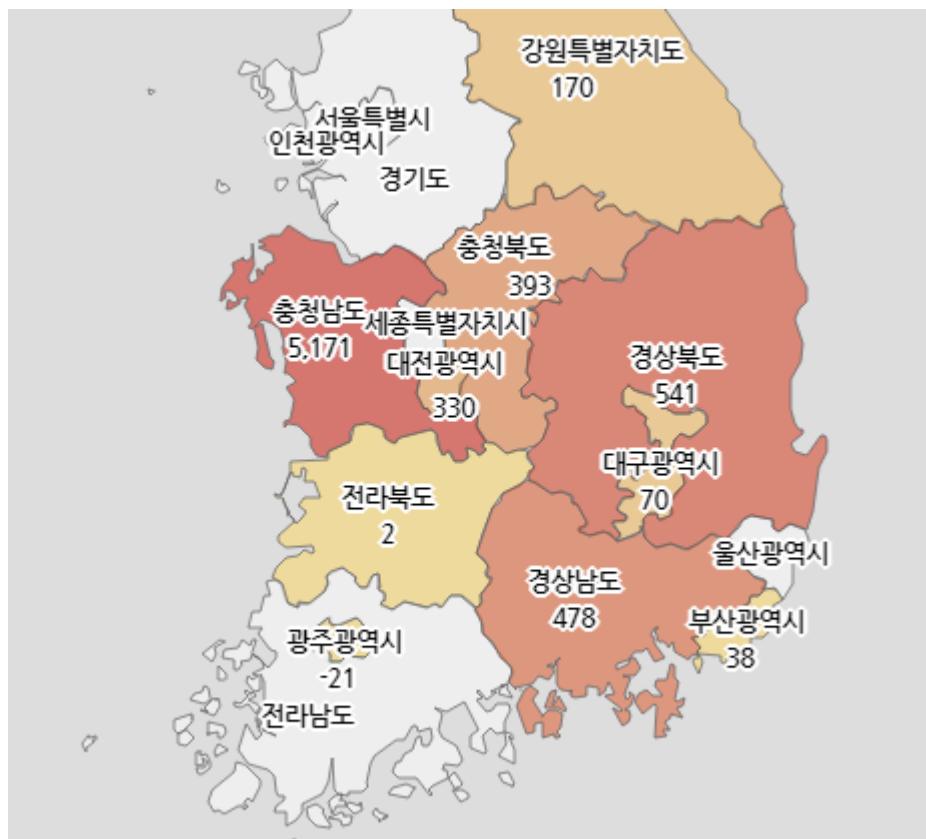
따라서 전북은 4차산업 혁명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림 4-11]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충북, 충남, 대전이 각각 5,171명, 393명, 330명 증가할 때, 전북, 광주, 전남은 의미있는 증가분을 시현하지 못한 반면, 같은 시기 경북, 경남, 대구는 각각 541명, 478명, 70명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4-12]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14] 2016~2022년 시도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39,847	57,939	18,092	45.4%
서울	550	942	392	71.3%
부산	198	236	38	19.2%
대구	296	366	70	23.6%
인천	3,207	2,863	-344	-10.7%
광주	48	27	-21	-43.8%
대전	670	1,000	330	49.3%
울산	-	12	-	-
세종	-	204	-	-
경기	23,838	34,487	10,649	44.7%
강원	61	231	170	278.7%
충북	1,489	1,882	393	26.4%
충남	7,842	13,013	5,171	65.9%
전북	102	104	2	2.0%
전남	X	26	-	-
경북	1,037	1,578	541	52.2%
경남	490	968	478	97.6%
제주	-	-	-	-

3. 이차전지 제조업

가. 이차전지 제조업의 산업 분류상 특수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차전지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상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세분류상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세세분류상 축전지 제조업에 해당된다.

[표 4-1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이차전지 제조업 관련 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전기장비 제조업
소분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세분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세세분류	축전지 제조업(이차전지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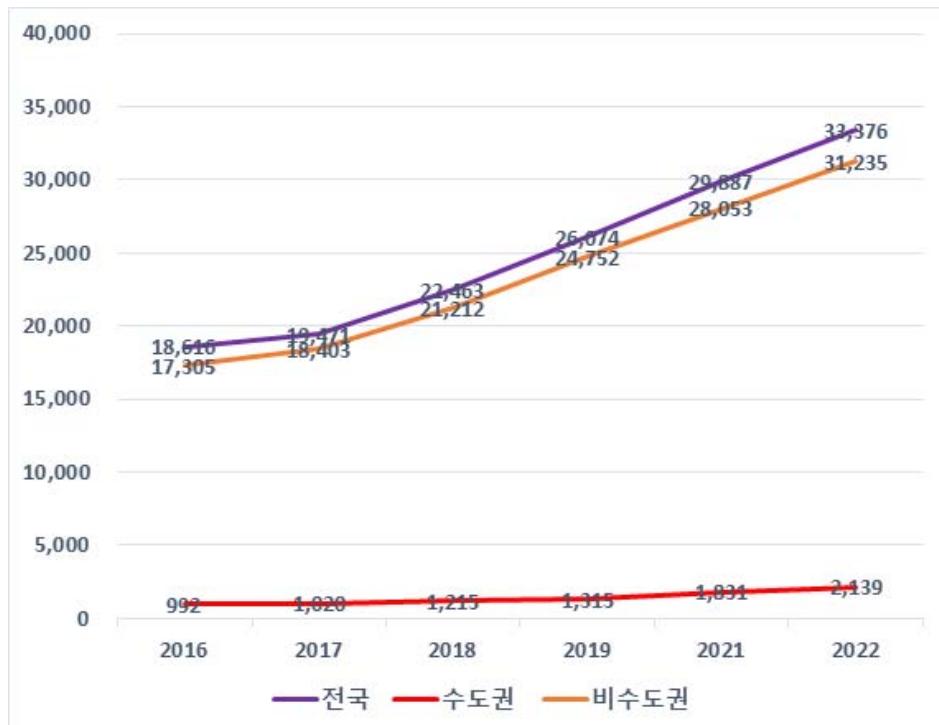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상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중 축전지 제조업 지표를 이차전지 제조업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제조업 소분류 85개 업종 중 10개를 신성장 제조업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이차전지 제조업을 10대 소분류 신성장 제조업에 포함시킨 것은 소분류상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중 일차전지 제조업 지표 수치들이 미미하고 또 전기차 산업의 부상으로 이차전지 제조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이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매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제조업 세세분류상 업종 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할 때 전국 통계만 발표할 뿐 시도별 통계는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제조업 부가가치 등의 시도별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제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수 시도별 분석을 시행할 때, 2016년 이후 통계 자료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2016~2022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변화 추이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변화 추이

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992명에서 2,139명으로 116%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만 7,305명에서 3만 1,235명으로 80%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을 보면 수도권 비중은 6.4%에 불과, 비수도권은 93.6%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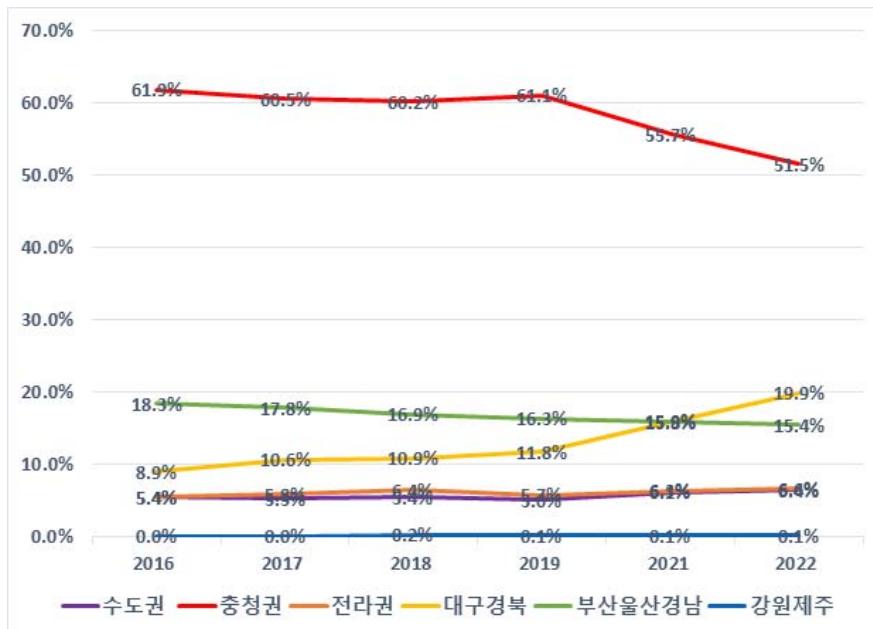


[그림 4-13] 2016~2022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다. 최근 6년간 이차전지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권역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비중 1위인 충청권은 61.9%에서 51.5%로 10.4%p 감소한 반면, 2위인 대구경북권은 8.9%에서 19.9%로 11.0%p 증가하여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3위인 부울경권은 18.3%에서 15.4%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 뒤로 4위인 전라권은 5.4%에서 6.6%로 소폭 상승, 5위인 수도권도 5.4%에서 6.4%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4-14] 그최근 6년간 이차전지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표 4-16] 최근 6년간 이차전지 제조업 권역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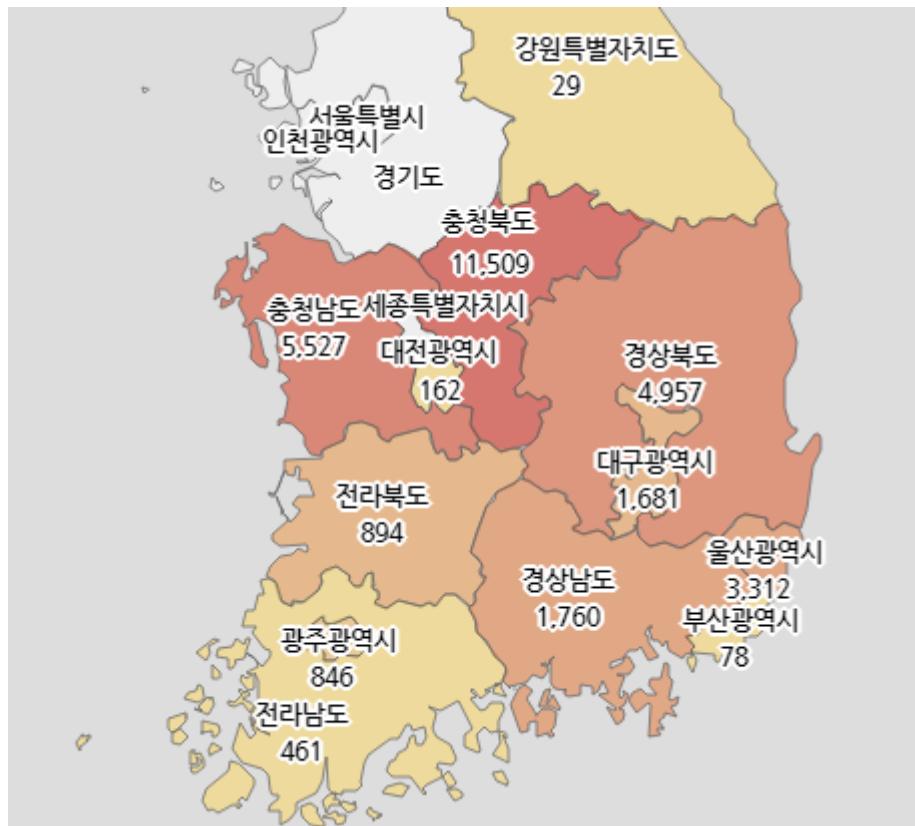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수도권	5.4%	5.3%	5.4%	5.0%	6.1%	6.4%
충청권	61.9%	60.5%	60.2%	61.1%	55.7%	51.5%
전라권	5.4%	5.8%	6.4%	5.7%	6.3%	6.6%
대구경북	8.9%	10.6%	10.9%	11.8%	15.8%	19.9%
부산울산경남	18.3%	17.8%	16.9%	16.3%	15.9%	15.4%
강원제주	0.0%	0.0%	0.2%	0.1%	0.1%	0.1%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충남, 경북, 울산이 각각 1만 1,509명, 5,527명, 4,957명, 3,312명으로 상위 그룹 형성하고 있으며,

대구, 경남은 각각 1,681명, 1,760명으로 중위 그룹이며, 전북, 광주, 전남은 각각 894명, 846명, 461명으로 중하위 그룹에 속한다.

다만, 전북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 이차전지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차전지 제조업에 관한 한 향후 몇 년 안에 시도별 부가가치 분포 및 종사자 분포에서 큰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5]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표 4-17] 2021년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유치 월별 누적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월별 투자 유치 실적	2021년 이후 누적 투자유치 실적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 이후)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21년11월	1,200	1,200	
2021년12월	1,300	2,500	
2022년1월		2,500	
2022년2월		2,500	
2022년3월	1,900	4,400	
2022년4월	5,125	9,525	
2022년5월		9,525	
2022년6월		9,525	
2022년7월	155	9,680	155
2022년8월		9,680	155
2022년9월	2,165	11,845	2,320
2022년10월		11,845	2,320
2022년11월	12,000	23,845	14,320
2022년12월		23,845	14,320
2023년1월		23,845	14,320
2023년2월		23,845	14,320
2023년3월	17,000	40,845	31,320
2023년4월	12,000	52,845	43,320
2023년5월		52,845	43,320
2023년6월	6,000	58,845	49,320
2023년7월		58,845	49,320
2023년8월	18,400	77,245	67,720
2023년9월		77,245	67,720
2023년10월	12,000	89,245	79,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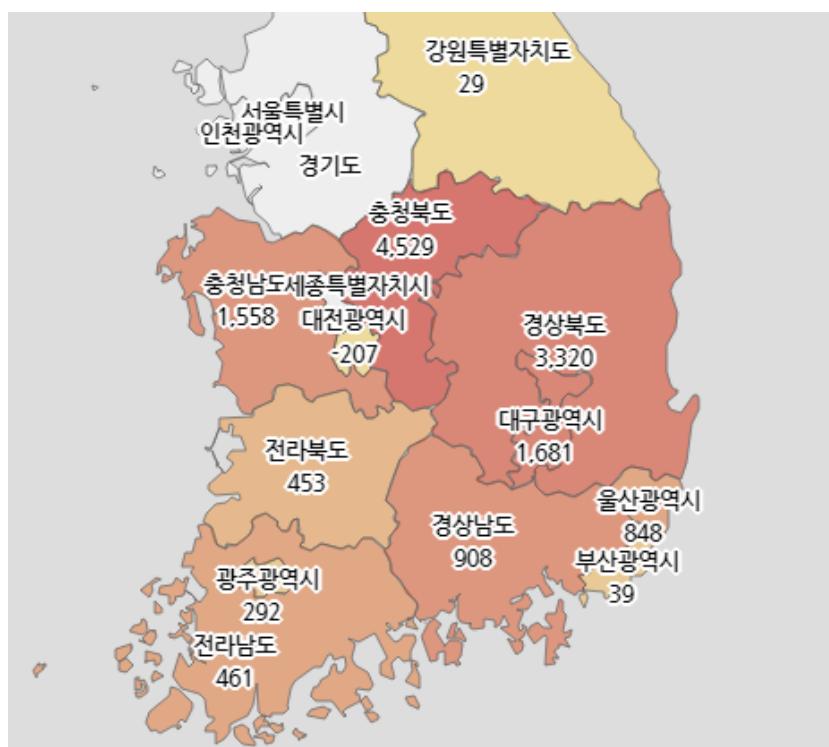
주 : 위 자료는 투자 결정 발표 시점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발표 후 투자 철회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라북도 누적 실적 발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

면, 3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경북으로 각각 3,529명, 3,320명 증가했고,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대구, 충남으로 각각 1,681명, 1,558명 증가했으며. 5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경남, 울산으로 각각 908명, 848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전북, 광주, 전남은 각각 453명, 292명, 461명 증가하여 증가량 측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다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북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 이차전지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시도별 종사자 증가분에서도 큰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6] 2016~2022년 바수도권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18] 2016~2022년 시도별 이차전지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18,616	33,376	14,760	79.3%
서울	74	104	30	40.5%
부산	39	78	39	100.0%
대구	0	1,681	1,681	
인천	63	111	48	76.2%
광주	554	846	292	52.7%
대전	369	162	-207	-56.1%
울산	2,464	3,312	848	34.4%
세종	0	0	0	
경기	855	1,924	1,069	125.0%
강원	0	29	29	
충북	6,980	11,509	4,529	64.9%
충남	3,969	5,527	1,558	39.3%
전북	441	894	453	102.7%
전남	0	461	461	
경북	1,637	4,957	3,320	202.8%
경남	852	1,760	908	106.6%
제주	0	19	19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상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또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은 세분류상으로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화장 품 제조업 등 13개 업종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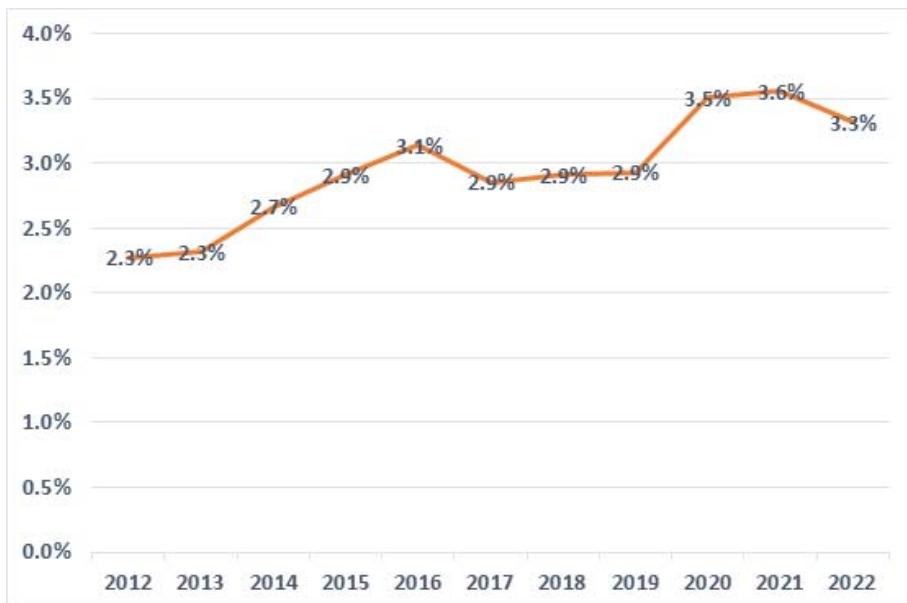
[표 4-1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계면활성제 제조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3.3%로 1.44배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이 기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은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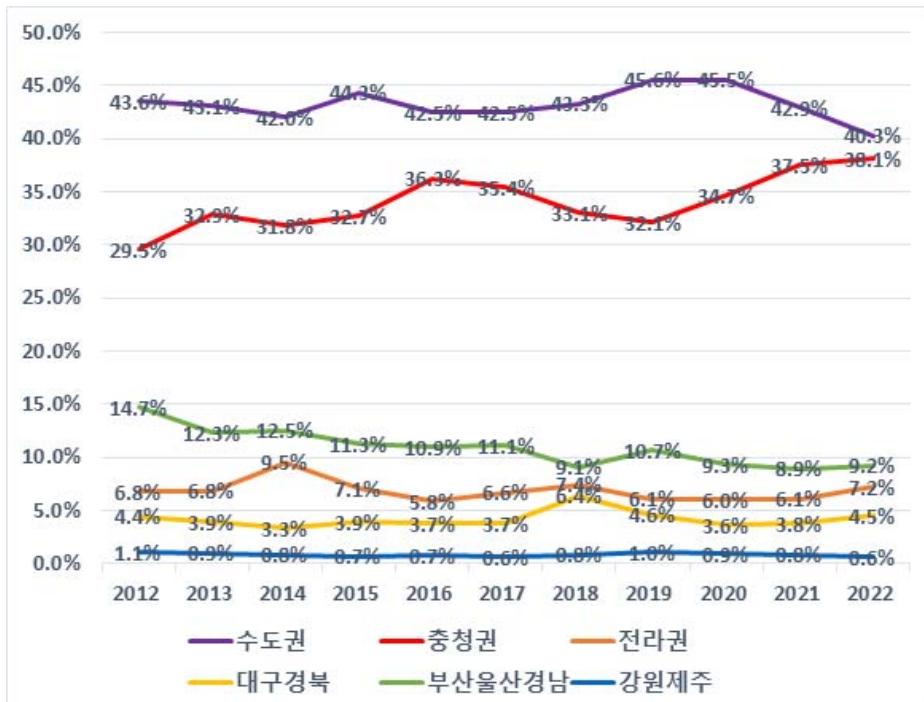
[그림 4-17]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40.3%, 충청권이 38.1%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78.4%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두 권역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는 43.6%에서 40.3%로 3.3% 포인트 감소했고, 후자는 29.5%에서 38.1%로 8.6% 포인트 상승하였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화학제품의 중

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권의 약진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비중 3,4,5위는 부울경권, 전라권, 대구경북권으로 그 비중은 각각 9.2%, 7.2%, 4.5%로 이들 권역의 비중 변화를 보면 부울경권은 14.7%에서 9.2%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라권은 6.8%에서 7.2%로 소폭 상승했으며, 대구경북권은 4.4%에서 4.5%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8] 최근 10년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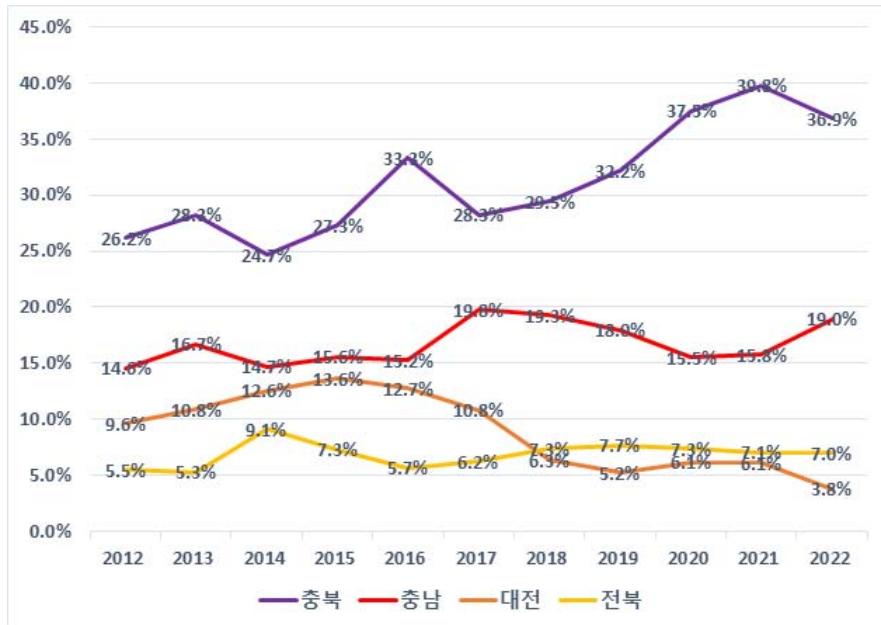
[표 4-20] 최근 10년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단위:%)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43.6	43.1	42.0	44.3	42.5	42.5	43.3	45.6	45.5	42.9	40.3
충청권	29.5	32.9	31.8	32.7	36.3	35.4	33.1	32.1	34.7	37.5	38.1
전라권	6.8	6.8	9.5	7.1	5.8	6.6	7.4	6.1	6.0	6.1	7.2
대구경북	4.4	3.9	3.3	3.9	3.7	3.7	6.4	4.6	3.6	3.8	4.5
부산울산 경남	14.7	12.3	12.5	11.3	10.9	11.1	9.1	10.7	9.3	8.9	9.2
강원제주	1.1	0.9	0.8	0.7	0.7	0.6	0.8	1.0	0.9	0.8	0.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분야에서 수도권, 부울경권 비중이 하락하고 충청권 비중이 상승한 것은 전체 제조업에서 전자가 하락하고 후자가 상승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권이 타 권역에 비해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온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북 비중은 26.2%에서 36.9%로 10.7% 포인트 상승했고, 충남은 14.6%에서 19.0%로 4.4% 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북은 5.5%에서 7.0%로 1.5%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북의 경우 이 기간동안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관한 한 일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인접 권역인 충청권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림 4-19]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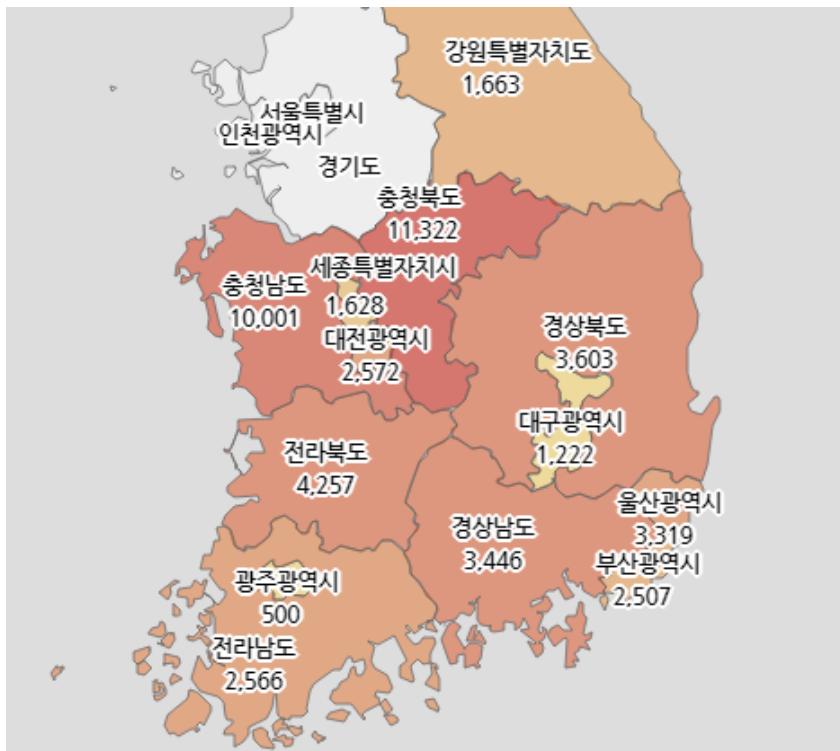
[표 4-21]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26.2	28.3	24.7	27.3	33.3	28.3	29.5	32.2	37.5	39.8	36.9
충남	14.6	16.7	14.7	15.6	15.2	19.8	19.3	18.0	15.5	15.8	19.0
대전	9.6	10.8	12.6	13.6	12.7	10.8	6.3	5.2	6.1	6.1	3.8
전북	5.5	5.3	9.1	7.3	5.7	6.2	7.3	7.7	7.3	7.1	7.0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충남이 각각 1만 1,322명, 1만 1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북, 경북, 경남, 울산이 각각 4,257명, 3,603명, 3,446명, 3,319명으로 중위 그룹에 속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북이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분야에서 비수도권 시도 중 중상위 실적을 시현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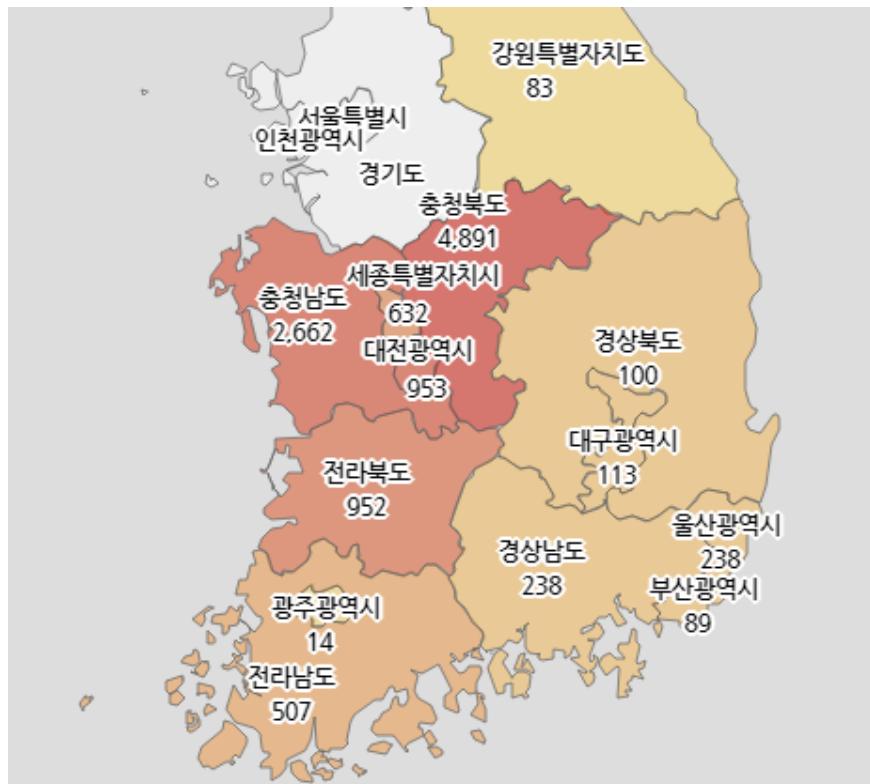
[그림 4-20]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충남으로 각각 4,891명, 2,662명 증가했고, 5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대전, 전북, 세종, 전남이 각각 953명, 952명, 632명, 507명 증가하였다.

전북의 경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에서 비수도권 시도 중 중상위 실적을 시현하기는 하였으나, 암도적인 증가분을 기록한 충북, 충남에 비춰 보면 여전히 미흡

한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그 여파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북이 이 분야 기업 유치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4-21] 그림 49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22] 2016~2022년 시도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76,719	102,616	25,897	33.8%
서울	2,965	7,257	4,292	144.8%
부산	2,418	2,507	89	3.7%
대구	1,109	1,222	113	10.2%
인천	6,459	9,047	2,588	40.1%
광주	486	500	14	2.9%
대전	1,619	2,572	953	58.9%
울산	3,081	3,319	238	7.7%
세종	996	1,628	632	63.5%
경기	29,924	37,333	7,409	24.8%
강원	1,580	1,663	83	5.3%
충북	6,431	11,322	4,891	76.1%
충남	7,339	10,001	2,662	36.3%
전북	3,305	4,257	952	28.8%
전남	2,059	2,566	507	24.6%
경북	3,503	3,603	100	2.9%
경남	3,208	3,446	238	7.4%
제주	237	373	136	57.4%

5. 의약품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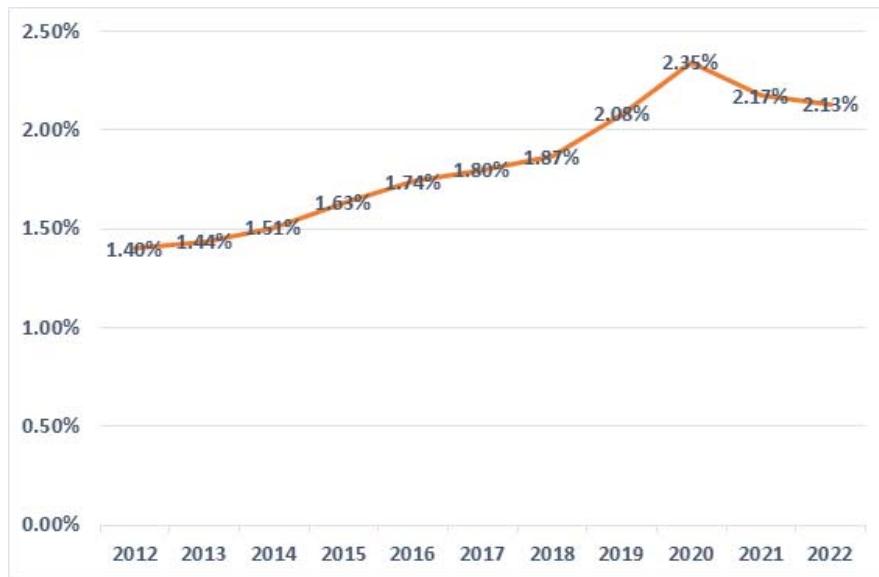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상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되며, 또 의약품 제조업은 세분류상으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포함한다.

[표 4-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	의약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완제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약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약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에서 2.13%로 1.52배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이 기간 의약품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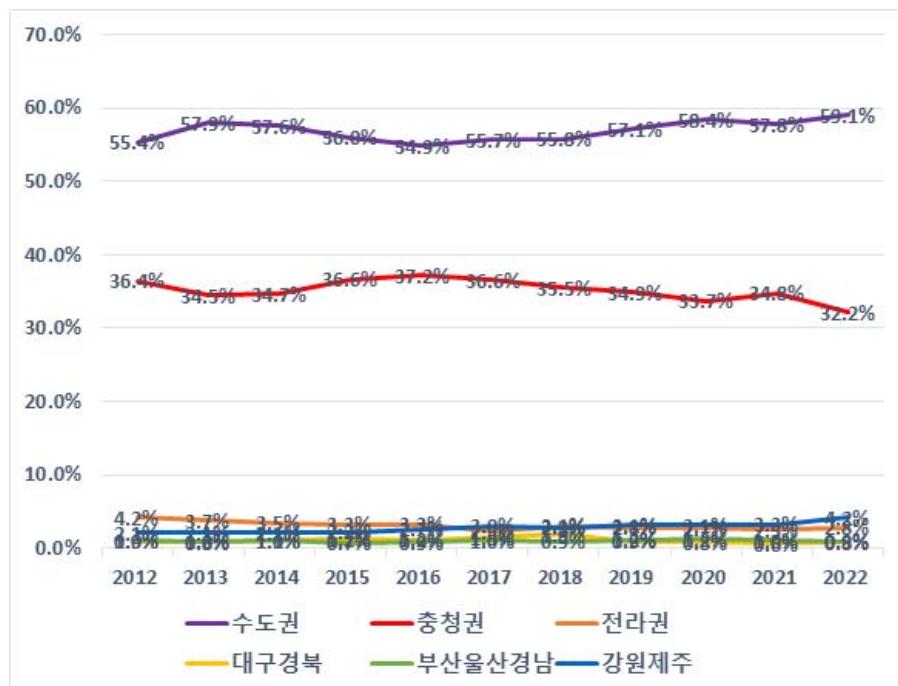
[그림 4-22]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약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의약품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59.1%, 충청권이 32.2%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91.3%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두 권역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는 55.4%에서 59.1%로 3.7% 포인트 상승했고, 후자는 36.4%에서 32.2%로 4.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의약품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는 의료 서비스 수요, 공급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표 4-24]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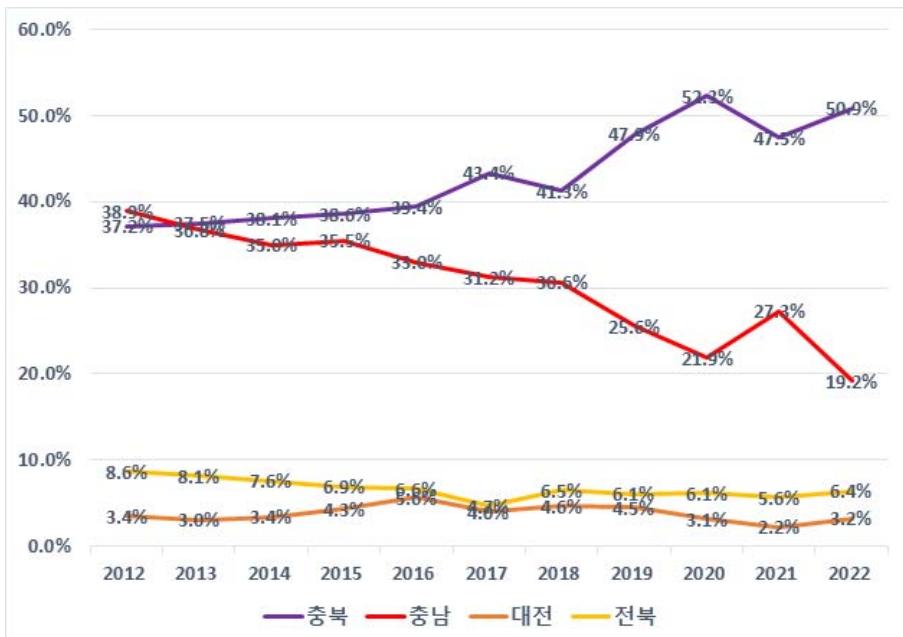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55.4	57.9	57.6	56.0	54.9	55.7	55.8	57.1	58.4	57.8	59.1
충청권	36.4	34.5	34.7	36.6	37.2	36.6	35.5	34.9	33.7	34.8	32.2
전라권	4.2	3.7	3.5	3.3	3.3	2.3	3.1	2.8	2.7	2.5	2.8
대구경북	0.9	0.8	1.1	1.2	1.2	1.5	1.9	0.9	0.8	0.6	0.8
부산울산 경남	1.0	1.0	1.0	0.7	0.9	1.0	0.9	1.2	1.2	1.0	0.9
강원제주	2.1	2.1	2.1	2.2	2.7	3.0	2.9	3.1	3.1	3.3	4.2



[그림 4-23]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북 비중은 37.2%에서 50.9%로 13.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충남은 38.9%에서 19.2%로 19.7% 포인트 하락했으며, 전북은 8.6%에서 6.4%로 2.2% 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 기간 전북의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비중 하락은 충남의 비중 하락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4]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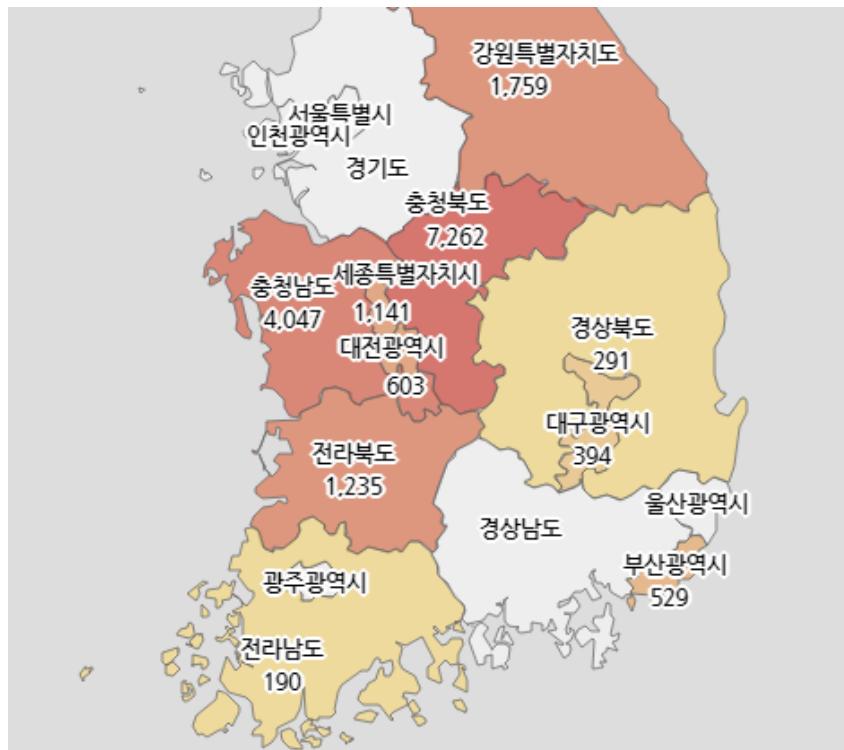
[표 4-2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37.2	37.5	38.1	38.6	39.4	43.4	41.3	47.9	52.3	47.5	50.9
충남	38.9	36.8	35.0	35.5	33.0	31.2	30.6	25.6	21.9	27.3	19.2
대전	3.4	3.0	3.4	4.3	5.6	4.0	4.6	4.5	3.1	2.2	3.2
전북	8.6	8.1	7.6	6.9	6.6	4.7	6.5	6.1	6.1	5.6	6.4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충남이 각각 7,262명, 4,047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원, 전북, 세종이 각각 1,759명, 1,235명, 1,141명으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전북은 의약품 제조업 고용에 관한 한, 호남권과 영남권 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북이 지리적으로 수도권, 충청권과 가깝다는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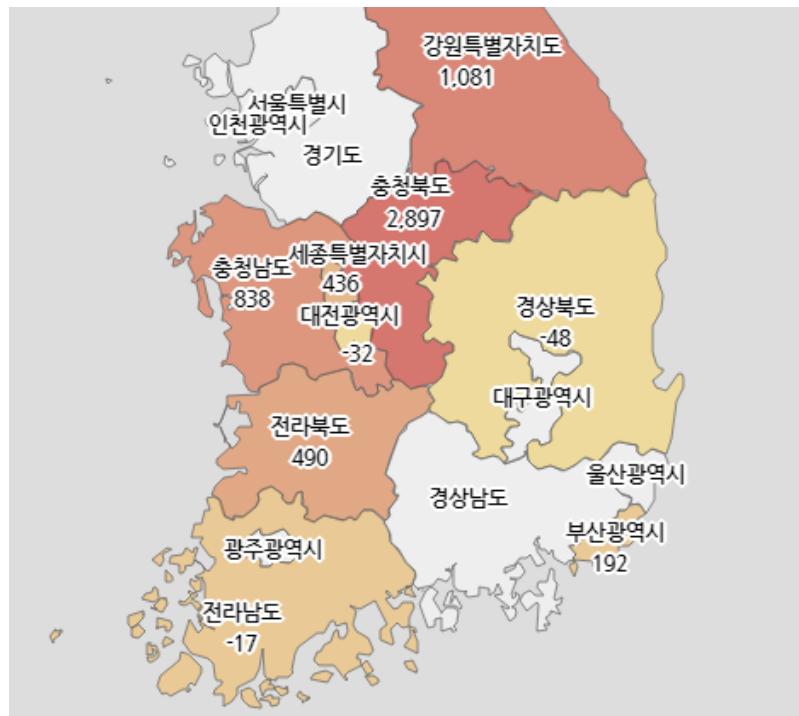
[그림 4-25]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2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으로 2,897명 증가했고, 3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강원, 충남, 전북, 세종으로 각각 1,081명, 838명, 490명, 436명 증가하였다.

6년 간의 의약품 제조업 고용 증가분에 있어서도 전북은 호남권과 영남권 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것 또한 전북이 지리적으로 수도권, 충청권과 가깝다는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6]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26] 2016~2022년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27,429	41,578	14,149	51.6%
서울	113	504	391	346.0%
부산	337	529	192	57.0%
대구	X	394		
인천	2,607	7,807	5,200	199.5%
광주		X		
대전	635	603	-32	-5.0%
울산	X	X		
세종	705	1,141	436	61.8%
경기	13,001	15,398	2,397	18.4%
강원	678	1,759	1,081	159.4%
충북	4,365	7,262	2,897	66.4%
충남	3,209	4,047	838	26.1%
전북	745	1,235	490	65.8%
전남	207	190	-17	-8.2%
경북	339	291	-48	-14.2%
경남	X	-		
제주	X	X		

마. 2016~2022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1) 의약품 제조업의 3대 분야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은 제조업 소분류 85개 중 하나로 이를 세분류로 구분하면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이 이에 포함된다.

2) 2016~2022년 전국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전국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이 각각 88.7%, 7.5%, 3.8%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4-27] 2016~2022년 전국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표 4-27] 2016~2022년 전국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규모	완제 의약품 제조업	25,848	26,324	28,896	31,912	35,910	38,614
	한의약품 제조업	2,237	2,262	2,622	2,634	3,194	3,269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678	1,784	1,689	1,814	1,719	1,636
비중	완제 의약품 제조업	86.8%	86.7%	87.0%	87.8%	88.0%	88.7%
	한의약품 제조업	7.5%	7.4%	7.9%	7.2%	7.8%	7.5%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5.6%	5.9%	5.1%	5.0%	4.2%	3.8%

■ 2016~2022년 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이 각각 90.2%, 5.9%, 3.8%로 역시 완제 의약품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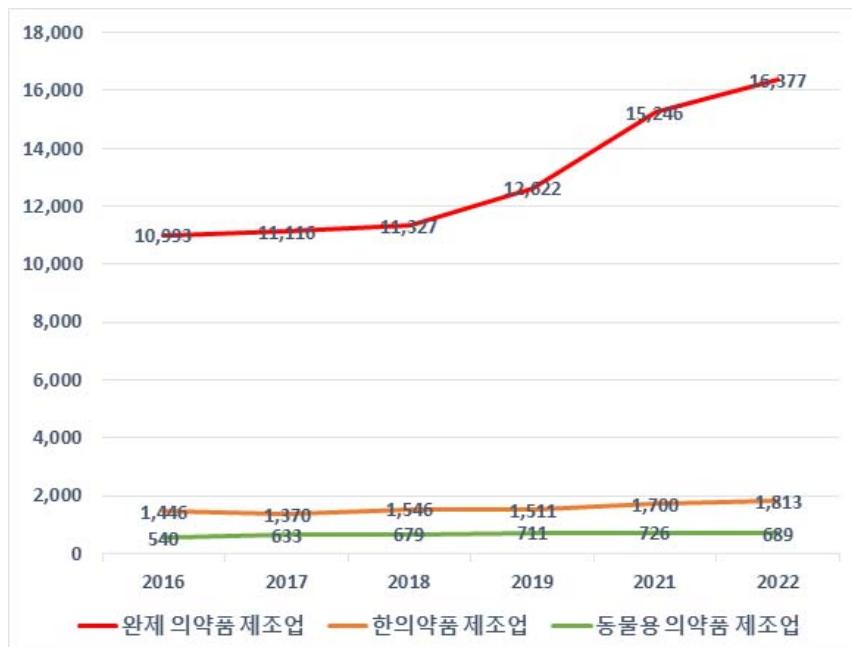
[그림 4-28] 2016~2022년 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표 4-28] 2016~2022년 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규모	완제 의약품 제조업	14,855	15,208	17,569	19,290	20,664	22,237
	한의약품 제조업	791	892	1,076	1,123	1,494	1,456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138	1,151	1,010	1,103	993	947
비중	완제 의약품 제조업	88.5%	88.2%	89.4%	89.7%	89.3%	90.2%
	한의약품 제조업	4.7%	5.2%	5.5%	5.2%	6.5%	5.9%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8%	6.7%	5.1%	5.1%	4.3%	3.8%

■ 2016~2022년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이 각각 86.7%, 9.6%, 3.6%로 역시 완제 의약품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4-29] 2016~2022년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 추이

[표 4-29] 2016~2022년 비수도권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변화추이(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규모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993	11,116	11,327	12,622	15,246	16,377
	한의약품 제조업	1,446	1,370	1,546	1,511	1,700	1,81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540	633	679	711	726	689
비중	완제 의약품 제조업	84.7%	84.7%	83.6%	85.0%	86.3%	86.7%
	한의약품 제조업	11.1%	10.4%	11.4%	10.2%	9.6%	9.6%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4.2%	4.8%	5.0%	4.8%	4.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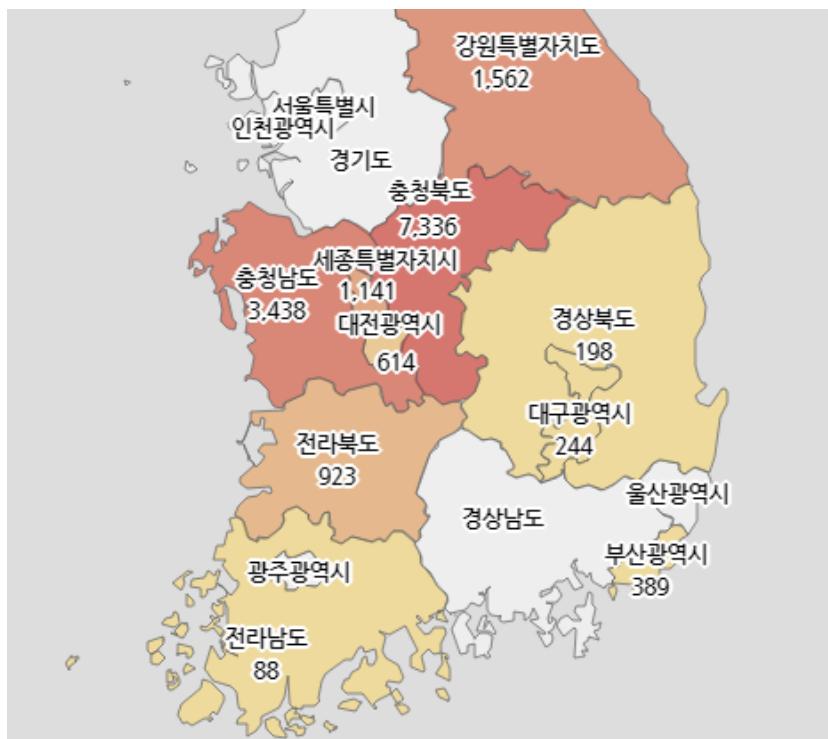
3)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가)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충남이 각각 7,336명, 3,438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원, 세종, 전북이 각각 1,512명, 1,141명, 923명으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중위그룹이라고는 하나, 인접 시도인 충청권의 약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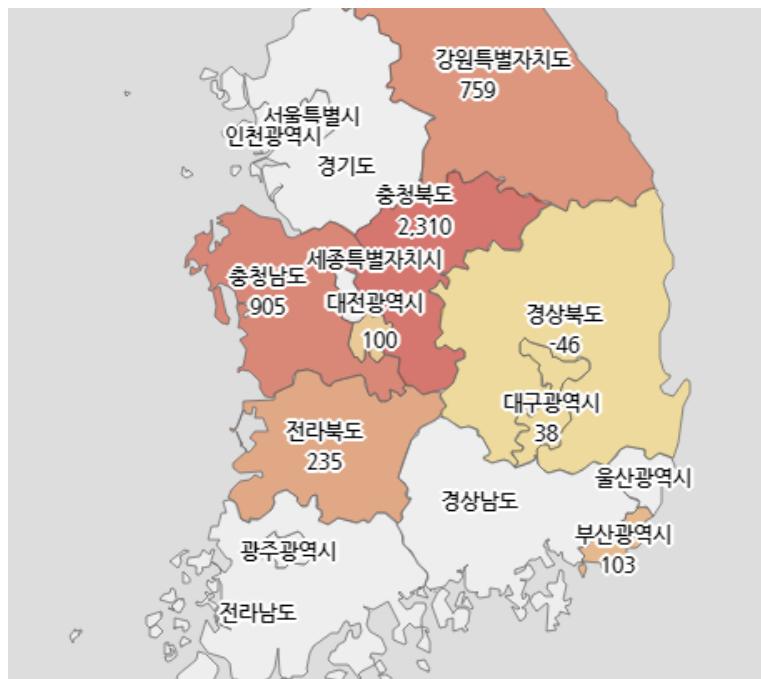


[그림 4-30]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5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충남, 강원으로 각각 2,310명, 905명, 759명 증가하여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은 235명 증가하여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나마 충청권, 강원권을 제외한 대다수 비수도권 시도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전북은 일정 정도 약진을 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1]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표 4-30] 2016~2022년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25,848	38,614	12,766	49.4%
서울	178	679	501	281.5%
부산	286	389	103	36.0%
대구	206	244	38	18.4%
인천	3,308	7,623	4,315	130.4%
광주	-	X		
대전	514	614	100	19.5%
울산	X	X		
세종	X	1,141		
경기	11,369	13,935	2,566	22.6%
강원	803	1,562	759	94.5%
충북	5,026	7,336	2,310	46.0%
충남	2,533	3,438	905	35.7%
전북	688	923	235	34.2%
전남	X	88		
경북	244	198	-46	-18.9%
경남	X	X		
제주	X	306		

나)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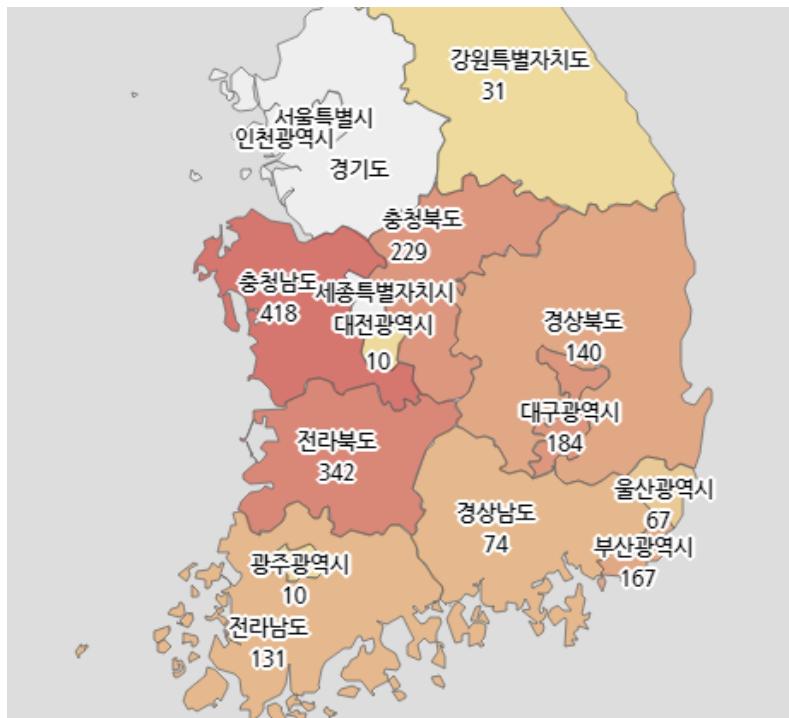
■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남, 전북, 충북이 각각 418명, 342명, 229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구, 부산, 경북, 전남이 각각 184명, 167명, 140명, 131명으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의약품 제조업에 관한 한 비수도권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1] 2016~2022년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2,237	3,269	1,032	46.1%
서울	123	304	181	147.2%
부산	94	167	73	77.7%
대구	92	184	92	100.0%
인천	148	241	93	62.8%
광주	X	10		
대전	91	10	-81	-89.0%
울산	67	67	0	0.0%
세종	-	X		
경기	520	911	391	75.2%
강원	52	31	-21	-40.4%
충북	209	229	20	9.6%
충남	314	418	104	33.1%
전북	143	342	199	139.2%
전남	153	131	-22	-14.4%
경북	177	140	-37	-20.9%
경남	46	74	28	60.9%
제주	X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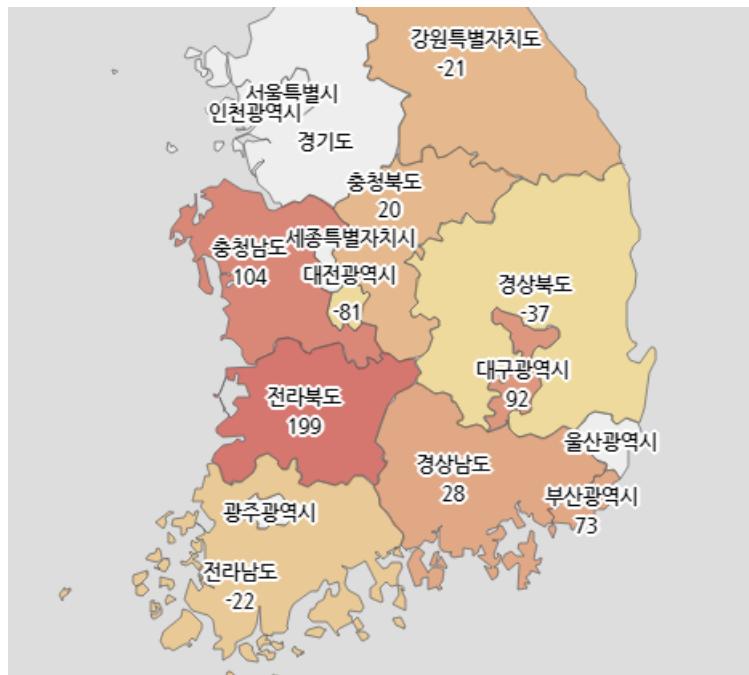


[그림 4-32]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화장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50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전북, 충남, 대구, 부산으로 각각 199명, 104명, 92명, 73명 증가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한의약품 제조업에 관한 한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약품 제조업 중 한의약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도의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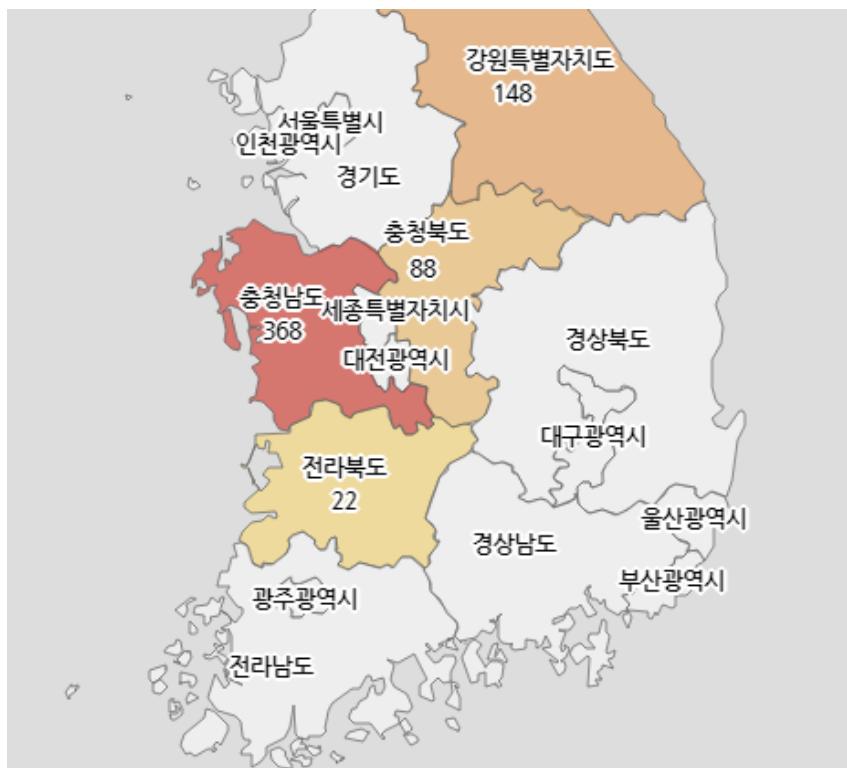


[그림 4-33]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다) 비수도권 시도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남, 강원, 충북이 각각 368명, 148명, 88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북은 22명으로 중위 그룹에 해당된다.

전북의 경우 중위그룹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전체 의약품 제조업 중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도의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4-34]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표 4-32] 2016~2022년 시도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1,678	1,636	-42	-2.5%
서울	9	7	-2	-22.2%
부산		X		
대구	X	-		
인천	X	X		
광주				
대전		X		
울산	X	X		
세종	X			
경기	1,129	940	-189	-16.7%
강원	X	148		
충북	71	88	17	23.9%
충남	354	368	14	4.0%
전북	-	22		
전남	X	X		
경북	X	X		
경남				
제주				

6. 기타 식품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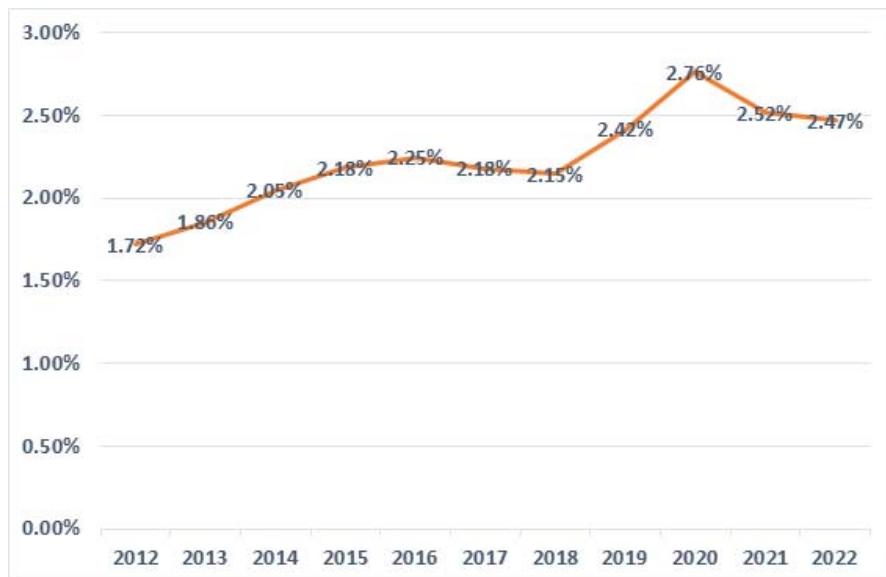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타 식품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식료품 제조업, 소분류상 기타 식품 제조업에 해당되며, 세분류상으로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등 6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떡류 제조업 등 19개 업종을 포함한다.

[표 4-3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식료품 제조업
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설탕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식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식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서 2.47%로 1.44배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이 기간동안 기타 식품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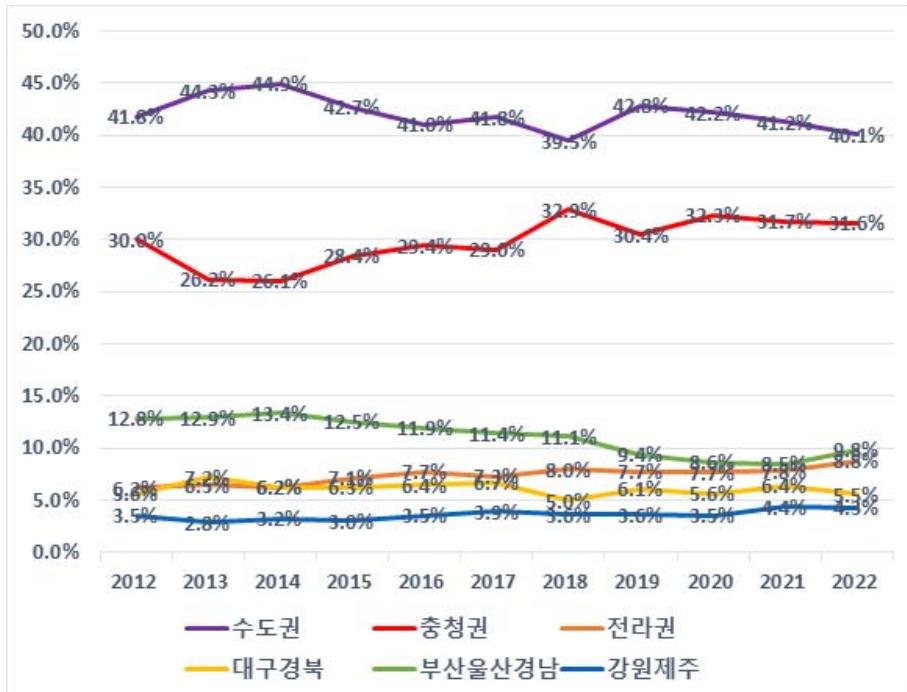
[그림 4-35]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타 식품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기타 식품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40.1%, 충청권이 31.6%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71.7%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두 권역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는 41.8%에서 40.1%로 1.7% 포인트 감소했고, 후자는 30.0%에서 31.6%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가공식품이 포함된 기타 식품 특성상 이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과 수도권 주변 지역의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비중 3,4,5위는 부울경권, 전라권, 대구경북권으로 그 비중은 각각 9.8%, 8.8%, 5.5%으로, 이들 권역의 비중 변화를 보면 부울경권은 12.8%에서 9.8%로

3% 포인트 하락했고, 전라권은 6.2%에서 8.8%로 2.6% 포인트 상승했으며, 대구경북권은 5.6%에서 5.5%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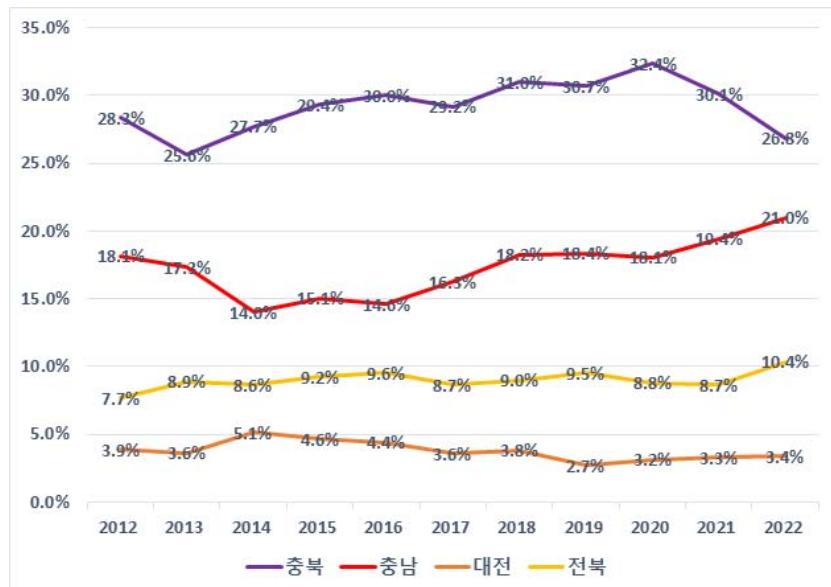
[그림 4-36] 최근 10년간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표 4-34] 최근 10년간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41.8	44.3	44.9	42.7	41.0	41.8	39.5	42.8	42.2	41.2	40.1
충청권	30.0	26.2	26.1	28.4	29.4	29.0	32.9	30.4	32.3	31.7	31.6
전라권	6.2	6.5	6.2	7.1	7.7	7.3	8.0	7.7	7.7	7.8	8.8
대구경북	5.6	7.2	6.2	6.3	6.4	6.7	5.0	6.1	5.6	6.4	5.5
부산울산경남	12.8	12.9	13.4	12.5	11.9	11.4	11.1	9.4	8.6	8.5	9.8
강원제주	3.5	2.8	3.2	3.0	3.5	3.9	3.6	3.6	3.5	4.4	4.3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북 비중은 28.3%에서 26.8%로 1.5% 포인트 하락했고, 충남은 18.1%에서 21.0%로 2.9% 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북은 7.7%에서 10.4%로 2.7% 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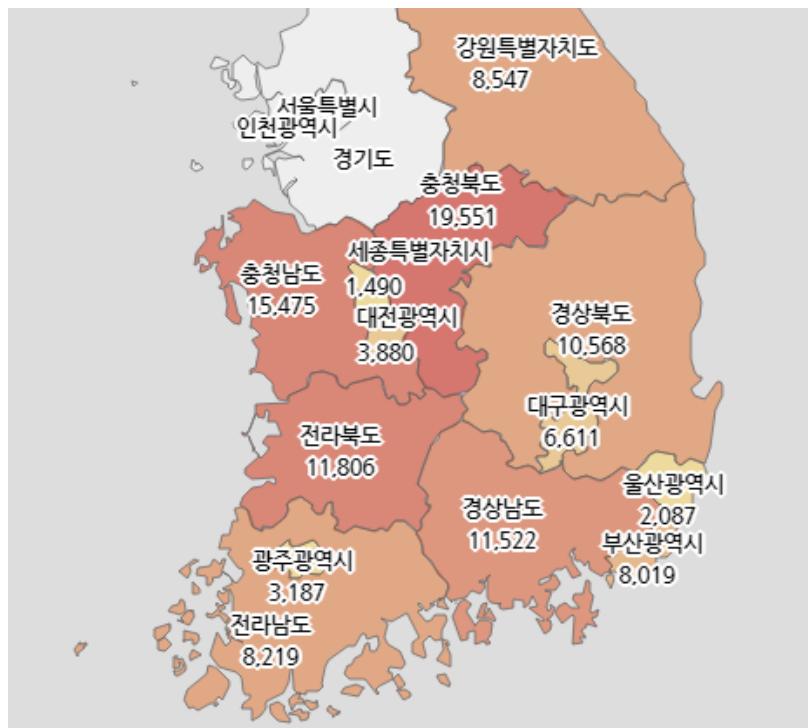
[그림 4-37] 그림 6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표 4-3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28.3	25.6	27.7	29.4	30.0	29.2	31.0	30.7	32.4	30.1	26.8
충남	18.1	17.3	14.0	15.1	14.6	16.3	18.2	18.4	18.1	19.4	21.0
대전	3.9	3.6	5.1	4.6	4.4	3.6	3.8	2.7	3.2	3.3	3.4
전북	7.7	8.9	8.6	9.2	9.6	8.7	9.0	9.5	8.8	8.7	10.4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충남이 각각 1만 9,551명, 1만 5,475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충청권 이외 지역은 매우 유사한 종사자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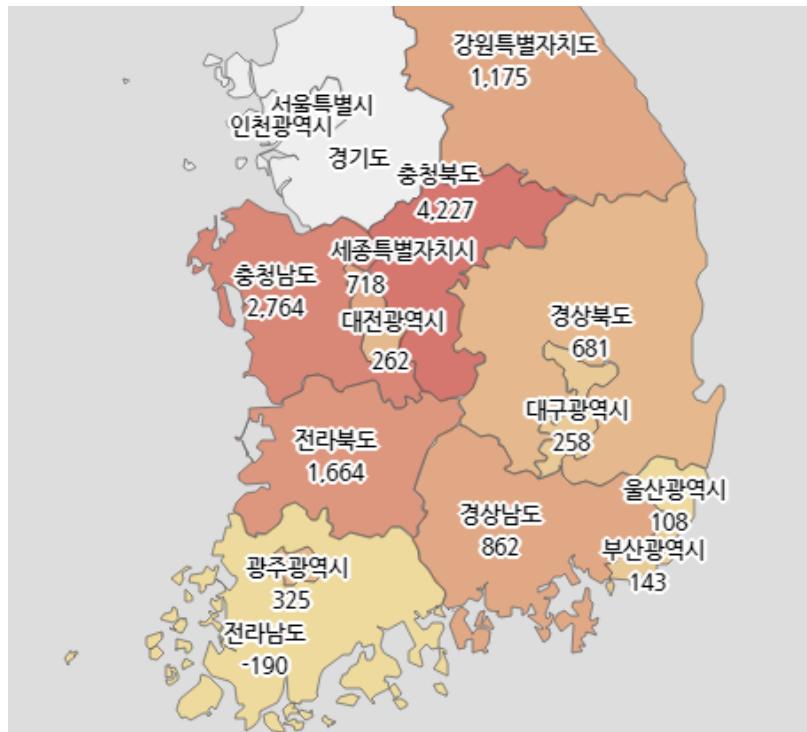
[그림 4-38] 그림 66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2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충남으로 각각 4,227명, 2,764명 증가했고,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전북, 강원으로 각각 1,664명, 1,175명 증가하였다.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수요에 대응하여 기타 식품 제조업이 성장했고, 전북, 강원도

영남권, 호남권의 여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림 4-39]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36] 2016~2022년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160,646	185,350	24,704	15.4%
서울	11,294	11,541	247	2.2%
부산	7,876	8,019	143	1.8%
대구	6,353	6,611	258	4.1%
인천	5,540	7,215	1,675	30.2%
광주	2,862	3,187	325	11.4%
대전	3,618	3,880	262	7.2%
울산	1,979	2,087	108	5.5%
세종	772	1,490	718	93.0%
경기	43,969	53,479	9,510	21.6%
강원	7,372	8,547	1,175	15.9%
충북	15,324	19,551	4,227	27.6%
충남	12,711	15,475	2,764	21.7%
전북	10,142	11,806	1,664	16.4%
전남	8,409	8,219	-190	-2.3%
경북	9,887	10,568	681	6.9%
경남	10,660	11,522	862	8.1%
제주	1,878	2,153	275	14.6%

마. 기타 식품 제조업 업종 중 신성장 업종 추출

1) 기타 식품 제조업 업종 중 신성장 업종 추출의 필요성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타 식품 제조업은 제조업 소분류 85개 중 하나에 해당되나, 그러나 기타 식품 제조업이 내포하는 세분류 업종들과 세세분류 업종들의 성장 속도가 매우 다르므로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신성장 업종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식품 제조업 업종 중 신성장 업종 추출

기타 식품 제조업이 내포하는 세세분류 업종들을 추출대상으로 하여 신성장 업종을 추출하는 방법은 앞에서 서술한 바 있는 ‘제조업이 내포하는 85개 소분류 업종들을 추출대상으로 하여 신성장 업종을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 제조업이 내포하는 소분류 업종은 85개에 이르지만, 식품 제조업이 내포하는 세세분류 업종은 19개에 불과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19개 중 신성장성이 높은 2개만을 신성장 업종으로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기타 식품 제조업 업종 중 신성장 업종’은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과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7] 기타 식품 제조업 업종 중 신성장 업종 추출

순위		성장기여도		성장률		합산점수 [C+D]
		2022년 기타식품 제조업 내 부가가치비 중 [A]	A에 부여한 점수 [B]	2012~ 2022년 부가가치상 승률 [C]	C에 부여한 점수 [D]	
1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3.8%	19	214%	17	36
2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5%	16	404%	19	35
3	빵류 제조업	12.8%	18	94%	8	26
4	설탕 제조업	3.0%	11	192%	15	26
5	커피 가공업	4.7%	13	162%	13	26
6	도시락류 제조업	4.2%	12	161%	12	24
7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9.7%	14	102%	10	24
8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2%	15	94%	9	24
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6%	5	247%	18	23
10	떡류 제조업	2.1%	7	193%	16	23
11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2.4%	17	43%	5	22
12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2.9%	10	152%	11	21
1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0.9%	1	174%	14	15
1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9%	6	87%	7	13
15	인삼식품 제조업	2.7%	9	33%	3	12
16	장류 제조업	2.6%	8	23%	2	10
17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	4	37%	4	8
18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0.9%	2	61%	6	8
19	차류 가공업	1.5%	3	-7%	1	4

3) 시도별 기타 식품 제조업 중 신성장 업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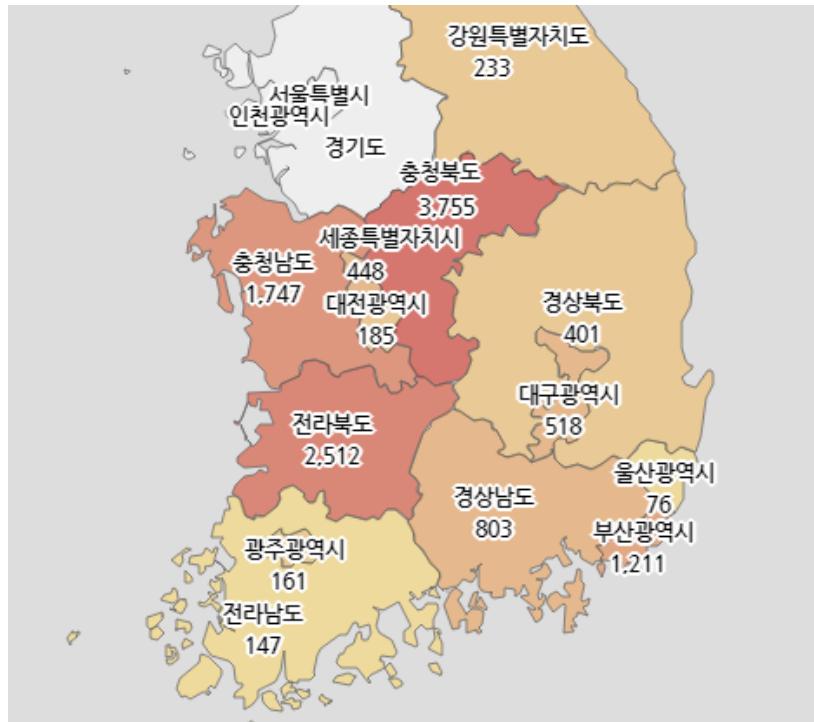
가)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전북이 각각 3,755명, 2,512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충남, 부산이 각각 1,747명, 1,211명으로 중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표 4-38] 2016~2022년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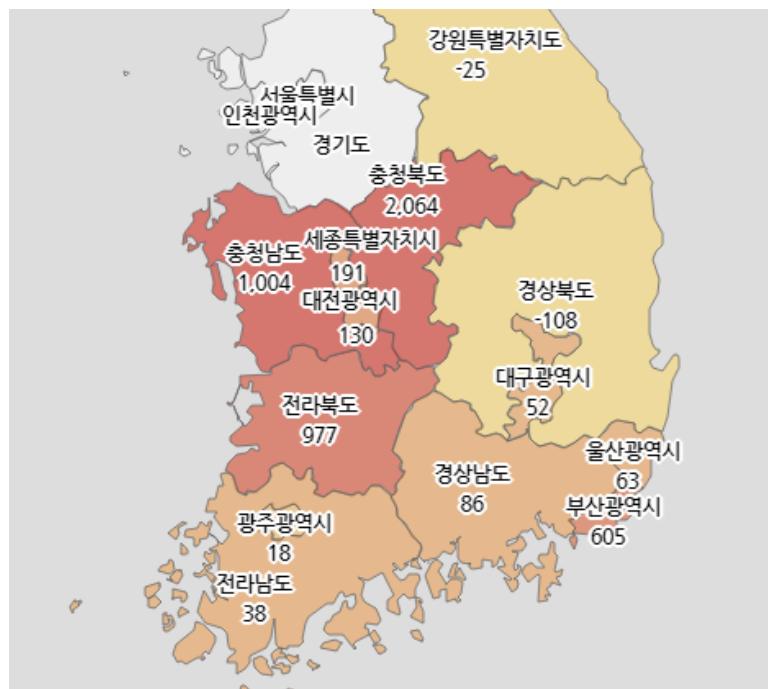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12,975	20,238	7,263	56.0%
서울	509	1,049	540	106.1%
부산	606	1,211	605	99.8%
대구	466	518	52	11.2%
인천	902	1,340	438	48.6%
광주	143	161	18	12.6%
대전	55	185	130	236.4%
울산	13	76	63	484.6%
세종	257	448	191	74.3%
경기	4,428	5,616	1,188	26.8%
강원	258	233	-25	-9.7%
충북	1,691	3,755	2,064	122.1%
충남	743	1,747	1,004	135.1%
전북	1,535	2,512	977	63.6%
전남	109	147	38	34.9%
경북	509	401	-108	-21.2%
경남	717	803	86	12.0%
제주	0	36	36	



[그림 4-40]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충남으로 각각 2,064명, 1,004명 증가하였으며, 전북은 977명으로 약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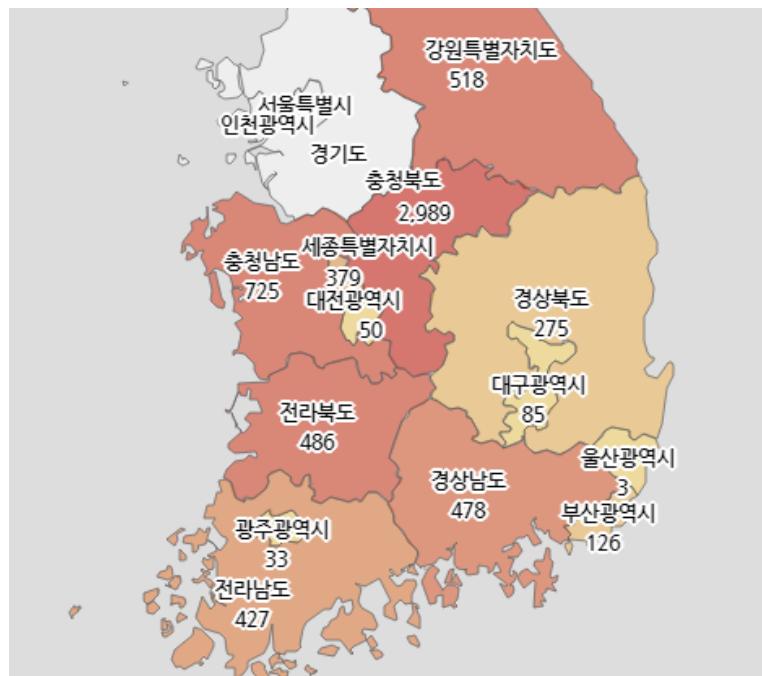
[그림 4-41]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타(도시락류 외)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나)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이 2,989명으로 선두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강원, 전북, 경남, 전남이 각각 725명, 518명, 486명, 478명, 427명으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충북 이외 지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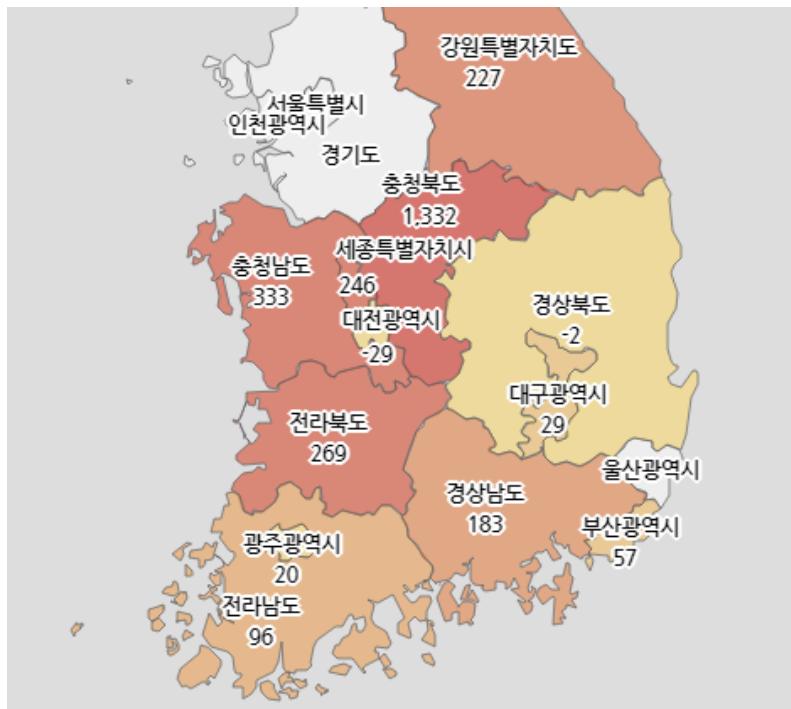
[그림 4-42]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으로 1,332명 증가했고, 2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남, 전북, 세종, 강원으로 각각 333명, 269명, 246명, 2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북 이외 지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종사자 증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39] 2016~2022년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5,170	10,049	4,879	94.4%
서울	149	398	249	167.1%
부산	69	126	57	82.6%
대구	56	85	29	51.8%
인천	33	65	32	97.0%
광주	13	33	20	153.8%
대전	79	50	-29	-36.7%
울산	X	3		
세종	133	379	246	185.0%
경기	1,117	2,927	1,810	162.0%
강원	291	518	227	78.0%
충북	1,657	2,989	1,332	80.4%
충남	392	725	333	84.9%
전북	217	486	269	124.0%
전남	331	427	96	29.0%
경북	277	275	-2	-0.7%
경남	295	478	183	62.0%
제주	59	85	26	44.1%



[그림 4-43]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7.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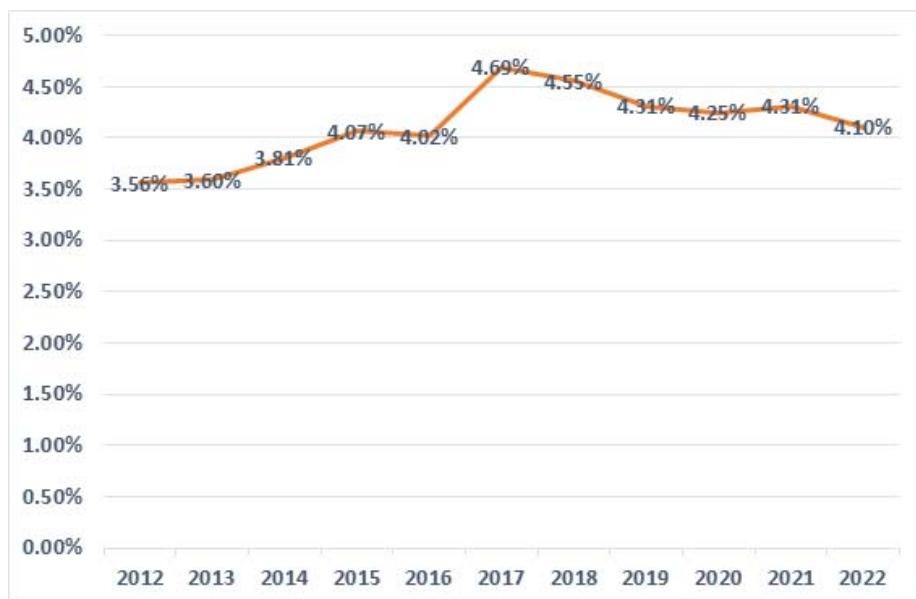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상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해당되며, 세분류상으로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등 9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등 20개 업종을 포함한다.

[표 4-4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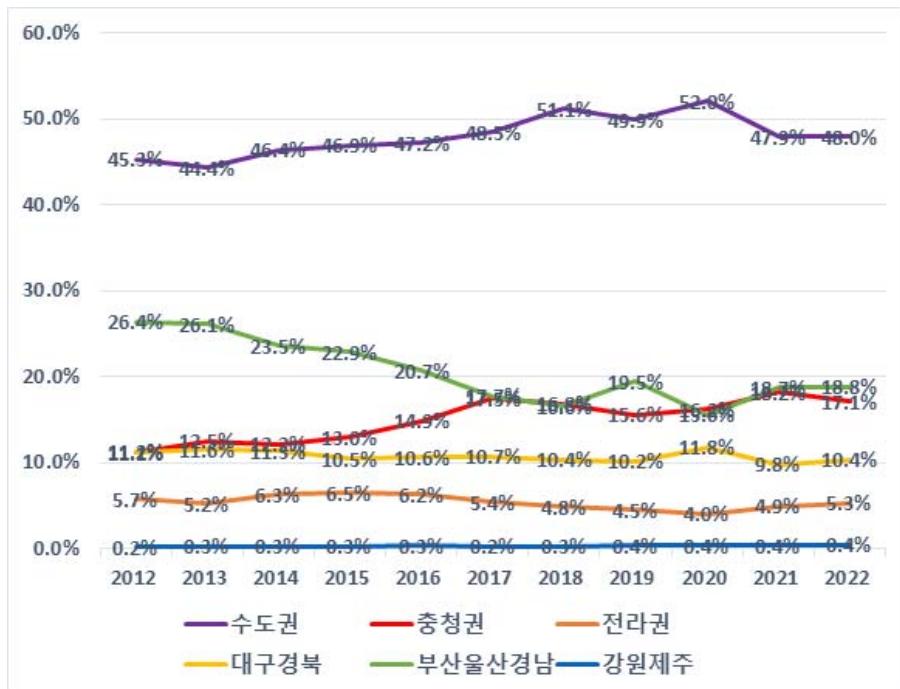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서 4.10%로 1.15배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이 기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44]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59.1%, 충청권이 32.2%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91.3%에 달하는데, 최근 10년간 두 권역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는 55.4%에서 59.1%로 3.7% 포인트 상승했고, 후자는 36.4%에서 32.2%로 4.2%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4-45] 최근 10년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표 4-41]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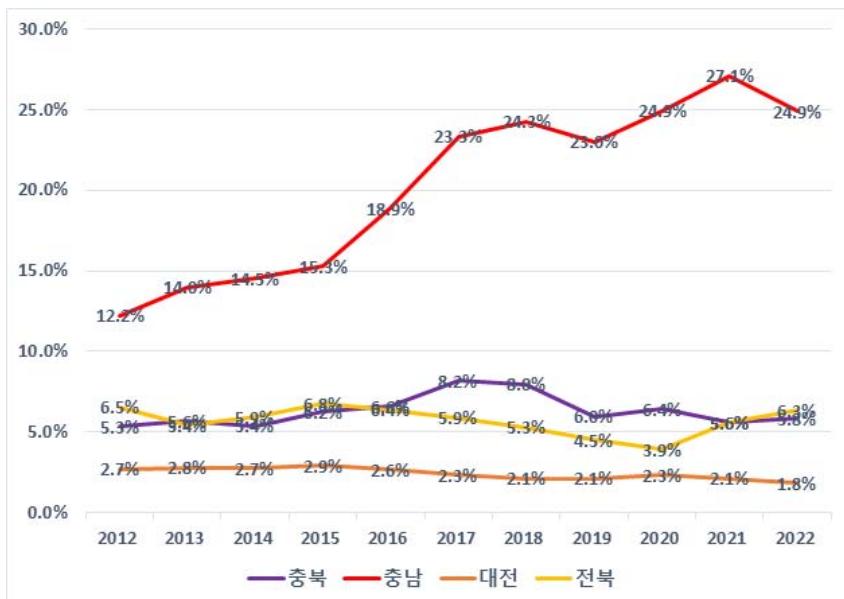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45.3	44.4	46.4	46.9	47.2	48.5	51.1	49.9	52.0	47.9	48.0
충청권	11.1	12.5	12.2	13.0	14.9	17.5	16.8	15.6	16.2	18.2	17.1
전라권	5.7	5.2	6.3	6.5	6.2	5.4	4.8	4.5	4.0	4.9	5.3
대구경북	11.2	11.6	11.3	10.5	10.6	10.7	10.4	10.2	11.8	9.8	10.4
부산울산경남	26.4	26.1	23.5	22.9	20.7	17.7	16.6	19.5	15.6	18.7	18.8
강원제주	0.2	0.3	0.3	0.3	0.3	0.2	0.3	0.4	0.4	0.4	0.4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북 비중은 37.2%에서 50.9%로 13.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충남은 38.9%에서 19.2%로 19.7% 포인트 하락했으며, 전북은 8.6%에서 6.4%로 2.2% 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 기간 전북의 비수도권 내 의약품 제조업 비중 하락은 충남의 비중 하락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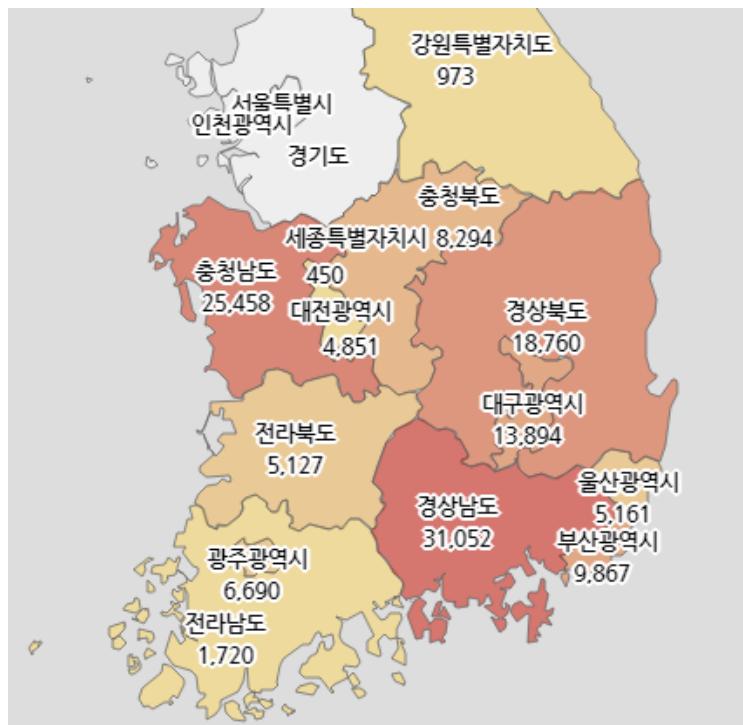
[표 4-42]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5.3	5.6	5.4	6.2	6.6	8.2	8.0	6.0	6.4	5.6	5.8
충남	12.2	14.0	14.5	15.3	18.9	23.3	24.3	23.0	24.9	27.1	24.9
대전	2.7	2.8	2.7	2.9	2.6	2.3	2.1	2.1	2.3	2.1	1.8
전북	6.5	5.4	5.9	6.8	6.4	5.9	5.3	4.5	3.9	5.6	6.3



[그림 4-46]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다.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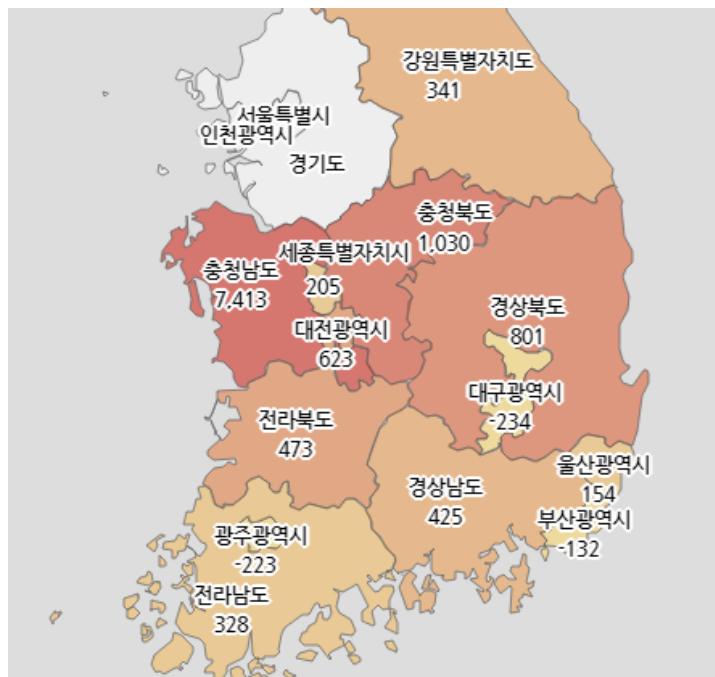


[그림 4-47]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표 4-43] 표 76 2016~2022년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249,101	273,404	24,303	9.8%
서울	8,050	7,517	-533	-6.6%
부산	9,999	9,867	-132	-1.3%
대구	14,128	13,894	-234	-1.7%
인천	22,736	21,770	-966	-4.2%
광주	6,913	6,690	-223	-3.2%
대전	4,228	4,851	623	14.7%
울산	5,007	5,161	154	3.1%
세종	245	450	205	83.7%
경기	97,109	111,636	14,527	15.0%
강원	632	973	341	54.0%
충북	7,264	8,294	1,030	14.2%
충남	18,045	25,458	7,413	41.1%
전북	4,654	5,127	473	10.2%
전남	1,392	1,720	328	23.6%
경북	17,959	18,760	801	4.5%
경남	30,627	31,052	425	1.4%
제주	113	184	71	62.8%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그림 4-48] 그림 76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상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에 해당되며, 세분류상으로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등 2개 업종을 포함한다.

[표 4-4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8%에서 0.54%로 3배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이 기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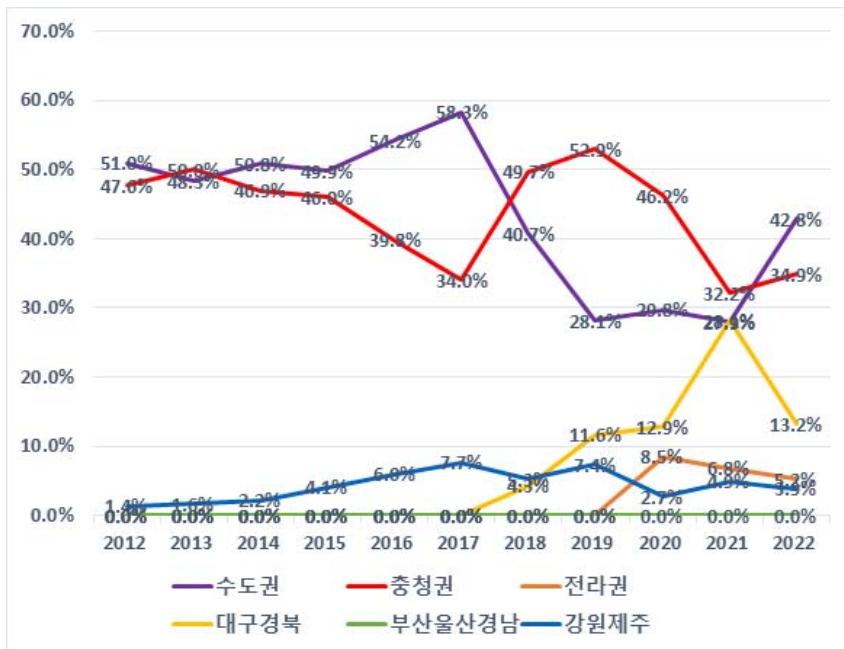


[그림 4-49]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42.8%, 충청권이 34.9%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77.7%에 달하는데, 최근 10년간 두 권역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는 51.0%에서 42.8%로 8.2% 포인트 감소했고, 후자는 47.6%에서 34.9%로 12.7% 포인트 하락하였다.

2022년 기준 비중 3,4,5위는 대구경북권, 전라권, 강원제주권으로 그 비중은 각각 13.2%, 5.2%, 3.9%으로 이들 권역의 비중 변화를 보면 대구경북권은 0%에서 13.2%로 13.2% 포인트 상승했고, 전라권은 0%에서 5.2%로 5.2% 포인트 상승했으며, 강원제주권은 1.4%에서 3.9%로 2.5%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4-50] 최근 10년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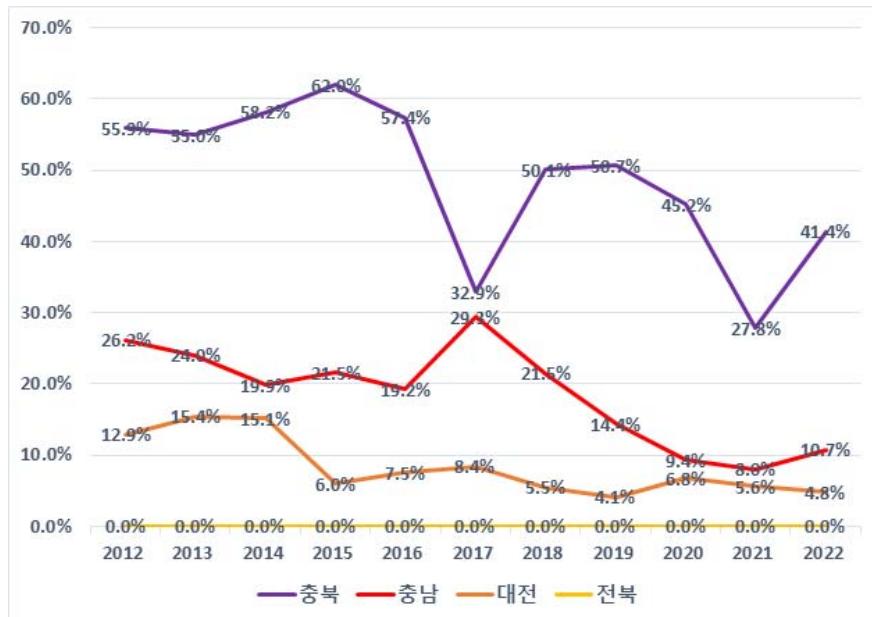
[표 4-45] 최근 10년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51.0	48.3	50.8	49.9	54.2	58.3	40.7	28.1	29.8	27.9	42.8
충청권	47.6	50.0	46.9	46.0	39.8	34.0	49.7	52.9	46.2	32.2	34.9
전라권	0.0	0.0	0.0	0.0	0.0	0.0	0.0	0.0	8.5	6.8	5.2
대구경북	0.0	0.0	0.0	0.0	0.0	0.0	4.3	11.6	12.9	28.1	13.2
부산울산경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1.4	1.6	2.2	4.1	6.0	7.7	5.3	7.4	2.7	4.9	3.9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타 식품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북 비중은 55.9%에서 41.4%로 14.5% 포인트 하락했고, 충남은 26.2%에서 10.7%로 15.5% 포인트 하락하였다.

전북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는 상태로 지난 10년간 전라권의 약진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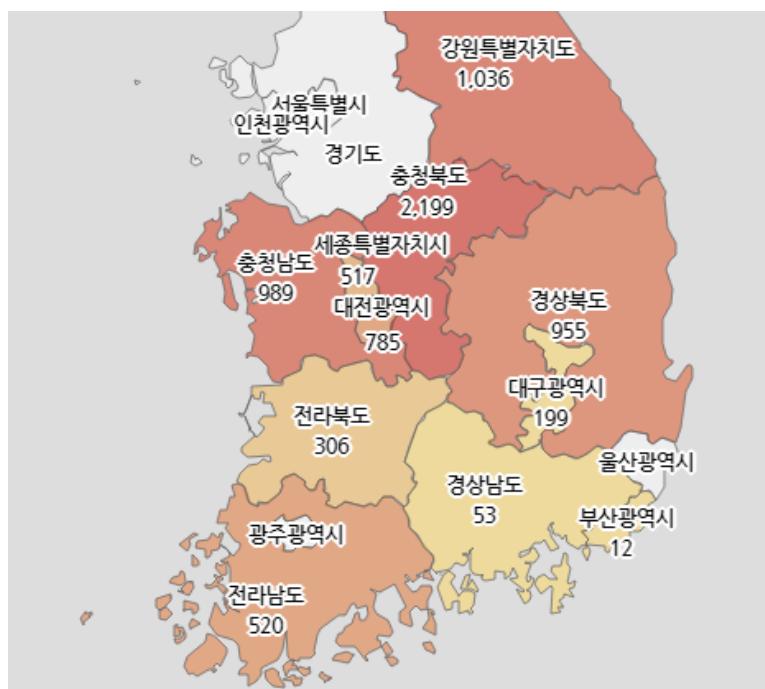
[그림 4-51]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표 4-46]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55.9	55.0	58.2	62.0	57.4	32.9	50.1	50.7	45.2	27.8	41.4
충남	26.2	24.0	19.9	21.5	19.2	29.3	21.5	14.4	9.4	8.0	10.7
대전	12.9	15.4	15.1	6.0	7.5	8.4	5.5	4.1	6.8	5.6	4.8
전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다.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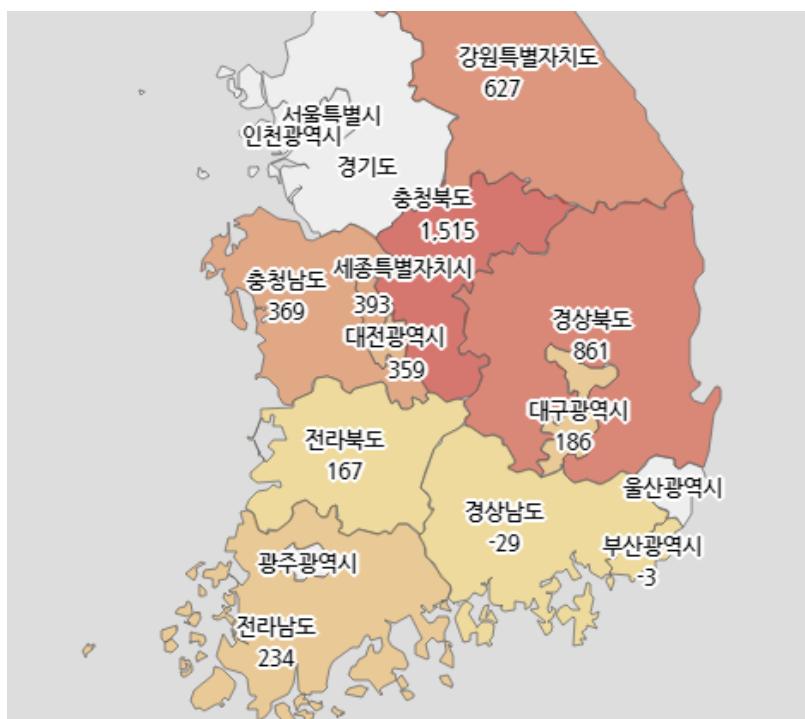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이 2,199명으로 선두로 그 외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다.



[그림 4-52]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 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으로 1,515명 증가했고, 5백 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경북, 강원으로 각각 861명, 627명 증가하였으며, 전북은 167명으로 종사자 증가분에 있어서는 중하위그룹에 포함된다.



[그림 4-53]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47] 2016~2022년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6,632	12,858	6,226	93.9%
서울	260	289	29	11.2%
부산	15	12	-3	-20.0%
대구	13	199	186	1430.8%
인천	307	508	201	65.5%
광주	X	X		
대전	426	785	359	84.3%
울산	X	X		
세종	124	517	393	316.9%
경기	3,114	4,479	1,365	43.8%
강원	409	1,036	627	153.3%
충북	684	2,199	1,515	221.5%
충남	620	989	369	59.5%
전북	139	306	167	120.1%
전남	286	520	234	81.8%
경북	94	955	861	916.0%
경남	82	53	-29	-35.4%
제주	12	9	-3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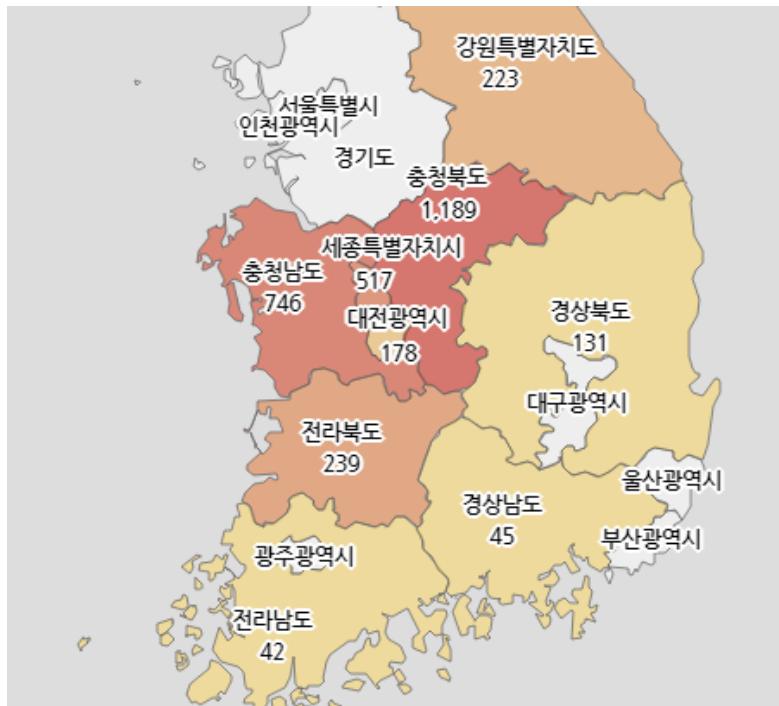
라. 시도별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1)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충남, 세종이 각각 1,189명, 746명, 517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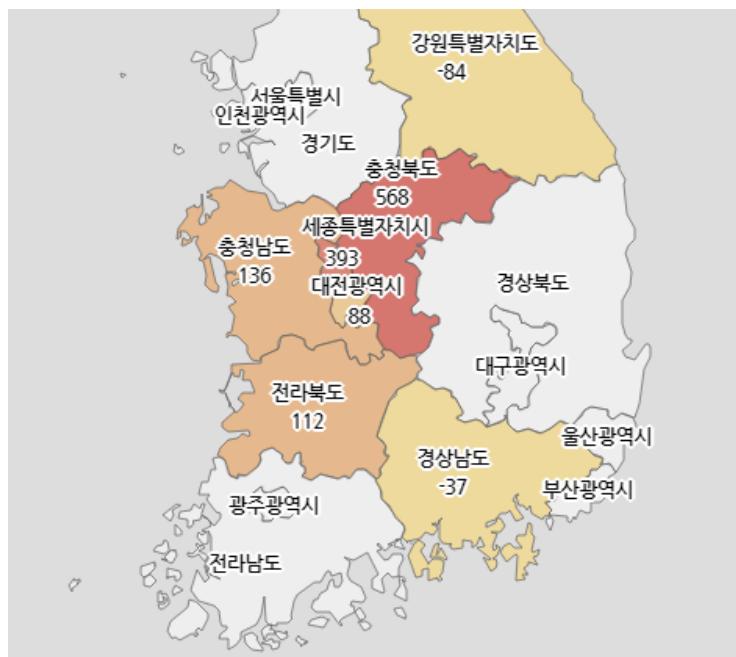
전북, 강원은 각각 239명, 223명으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54]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3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세종으로 각각 568명, 393명 증가하여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충남, 전북은 각각 136명, 112명 증가하여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55]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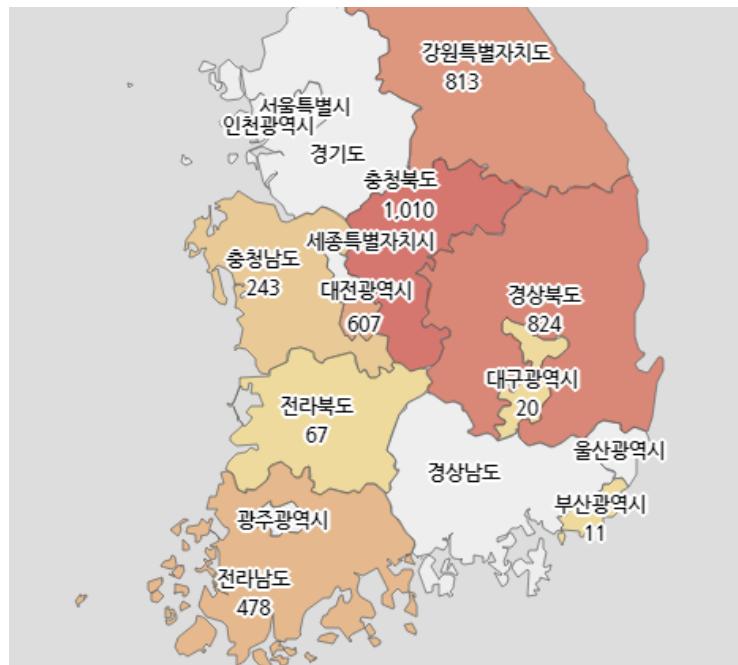
[표 4-48] 2016~2022년 시도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4,798	6,736	1,938	40.4%
서울	153	68	-85	-55.6%
부산		X		
대구	-	X		
인천	80	268	188	235.0%
광주	-			
대전	90	178	88	97.8%
울산			0	
세종	124	517	393	316.9%
경기	2,539	2,910	371	14.6%
강원	307	223	-84	-27.4%
충북	621	1,189	568	91.5%
충남	610	746	136	22.3%
전북	127	239	112	88.2%
전남	X	42		
경북	X	131		
경남	82	45	-37	-45.1%
제주				

2)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6년간 증가분 비교

■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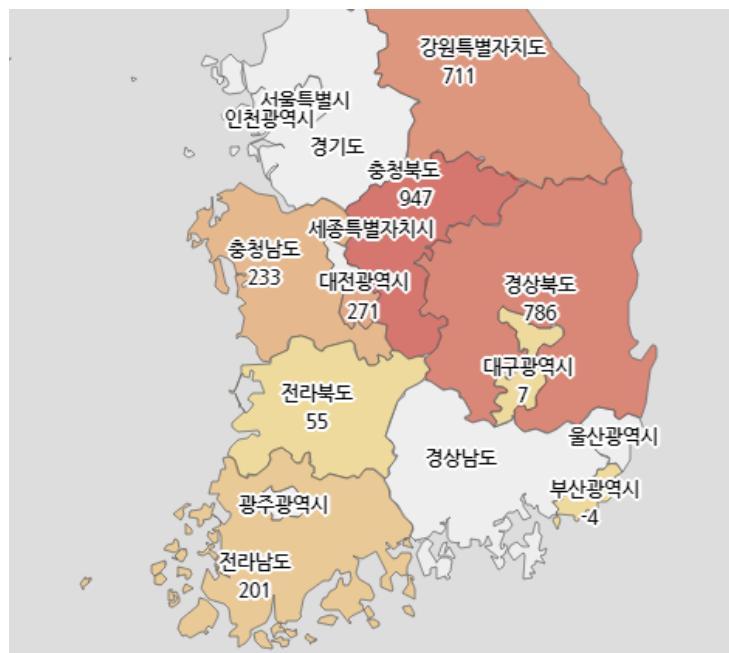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충북, 경북, 강원이 각각 1010명, 824명, 813명으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전, 전남은 각각 607명, 478명으로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56]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5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북, 경북, 강원으로 각각 947명, 786명, 711명 증가하여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전, 충남, 전남은 각각 271명, 233명, 201명 증가하여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57]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단위 : 명)

[표 4-49] 2016~2022년 시도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1,834	6,122	4,288	233.8%
서울	107	221	114	106.5%
부산	15	11	-4	-26.7%
대구	13	20	7	53.8%
인천	X	240		
광주	X	X		
대전	336	607	271	80.7%
울산	X	X		
세종				
경기	575	1,569	994	172.9%
강원	102	813	711	697.1%
충북	63	1,010	947	1503.2%
충남	10	243	233	2330.0%
전북	12	67	55	458.3%
전남	277	478	201	72.6%
경북	38	824	786	2068.4%
경남	-	X		
제주	12	9	-3	-25.0%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은 대부분
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상 <측정, 시험, 항
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며, 세분류상으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
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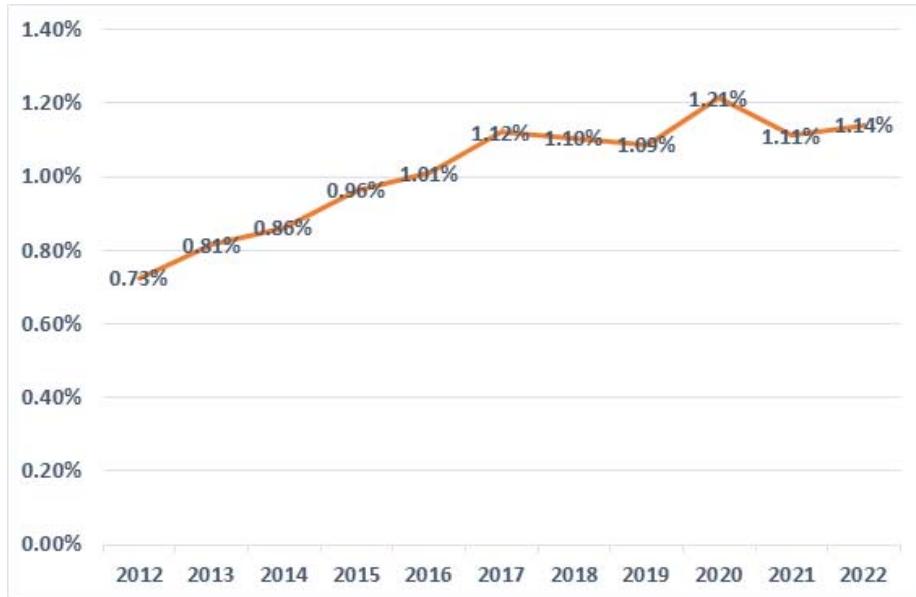
[표 4-5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세분류 및 세세분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측정, 시험, 항해, 제
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에서 1.14%로 1.56배 상승하였
는데, 이것은 이 기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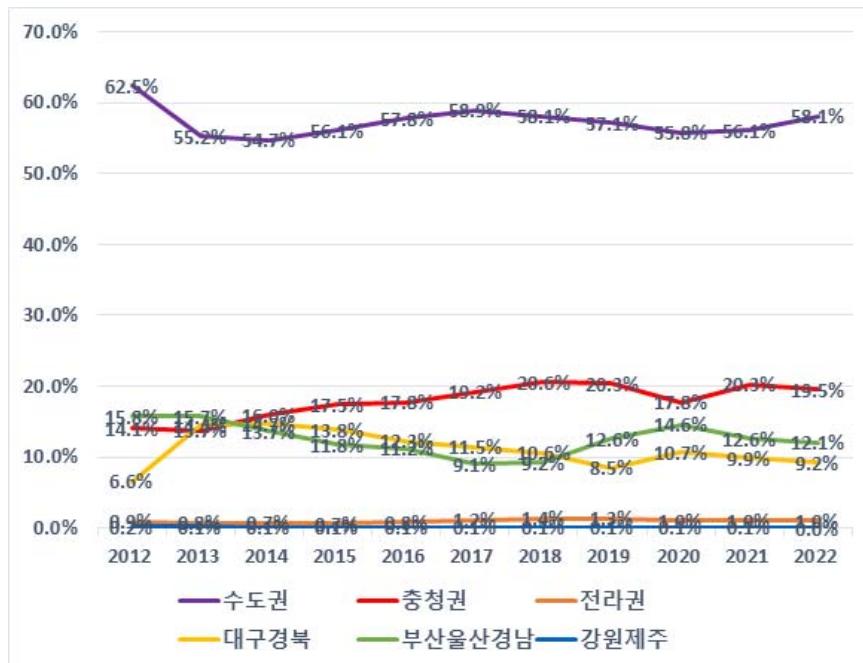


[그림 4-58]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 가치 비중 변화 추이

2022년 기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58.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비중 2,3,4위는 충청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으로 그 비중은 각각 19.5%, 12.1%, 9.2%. 순인 반면, 반면 전라권은 1%에 불과하다.

10년 간의 권역별 비중 변화를 보면 충청권은 14.1%에서 19.5%로 1.38배 상승했고, 대구경북권은 6.6%에서 9.2%로 1.39배 상승, 반면 부울경권은 15.8%에서 12.2%로 3.6% 포인트 하락하였는데, 10년 간의 전라권 비중 변화를 보면 1%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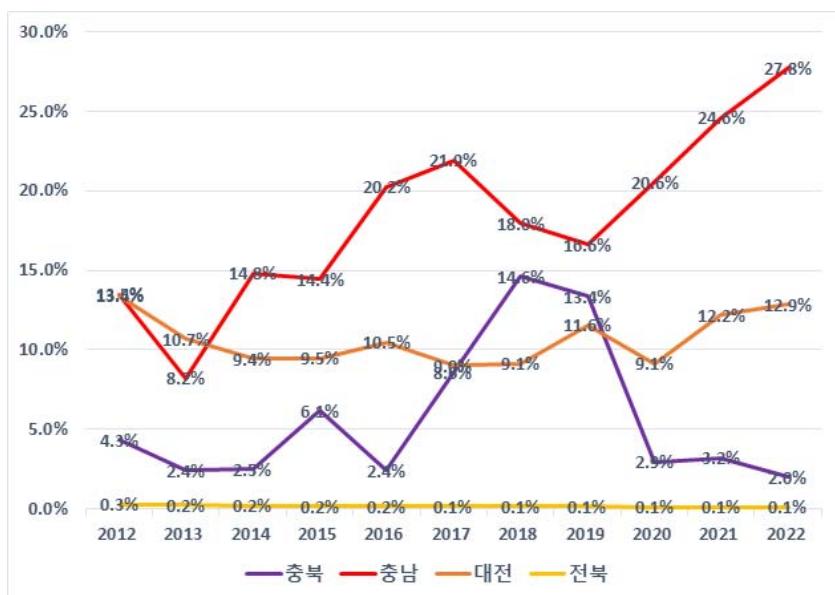
[그림 4-59] 최근 10년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표 4-51] 최근 10년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62.5	55.2	54.7	56.1	57.8	58.9	58.1	57.1	55.8	56.1	58.1
충청권	14.1	13.7	16.0	17.5	17.8	19.2	20.6	20.3	17.8	20.3	19.5
전라권	0.9	0.8	0.7	0.7	0.8	1.2	1.4	1.3	1.0	1.0	1.0
대구경북	6.6	14.4	14.7	13.8	12.3	11.5	10.6	8.5	10.7	9.9	9.2
부산울산경남	15.8	15.7	13.7	11.8	11.2	9.1	9.2	12.6	14.6	12.6	12.1
강원제주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남 비중은 13.5%에서 27.8%로 2배 이상 상승, 대전은 13% 내외에서 현상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4.3%에서 2.0%로 크게 하락했고, 전북도 0.3%에서 0.1%로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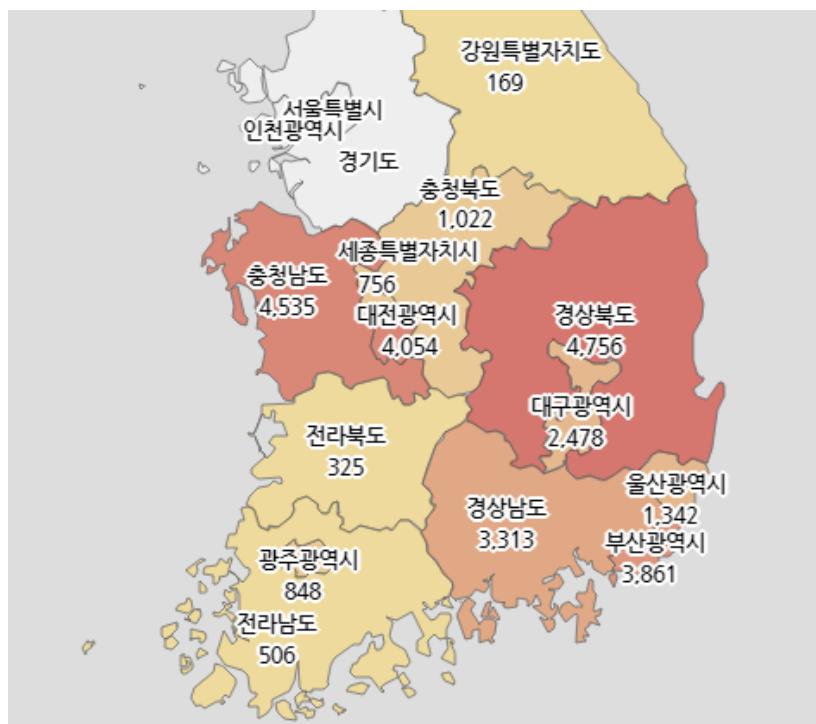
[그림 4-60]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표 4-52]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4.3	2.4	2.5	6.1	2.4	8.6	14.6	13.4	2.9	3.2	2.0
충남	13.5	8.2	14.8	14.4	20.2	21.9	18.0	16.6	20.6	24.6	27.8
대전	13.4	10.7	9.4	9.5	10.5	9.0	9.1	11.6	9.1	12.2	12.9
전북	0.3	0.2	0.2	0.2	0.2	0.1	0.1	0.1	0.1	0.1	0.1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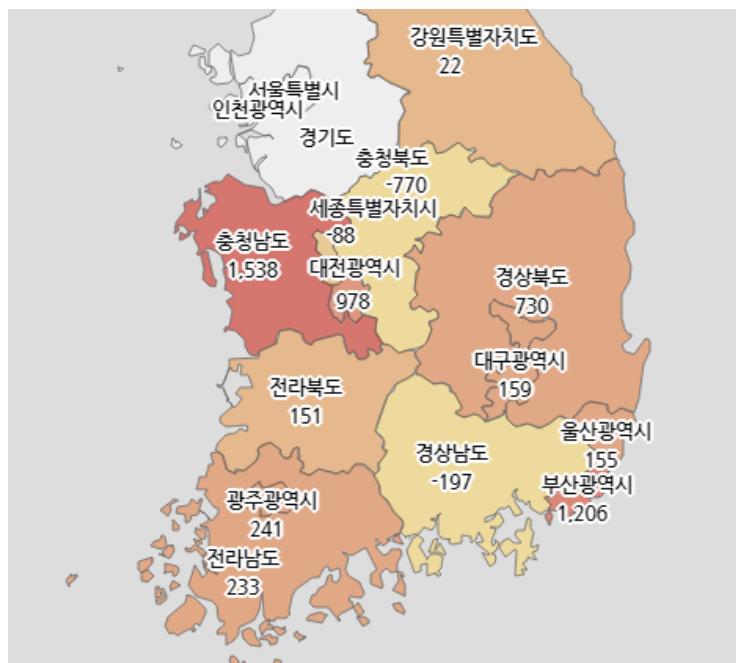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4천명 이상 종사하는 시도는 경북, 충남으로 각각 4,756명, 4,535명이었고, 3천명 이상 종사하는 시도는 부산, 경남으로 각각 3,861명, 3,313명이었으며, 2천명 이상 종사하는 시도는 대구로 2,478명인데 반해, 전북은 325명으로 비수도권 중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그림 4-61]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1천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충남, 부산으로 각각 1,538명, 1,206명 증가했고, 5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대전, 경북으로 각각 978명, 73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북 증가분은 151명으로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그림 4-62]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53] 2016~2022년 시도별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57,678	74,940	17,262	29.9%
서울	4,577	4,754	177	3.9%
부산	2,685	3,891	1,206	44.9%
대구	2,319	2,478	159	6.9%
인천	3,432	4,088	656	19.1%
광주	607	848	241	39.7%
대전	3,076	4,054	978	31.8%
울산	1,187	1,342	155	13.1%
세종	844	756	-88	-10.4%
경기	26,019	38,079	12,060	46.4%
강원	147	169	22	15.0%
충북	1,792	1,022	-770	-43.0%
충남	2,997	4,535	1,538	51.3%
전북	174	325	151	86.8%
전남	273	506	233	85.3%
경북	4,026	4,756	730	18.1%
경남	3,510	3,313	-197	-5.6%
제주	13	24	11	84.6%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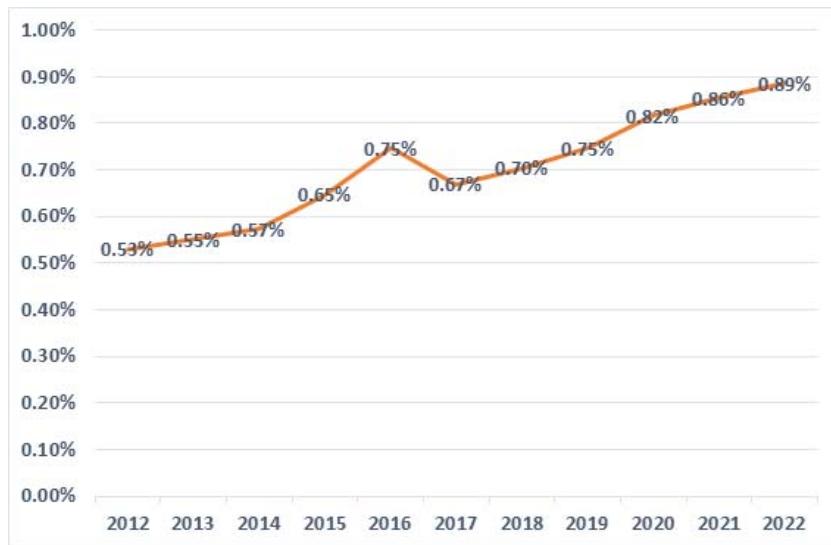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대분류상 제조업, 중분류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상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며, 세분류상으로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등 2개 업종을 포함하며, 세세분류상으로 방사선 장치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포함한다.

[표 4-5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 및 세세분류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료용 기기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2012년과 2022년 사이 최근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3%에서 0.89%로 1.68배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이 기간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63]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의료용 기기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다. 최근 10년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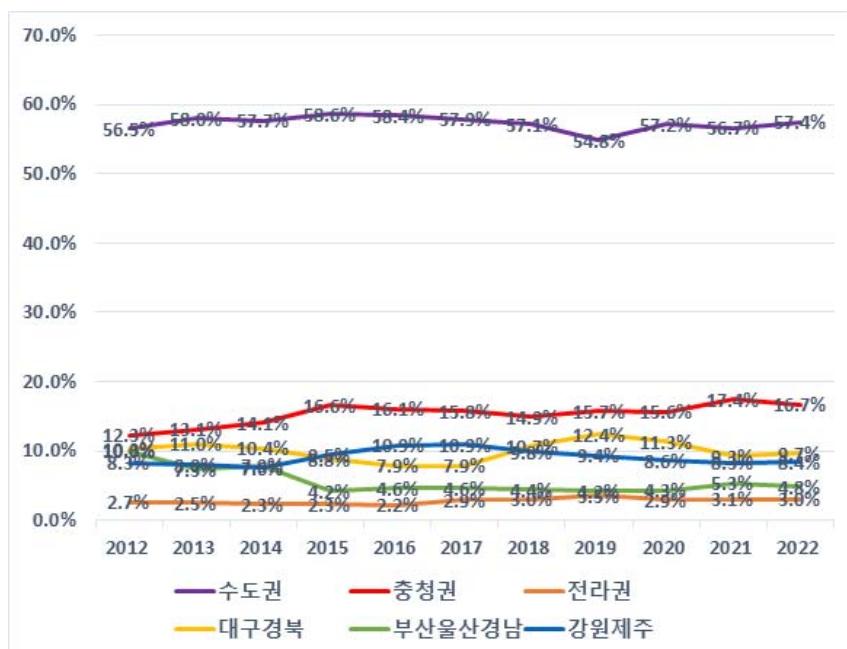
2022년 기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부가가치 중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57.4%, 충청권이 16.7%로 수도권+충청권 비중이 74.1%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두 권역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는 56.5%에서 57.4%로 0.9% 포인트 상승했고, 후자는 12.3%에서 16.7%로 1.36배 상승하였다.

2022년 기준 비중 3,4,5위는 대구경북권, 강원제주권, 부울경권으로 그 비중은 각각 9.7%, 8.4%, 4.8%으로 이들 권역의 10년간 비중 변화를 보면 대구경북권은 10.3%에서 9.7%로 0.6% 포인트 하락했고, 강원제주권은 8.3%에서 8.4%로 현상 유지했으며, 부울경권은 10.0%에서 4.8%로 크게 하락하였다.

전라권은 2022년 기준 최하위로 3.0%. 10년간 비중에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4-55] 최근 10년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도권	56.5	58.0	57.7	58.6	58.4	57.9	57.1	54.8	57.2	56.7	57.4
충청권	12.3	13.1	14.1	16.6	16.1	15.8	14.9	15.7	15.6	17.4	16.7
전라권	2.7	2.5	2.3	2.3	2.2	2.9	3.0	3.5	2.9	3.1	3.0
대구경북	10.3	11.0	10.4	8.8	7.9	7.9	10.7	12.4	11.3	9.3	9.7
부산울산 경남	10.0	7.3	7.9	4.2	4.6	4.6	4.4	4.2	4.3	5.3	4.8
강원제주	8.3	8.0	7.6	9.5	10.9	10.9	9.8	9.4	8.6	8.3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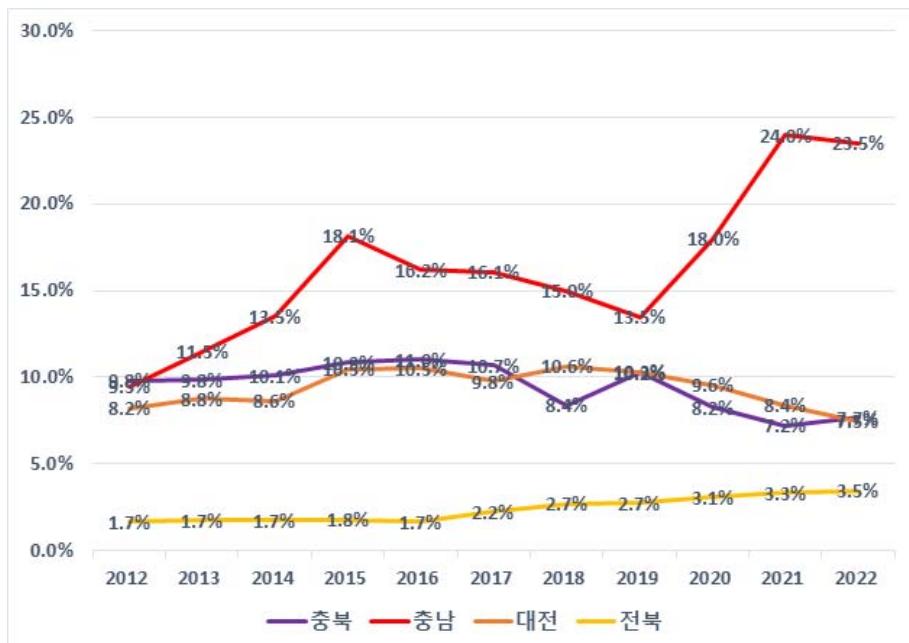


[그림 4-64] 최근 10년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이 기간 충남 비중은 9.5%에서 23.5%로 2.47배 상승했고, 충북은 9.8%에서 7.7%로 2.1% 포인트 하락했으며, 대전은 8.2%에서 7.5%로 0.7%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전북은 1.7%에서 3.5%로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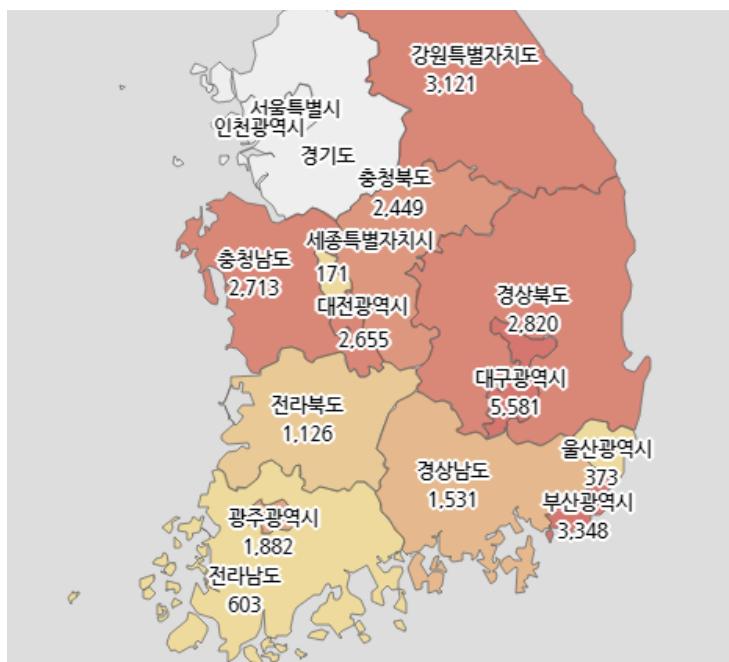
[그림 4-65]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시도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표 4-56]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 권역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충청권+전북)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북	9.8	9.8	10.1	10.9	11.0	10.7	8.4	10.3	8.2	7.2	7.7
충남	9.5	11.5	13.5	18.1	16.2	16.1	15.0	13.5	18.0	24.0	23.5
대전	8.2	8.8	8.6	10.5	10.5	9.8	10.6	10.2	9.6	8.4	7.5
전북	1.7	1.7	1.7	1.8	1.7	2.2	2.7	2.7	3.1	3.3	3.5

라.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를 보면, 종사자가 3천 명 이상인 시도는 대구, 강원, 부산으로 각각 5,581명, 3,121명, 3,348명, 2천명 이상인 시도는 경북, 충남, 대전, 충북으로 각각 2,820명, 2,713명, 2,655명, 2,449명이며, 전북은 1,126명으로 중하위 그룹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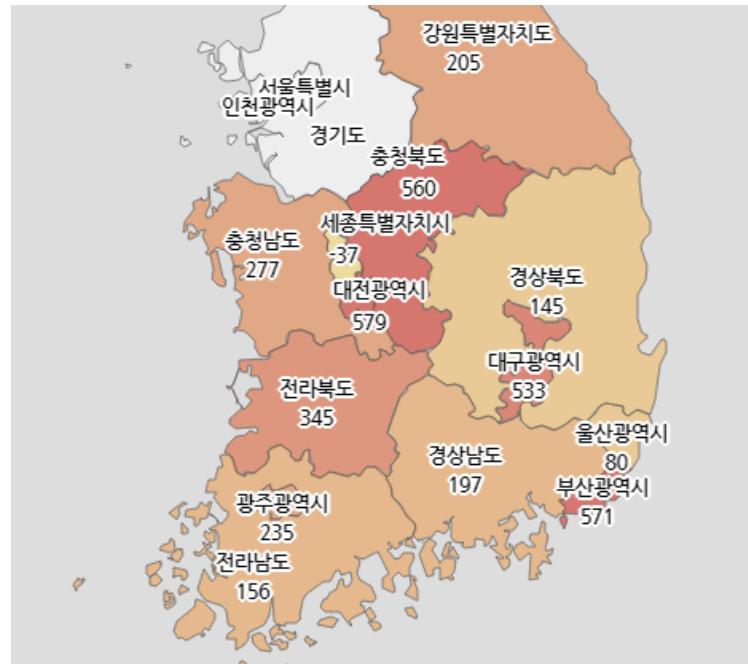


[그림 4-66] 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

2016년과 2022년 사이 6년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을 보면, 5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대전, 부산, 충북으로 각각 579명, 571명, 560명 증가했고, 2백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전북, 충남, 광주, 강원으로 각각 345명, 277명, 235명, 205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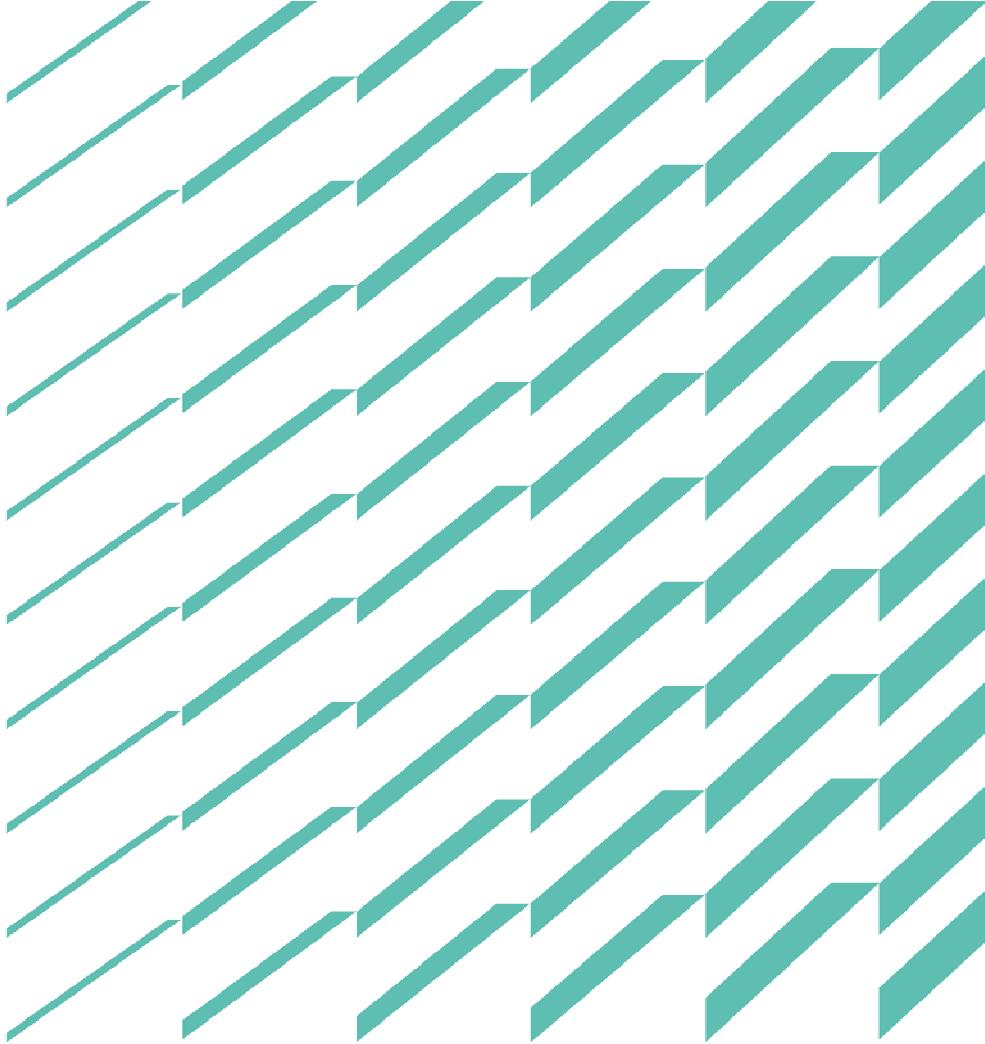
전북은 비수도권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4-67] 2016~2022년 비수도권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표 4-57] 2016~2022년 시도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비교(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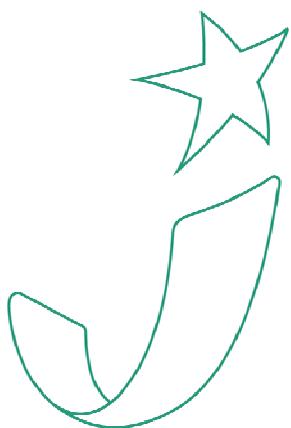
	2016	2022	6년간 증가분	6년간 증가율
전국	51,635	63,510	11,875	23.0%
서울	8,797	10,476	1,679	19.1%
부산	2,777	3,348	571	20.6%
대구	5,048	5,581	533	10.6%
인천	1,592	2,355	763	47.9%
광주	1,647	1,882	235	14.3%
대전	2,076	2,655	579	27.9%
울산	293	373	80	27.3%
세종	208	171	-37	-17.8%
경기	16,577	22,117	5,540	33.4%
강원	2,916	3,121	205	7.0%
충북	1,889	2,449	560	29.6%
충남	2,436	2,713	277	11.4%
전북	781	1,126	345	44.2%
전남	447	603	156	34.9%
경북	2,675	2,820	145	5.4%
경남	1,334	1,531	197	14.8%
제주	142	189	47	33.1%



제5장

결론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1.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1.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30년간 제조업 중심 충청권으로 대폭 이동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 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90년과 2022년 사이 32년간 수도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비중은 각각 4.9%p (45.1%→40.2%), 6.4%p (25.1%→18.7%), 3.1%p(12.0%→8.9%) 하락한 반면 충청권은 12.8%p (7.8%→20.6%) 상승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이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영남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큰 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과 2022년 사이 22년간 전국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 대비 도별 상승률 배율과 같은 기간의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중 도별 비중 변화 배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높은 충남, 충북, 경기, 전남의 경우 전자는 각각 1.92배, 1.44배, 1.25배, 1.05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각각 1.88배, 1.33배, 1.15배, 1.50배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내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도들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이것은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전자가 낮은 경북, 경남, 강원, 전북의 경우 전자는 각각 0.40배, 0.47배, 0.53배, 0.72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각각 0.64배, 0.70배, 0.71배, 0.81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10대 주력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도들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이것은 성장률이 낮은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제조업 내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들이 역내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청권처럼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거나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뚜렷하게 상승한 반면, 영남권처럼 성장률이 낮은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육성한 도의 경우 제조업 전체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북도도 현재의 제조업 내 업종 비중과 무관하게 신성장 제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10대 신성장 제조업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장기적 성장성)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10년간 중기적 성장성) 산업이라 정의하고, 전국 제조업 80개 소분류 업종 중 10개의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5-1] 장기, 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결과

순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 [A]	A에 부여한 점수 [B]	부가가치 상승률 [C]	C에 부여한 점수 [D]	합산점수 [C+D]
1	반도체 제조업	17.54%	81	213%	78	159
2	석유 정제품 제조업	7.65%	80	148%	74	154
3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75%	69	491%	81	150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34%	73	119%	70	143
5	의약품 제조업	2.15%	67	128%	72	139
6	기타 식품 제조업	2.48%	68	115%	69	137
7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13%	75	73%	59	134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0.55%	52	366%	80	132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1.15%	59	136%	73	132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0.89%	55	151%	75	130

부가가치 비중 및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성장 제조업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동시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라 정의하였고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였다.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반도체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업은 85개 제조업 소분류 업종 부가가치 중 17.5%를 창출하였고, 2012년과 2022년 사이 10년간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을 보더라도 108%를 기록하여 그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10년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권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 1.8%에서 2022년 0.8%로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이는 전체 인구 중 전라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업 비중 0.8%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라권 반도체 제조업의 정체는 전라권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적신호이라고 판단된다.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의료분야 업종으로 10년간 의약품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52% 커졌고,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68% 커졌으며,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무려 200%나 커졌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2022년에 코로나19의 광범한 확산으로 의료분야 제조업이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향후에도 의료분야 제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간 전국 의료분야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권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업종별로 성장과 정체가 달리 나타났는데, 의약품 제조업 비중은 4.2%에서 2.8%로 33% 하락,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비중은 0%에서 5.2%로 큰 폭으로 상승, 의료용 기기 제조업 비중은 2.7%에서 3.0%로 11% 상승하였다.

전체 인구 중 전라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분

야 제조업 비중도 낮은 편이며, 특히 의료분야 제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업 비중 하락은 매우 중대한 적신호라고 판단된다.

[표 5-2]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및 전라권 부가가치 비중 변화

순위	10대 신성장 제조업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 변화			전라권 부가가치 비중 변화		
		2012	2022	증가분 (증가율)	2012	2022	증가분 (증가율)
1	반도체 제조업	8.4%	17.5%	9.1%p (108%)	1.8%	0.8%	-1.0%p (-56%)
(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	이차전지 제조업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3%	3.3%	1.0%p (43%)	6.8%	7.2%	0.4%p (6%)
5	의약품 제조업	1.40%	2.13%	0.73%p (52%)	4.2%	2.8%	-1.4%p (-33%)
6	기타 식품 제조업	1.72%	2.47%	0.75%p (44%)	6.2%	8.8%	2.6%p (42%)
7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6%	4.10%	0.54%p (15%)	5.7%	5.3%	-0.4%p (-7%)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0.18%	0.54%	0.36%p (200%)	0.0%	5.2%	5.2%p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0.73%	1.14%	0.41%p (56%)	0.9%	1.0%	0.1%p (11%)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0.53%	0.89%	0.36%p (68%)	2.7%	3.0%	0.3%p (11%)
*	인구 비중				10.3% (2010)	9.7% (2022)	-0.5%p (-5%)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 제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 등이 고도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년간 전국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권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 6.8%에서 2022년 7.2%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전체 인구 중 전라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비중 7%는 다소 낮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라권이 이 업종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대 신성장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성이 커진 업종은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앞으로 1인 가구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타 식품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0년간 전국 기타 식품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라권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 6.2%에서 2022년 8.8%로 2.6% 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전라권이 전통적으로 식품 비중이 큰 권역이고 전체 인구 중 전라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타 식품 제조업 비중 8.8%는 다소 낮은 실적이다.

1인 가구 확대로 향후에도 기타 식품 제조업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라권이 이 업종 발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본 연구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 제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 제조업이 무엇이 있고 시도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적 기반을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에 10대 신성장 제조업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유치해야 할 상위 유망 제조업을 제시하였으며, 반도체 제조업, 의료분야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과 식품 제조업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유치의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3개의 유치 유망 제조업별로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집중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SUMMARY

Analyzing the Current Progress of Jeonbuk's Top 10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s to Explore Potential Value Chain Reinforcement

Joohyun Park · Si-Baek Kim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2015, Jeonbuk State has witnessed the departure of some large-sized companies that hold the lion's shar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potentially leading to an underestimation of the region's manufacturing value added. Conversely, Jeollanam-do, where the oil refining industry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could have overestimated its manufacturing value added due to the strong performance of the global oil refining industry over the past two decades.
- Aside from this, given that manufacturing performance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business growth and thus determines whether local economies flourish or languish, Jeonbuk is advised to prioritize fostering and attracting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s regardless of their weigh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keeping track of any relevant developments.
- We defined a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 as an industry with a high proportion of value add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mid-term growth potential) and a high growth rate of value added (growth potential over a

decade). Based on this definition, we sought to extract 10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s from 80 manufacturing groups nationwide and analyze them to draw implications.

■ Research Scope and Methods

- According to the 10th revision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ll industrie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21 sections, 77 divisions, 232 groups, 495 classes, and 1,195 sub-classes;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classified into 1 section, 25 divisions, 85 groups, 183 classes, and 477 sub-classes. To facilitate analysis, we reduced the target industries to 80 groups.
- After considering both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oportion and growth rate of value added, we defined new growth engine manufacturers as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and growth rate of value added and selected the final candidates through three step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The progress analysis of the top 10 growth engine manufacturers over the past decade, between 2012 and 2022, confirmed tha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driving the nation's manufacturing sector. In 2022, 85 manufacturing groups attributed 17.5% of their value added to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s growth rate in the proportion of value added between 2012 and 2022 also recorded a whopping 108%, indicating its pivotal role as the backbone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the proportion of value added in Jeolla Province has halved, and given t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taking center stag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erative for the region to build relevant infrastructure.
- The healthcare industry, which has grown significantly in importance over the

same period (2012–2022), follow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e proportion of value added for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and the manufacture of medicinal chemicals, antibiotics, and biological products increased by 52%, 68%, and a staggering 200%, respectively. The COVID-19 pandemic has driven significant growth, but the medical manufacturing sector is expected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due to accelerated aging.

- The manufacturing of other chemical products has grown in importance alongside semiconductor and medical manufacturing, driven by the exponential growth of semiconductor and secondary battery manufacturing. Unfortunately, Jeolla Province saw a minimal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value added and considering that the production of other chemical products supports critical sector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ector warrants particular attention.
- Another industry that has strengthened its presence is the manufacture of other food product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rise in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 Targeting the above three promising manufacturers, we plan to incorporate the analytical findings of this study into our follow-up studie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d proposing manufacturer-specific strategic roadmaps and detailed action plans through in-depth research and expert consultation.

Key Words

Manufacturing Industry, Growth Engine Manufacturers, Leading Growth Engine, Healthcare Industry, Chemical Industry, Food Manufacturing

기획연구 2024-09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북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분석

발행인 | 이 남호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57-9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체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